

2023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모델 및 콘텐츠 개발

예술치유
자연극장

누구나, 자연을 무대로
자신만의 드라마를 만드는

발행일 2023년 9월

발행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은실 원장

수행기관 (주)조경하다 열음

수행기관

대표기획자 | 조혜령 (주)조경하다 열음 소장

공동기획자 | 심주영 퍼블릭어라운드(주) 대표

공동기획자 | 박소희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총감독, 어떤컬렉티브 대표

보조기획자 | 김이경 퍼블릭어라운드(주) 연구원

자문 및 기획 참여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근향 (사)한국수목원식물원협회 이사

최지윤 국립세종수목원 정원교육실 실장

박상언 국립세종수목원 학교교육팀 팀장

민지애 국립세종수목원 학교교육팀 주임

이윤정 감독 | 어떤 댄스

송주원 감독 | 일일댄스프로젝트

흑표범 퍼포먼스 작가

안성석 미디어 작가

김지수 시각미술 작가

사업 기획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사업본부 김자현 본부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가치확산팀 정다워 팀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가치확산팀 허은희 대리

디자인

어떤 디자인 스튜디오

*본 사업모델 개발은 과업의 연구물로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모델 및 콘텐츠 개발

INDEX



도시숲 예술치유 모델개발사업 개요	009
도시숲 예술치유, 더 나은 시도를 위한 기획자의 질문	011
삶에서 예술이 필요한 순간, 자연으로 걸어 들어가다	
정원은 지금의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을까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술과 예술가의 역할	
도시숲 예술치유, 개념화 및 접근	017
도시숲 문화예술 치유 개념과 접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간의 사업 진행과 특징	
도시숲 정의와 유형화 사업 대상지 도출	
도시숲 + 예술치유, 새로운 결합을 위한 사례 연구	057
치유 관련 트렌드 '자연에서, 숲과 함께'	
도시숲 치유 프로그램 사례	
도시숲이 예술을 만난 사례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모델 기본구상	095
도시숲 예술치유 기획 의도	
도시숲 예술치유 방향 구상	
도시숲 예술치유 프로그램 비전 및 목표	
사업 추진 모델	
사업 추진 전략 프로그램 개발 원칙	
콘텐츠 개발 방향 및 프로그램 시나리오	
파일럿 사업 프로그램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117
파일럿 사업지 조사 및 워킹그룹 운영	
파일럿 프로그램 01 <안성석 작가의 종의 집>	
파일럿 프로그램 02 <송주원 작가의 정원으로 가는 길>	
파일럿 프로그램 03 <홍표범 작가의 비커밍 버즈>	
사업 추진 방안 및 공모 프로세스 제안	137
사업 추진 체계	
사업 추진 유형 01 <확산형 공모사업>	
사업 추진 유형 02 <콘텐츠 개발형 예술가 기획사업>	
부록	141
세부 프로그램(교육)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153

도시숲 예술치유 모델개발사업 개요

사업 배경

기획의도

연구 과정 및 내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예술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과 자기표현 능력의 향상으로 개인과 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2015년 <마치, 봄처럼>을 통해 전국 단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확장해왔으며, 주로 재난 사고, 범죄 피해자 중 경미, 재활 단계의 대상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이는 유네스코 총회 서울 아젠다(2011)에서 새롭게 발표한 예술교육 발전 목표를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목표 3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 문화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전략 38에서는 “사회·문화적 복지를 향상 시킬수 있는 예술교육의 역할을 인식하고 발전”토록 도록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진흥원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대상과 성격을 달리하여 변화해왔다. 2021년 <찾아가는 마음치방진>은 치유가 필요한 대국민으로 치유 대상을 확장하였으며, 2022년 <어디서든 예술치유>는 주로 기관 협력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의 일부를 전국 7개 지역의 공공공간(공원, 복합문화공간, 광장 등)으로 확대하였다. 2023년에는 펜데믹으로 더욱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된 도시숲으로 장소를 정하고, 도시숲 예술치유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녹색’, ‘자연’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한 지 이미 오래이며 반려식물, 플랜테리어 등의 개념으로 사람들의 일상에서 정서적 치유와 신체적 회복을 돕는 매개체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에 이러한 시도는 특별하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도시숲 예술치유를 단순히 장소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의 과정이 있었다. 우리는 예술치유부터, 도시숲, 그리고 새로운 도시숲 예술치유라는 각각이 장르(개념)를 다시금 훑아보면서 탐색하고 접근하고자 하였다. 무엇이 적절한 방향인가, 모델인가에 대한 논의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도시숲 예술치유>를 기존에 범람하고 있는 여러 치유 사업들 속에서 차별화하여 사업의 생존력, 고유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안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구 기간은 2023년 5월 - 9월까지 이며 연구를 통해 제안한 (후속) 파일럿 사업이 2023년 9 ~ 10월, 두 달간 국립대관령치유의숲과 국립세종수목원 두 곳에서 진행된다.

- ∞ 도시숲 예술치유 접근 및 개념화
- ∞ 유사 프로그램 사례 연구(국내외)
- ∞ 도시숲 예술치유를 위한 장소 발굴 및 유형화
- ∞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 비전 및 전략
- ∞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모델 및 콘텐츠 제안
- ∞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 추진 체계 및 추진 방안
- ∞ 도시숲 예술치유 파일럿 사업 세부 프로그램(3개) 제안

도시숲 예술치유, 더 나은 시도를 위한 **기획자의 질문**

도시숲(자연, 정원)

예술

예술가

기획과 기획자

프로그램

1

삶에서 예술이 필요한 순간, 자연으로 걸어 들어간다.

심주영 | 퍼블릭어라운드(주) 대표

유난히 무덥고 힘들었던 2023년 여름을 보냈다. 기후재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성큼 개인과 일상으로 걸어 들어온 느낌이다.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전세계가 아우성을 치던 일이 불과 1-2년 전 일인데 사회와 삶은 필름을 잘라 이어붙이듯 제자리로 돌아간 것만 같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모두 안녕한가?

약 150년 전,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 니체는 『비극의 탄생』(1872)에서 혼돈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삶에 예술을 들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우리 내면에 잠재한 충만한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왜 예술일까? 니체는 기술과 자본 중심의 삶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인간은 본래 ‘신화적인 세계’를 살아가던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신화는 민족, 공동체의 언어이자 세계관이다. 신화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모든 것은 표정을 갖는 영적인 존재, 즉 감각하고 감정에 반응하며 혼과 생명을 지닌 존재이다. 우리는 신화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산과 강을 광물질 에너지체, 에너지 저장원으로 해체하지 않고 숲의 장엄함, 정원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교감과 소통의 장소로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술의 과제가 바로 이러한 신화를 창조하고, 신화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의미와 방향성을 부여한다(빅찬국, 2023).

니체라는 이 낯선 철학자가 150년 전에 던진 화두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예술은 본래적인 나를 드러내는 장치이다. 어린아이처럼 유희하고 춤추며 자신을 드러내면서 개체의 탄생, 성장, 번영과 몰락이라는 삶의 모든 사건을 표현해간다. 예술에서만이 줄 수 있는 도취와 활활경은 개인의 현재를 잠시나마 내려놓고 자신의 상태를 망각할 수 있도록 한다.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공동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도 있게 한다. 즉, 예술치유는 예술이 가진 본래적인 기능을 드러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신화적 세계관은 자연을 삶의 장소, 무대로도 환원시킨다. 그리스 신화에서 예술, 문화의 원형을 드러내는 신 디오니소스는 자연의 질서, 사계의 순환과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디오니소스는 간혹 환락, 무아경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유희와 즐거움, 도취를 맛보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최초의 문화적 원형인 축제와 연극은 신화를 재현함으로써 삶의 유희, 도취를 경험하는 장이었다. 그 장소는 무대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곳을 배경으로 삼았고 주로 자연의 장엄함, 아름다움이 가득한 숲의 터전과 정원들이었다. 150년이 지나 이제는 과학에서도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을 분석하고 있다. 『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미셸 르 방 키앵, 2023)에서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연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뇌과학적 분석을 제시한다. 우리 몸은 오랜 세월동안 자연을 통해 근본적인 가치를 되찾고, 삶의 에너지를 채우며 걱정과 내적 갈등을 중단시키는 작용을 체화하였다는 것이다. 어떤가? 궁극적으로 자연과 예술은 하나이며 다르지 않음을 마주해보고 싶지 않은가?

정원은 지금의 우리를 치유해줄 수 있을까?

조혜령 | (주)조경하다 열음 소장

영화
<오만과 편견>
(2005년)



영국의 여류소설가 제인오스틴(Jane Austen)의 소설의 배경에는 유독 숲과 정원이 많이 등장한다. 성별의 이데올로기가 만연했던 시절 남녀의 결혼문제를 둘러싼 문제를 드러내고 인물들과 사건이 시작되는 장소들로 작가는 영국 근교의 전원 풍경과 정원을 단골과 같이 등장시킨다. 실제로 그는 정원이 없을 때에는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건강이 악화된 후로 책을 읽거나 한담을 나누는 대신 초턴 코티지(Chawton House)의 과일나무들과 잘 깎은 잔디, 이국적인 식물들에 둘러싸인 정원에서의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인근 숲을 느리게 걸으며 생명을 살피고 깊게 숨을 들이쉬는 연습을 통해 스스로 자연에서의 치유 방법을 터득하며 집필 활동을 이어갔다(데이먼 영, 2016).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사회 곳곳에 쌓인 분노들은 갈등과 범죄를 형성하고, 전염병이 지구촌을 휩쓸며 한동안 우리는 고립된 사회 속에서 고통받았다. 청년들의 취업은 힘들고 여전히 늘어가는 자살률, 이혼률 등은 피폐해진 우리네 삶의 단면을 냉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받고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지금 이순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음 돌보기 일 것이다.

실제로 제인 오스틴을 비롯한 우리가 알만한 인생에서 성취를 이뤄낸 인물들 중에는 내적 갈등으로 지친 영혼을 풀어내 준 안식처로서 정원의 삶을 선택한 이들이 많다. 다산 정약용은 갑작스런 정조의 죽음으로 맞게 된 좌절과 유배에도 정원 생활을 이어갔다. 삶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도 초당의 정원 생활이 있었기에 유배 속에서도 강학과 저술에 매진할 수 있었다(성종상, 2023).

최근 서거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자 찰스 국왕 또한 64년간 왕위계승 1순위로서 불안정한 정치적 위상과 스캔들을 겪으며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화려할 것만 같은 왕실의 생활에서 찰스의 유일한 해소 창구는 그림 그리기와 가드닝이었다고 전한다. 엘리자베스 2세의 일대기를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 ‘더 크라운(The Crown)’에서 찰스는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을 자신이 매입한 황무지 별장 하이그로브(Highgrove)에 모시고 야심찬 정원 계획을 브리핑한다.

“..... 결국에 이 집과 땅, 정원이 진정한 제가 누군지를 반영하는 거예요. 다 자연 상태로 둘 겁니다. 화학약품과 살충제도 쓰지 않을거구요. 말끔한 손질이나 획일성도 피하려 합니다. 관습에서 벗어난 과감한 야성미를 살리는거죠.....”

이렇듯 정원을 통한 위로는 아마도 생명의 돌봄을 통해 자연과의 연대감 속에서 소박하고 진솔한 삶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겐 상처 받고 지칠 때 달려갈 정원이 하나씩은 있는가? 마지막으로 빈센트 반고흐가 아를 요양원에서 가족에서 보낸 편지글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정원에서 오랜만에 작업을 즐겁게 하며 만개한 꽃들과 그 안에서 건강함을 오랜만에 느껴봅니다. 심신이 안정되가고 있어요. 가족들 모두 걱정마세요..”

-<반 고흐의 정원> (랄프스키, 2011)-



The Asylum Garden at Arles, 1889 by Vincent Van Gogh(출처:반 고흐 뮤지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술과 예술가의 역할

박소희 |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총감독, (재)파마리서치문화재단 이사, 어떤컬렉티브 대표



<비커밍 버즈: 뱀, 물, 새의 연습> 프로그램

이번 연구에서 예술가의 역할 및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으로 부각 되었다. 대부분 기관에서 예술가를 예술 교사(티칭 아티스트)로 고용하거나 혹은 한 예술가나 예술 집단에 의뢰 및 용역을 맡기고 진행했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기관(도시 숲 운영 기관, 산림청 혹은 수목원 등을 칭한다)과 중간 조직(프로그램 운영자, 코디네이터, 큐레이터 등을 칭한다), 예술가(기획자 또는 개발자를 칭한다)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 개발 시, 기관이 제공하는 그 기관만의 중요한 정보에 기반하여 코디네이터가 장소 정체성과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연구·조사하고, 예술가는 예술 작품에서 기반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세 집단이 동시성을 갖고 연구,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시도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로 이점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 우선 작가에게는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작품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게 제작하여 작업 사례로 활용할 수 있기에 내외부적 동기부여가 확실하며, 중간 조직의 발생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게나마 해소하고 동시에 기관에서는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장기적인 발전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며, 그로 인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장소적 접근

기존 숲, 공원, 정원 등 도시숲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에서 공간은 편방향적이고 수동적인 위치에 자리하여 프로그래머나 참여자에게 배경 혹은 힐링을 주는 주요 요소로만 작용하였다. 그

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공간을 내용 면에서나 외형 면에서 예술가를 비롯한 참여자 동등한 위치를 부여하여, 서로 상호 교환하는 권리와 의미를 부여한다. 즉, 공간의 지리적 생태적 연구를 기반으로 각 공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예로서 남산에서 진행한 「살아있는 관계(Living Relation)」(2021-22, 강수민 외 참여) 프로젝트는 숲길 중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감으로써 미생물이 잘 자라나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의 발걸음이 프로그램의 참여가 배경으로만 여겨졌던 공간에 이로움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숲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체화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예술가적 접근

예술은 예술가를 통해 구현된다. 예술 치유 프로그램 또한 제대로 된 구현을 위해서는 예술가의 개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상당 기간 자신의 작업을 위해 연구하고 기획한 작가의 작업은 우리가 전시장에서 만나는 결과물만이 아닌 모든 과정이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근래에는 그 과정 또한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도 이와 흡사하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작업에 기반해 제작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예술가의 작업에 기반해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경우, 프로그램만을 위해 기획된 사례보다는 더 진정성을 갖게 되며 더불어 기획과 제작의 과정에 늘 놓여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가소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장소에 따라 대상자의 유형과 구성에 따라 혹은 기관이 갖는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점으로 인해 프로그램 확산에 용이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도시숲 예술치유, 개념화 및 접근

도시숲(자연, 정원)

예술

예술가

기획과 기획자

프로그램

1

도시숲 문화예술 치유 개념과 접근

문화예술치유
개념

진흥원에서는 2015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모델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현재 전국적으로 예술치유 사업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진흥원과 서울문화재단 2곳으로 국내 예술치유 관련한 개념화 및 담론 형성 역시 두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2016)에 따르면 예술치유 연구는 영미권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국내에서는 사례가 많지 않다.

해외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예술치유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으며, 포괄적으로 건강과 예술을 연결시켜 사용하고 있다. 건강 안의 예술(Arts in Health), 건강을 위한 예술(Arts for Health), 치료를 위한 예술(Arts in Therapy) 등이며, 예술과 안녕감(Arts and Wellbeing) 등 정서적 건강까지도 포함한다. 예술치유의 배경에는 예술이 갖는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인 감정의 정화 능력, 카타르시스에 주목한다는데 있다. “예술 참여활동을 통해 얻는 감정의 정화는 남녀노소, 질병의 유무, 사회적 지위 및 환경적 제약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술의 주요 본질”(문화체육관광부, 2016, p.13)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예술치유 개념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치유적 기능을 활용한 일련의 모든 예술 활동”이다(Arts Council Ireland, 2010).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는 예술치유를 통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효과에 주목하여 일찍부터 예술치유 정책을 펼쳐왔다. ACE는 예술을 통해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건강, 안녕감(Well-being), 삶의 질을 증진하는 보편적인 예술 창작과 시연, 예술 참여, 환경 미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술치료를 예술치유의 한 범주로 포함하기도 한다.

예술치유

[개념의 대표성]

건강 안의 예술 (Arts in Health)
건강을 위한 예술 (Arts for Health)
치료를 위한 예술 (Arts in Therapy)

[개념의 확장 - 예술 본연의 회복성, 창의성]

예술과 건강 (Arts and Health)
예술과 안녕감 (Arts and Wellbeing)

치료적 예술 (Therapeutic Arts) 참여 예술 (Participatory Arts) 공동체 예술 (Community Arts)
치료적 예술교육 (Therapeutic Arts Education) 공동체 참여 예술 (Community Participatory Arts)
치유 예술 (Healing Arts) 예술과 치유 (Arts and Healing)
치료적 예술교육 (Therapeutic Arts Education) 정신건강을 위한 예술 (Arts for Mental Health)
비치료적 예술 (Non-Therapeutic Arts) 예술 기반 개입 (Art-based Interventions)
비임상적 예술 (Non-Clinical Arts)

그림 1 문화예술치유 개념화

문화예술치유 정의
예술치료와
예술교육과의 차별점

예술치유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적립한 랭글리 브라운(Langley Brown)은 예술치료와 예술치유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으로 ‘치료’에 대한 목적성에 따른 과한 개입에 우려를 표한다. 예술치료와 달리 예술치유는 창의적 예술을 중심으로 하며 따라서 치료에 예술을 접목하는 것이 아닌, ‘예술가가 주도하는 창의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회복과 안정을 찾는 활동’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예술창작 활동의 다양성 그 자체에서 발현되는 효과에 집중하는 점에 주목한다(Brown, 2006).

국내에서는 1980년대 미술치료가 도입되면서 주로 예술치료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2년 힐링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비로소 ‘예술치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3년 「예술치유 활성화 추진모델 개발 및 사업 타당성 연구」 추진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치유와 예술치료를 구분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예술교육과도 다른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예술치유는 예술활동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예술치료와는 다르게 전문적인 자격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본다. 또한 예술치유는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활용할 수 있고, 개인이나 단체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에 따르면 예술치료와 예술치유 활동을 나누는 주된 기준은 임상성으로 예술치료의 대상은 환자이며 치료의 목적성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예술치유와 예술교육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술적 개입의 목적이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예술치유는 주로 표현적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자존감 회복, 심리적 위안 등을 목적으로 삼는 반면, 예술교육은 특정한 지식이나 스킬의 습득 또는 일반적인 문화적 소양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위원회(2013,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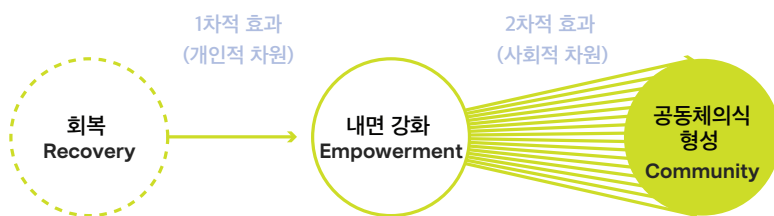


그림 2 문화예술치유가 위치하는 지점

문화예술치유 목표

영국예술위원회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예술치유가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예술을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의 건강 증진과 개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예술치유 사업을 시행해온 서울문화재단은 2013년 「성북창작센터 예술치유 모델 평가체계 개발 및 발전 방안」 연구에서 예술치유 개념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예술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연구’ 두 개의 관점을 기반으로 예술치유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 작동하는 두 기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인은 정서적·심리적 회복을 통해 내면을 강화해 나가며, 개인의 자기 존중감 강화는 공동체 의식 형성과 연대에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본 모형에 따르면 문화예술치유의 목표를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립할 수 있다.

1. 예술치유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변화시키는데 있다
2. 예술치유는 삶의 질과 연관지어, 예술을 통해 사회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문제 해결력 증진을 기대한다
3. 예술치유를 통해 개인의 태도,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나아가 자기실현에 대한 동기유발을 가져온다.
4. 예술치유는 치료, 교육과 구분하여 목적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예술치유는 인간의 전체성에 근거하여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행동 및 갈등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예술치유는 삶의 질과 연관 지어져야 하며, 예술을 통해 사회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수용, 문제해결력 증진을 가져오게 한다.

자신과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하며, 자기실현에 대한 동기유발에 초점을 둔다.

치유는 치료, 교육과는 구분되며 의학적 개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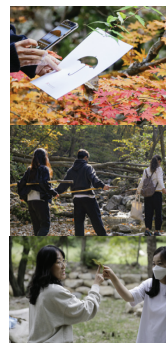


그림 3 문화예술치유 목표

문화예술의 치유 효과

아일랜드 예술위원회는 예술치유를 ‘시민을 위한 예술참여활동’의 한 형태로 봄으로서 예술치유가 환우, 사회약자 또는 소수 대상만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한 분야가 아님을 강조한다. 따라서 예술치유를 행하는 주목적은 참여자들이 갖게 되는 예술적인 체험·경험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치료적 효과는 보너스라는 점을 강조한다(Art Council Ireland, 2011, p.113). 앞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에서는 예술치유 효과에 대한 모형을 소개하면서 예술치유의 형식을 예술참여와 예술창작의 범주로 본다.

따라서 예술치유의 효과는 참여자들의 능동성, 주체성에 있다. 예술가는 창의적 개입을 통해 참여자들의 몸과 마음이 자생적이고 자발적 회복과 안정을 되찾도록 도와주며, 인간 본성의 자발적인 예술 표현의 무의식적 행위를 치유 대상자가 스스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 모두의 자기 치유력(self-recovery)과 자기 회복력(resilience)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 참여자는 자신의 문제점, 갈등, 고통을 스스로 완화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자유롭게 됨으로서 개인의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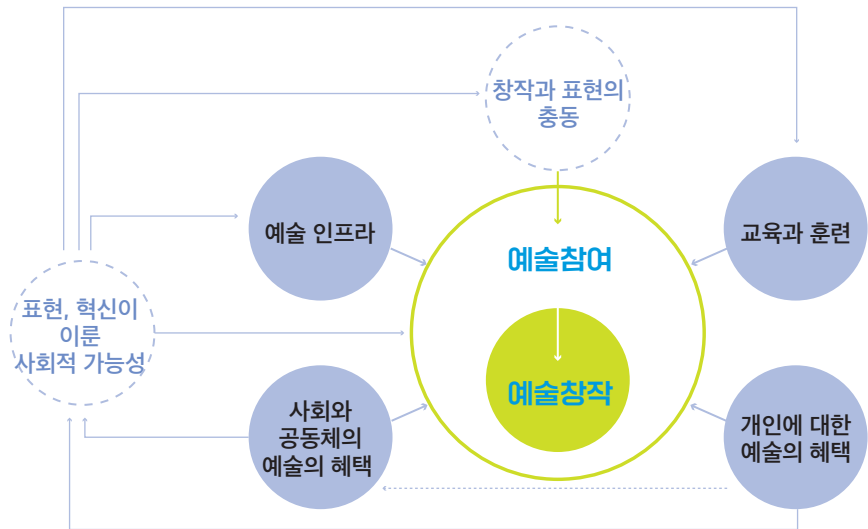


그림 4 문화예술치유 참여 구조와 영향

문화예술치유 대상

국내 예술치유와 관련한 논의는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예술치유 사업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대상과 목적이 다르게 적용된다. 진흥원에서도 2015년 예술치유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을 환자나 사회적 약자,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계기로 치유 대상을 점차 일반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의 목적도 치료에서 건강 증진과 예술 참여로 확대해 가고 있다.

마타라소(Matarasso, 1997) 연구 결과에 기초한 ‘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따르면 예술은 개인적 발전을 토대로 사회적 결속력 강화와 공동체 의식의 강화 및 자기 결정력 증진으로 이어진다. 로컬 기반의 장소성 강화는 지역의 이미지 형성과 정체성으로도 연결되며, 새로운 비전 형성과 웰빙으로도 나아가는 확장적인 영향력을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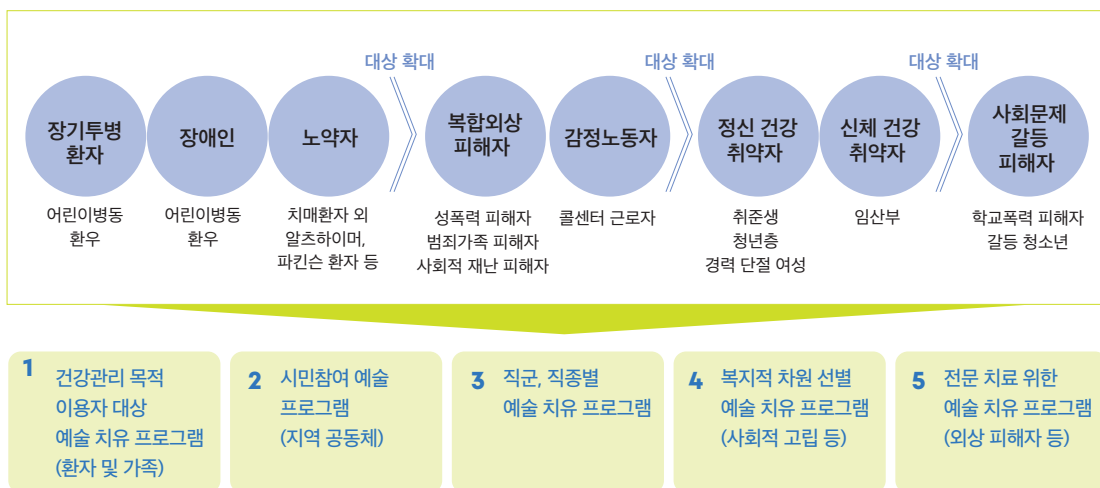


그림 5 문화예술치유 대상

표 1 예술활동 참여의 사회적 영향 (Matarasso, 1997)

영향력 범위	예술활동 참여에 따른 영향
개인적 발전	개인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변화를 다룬 것으로 자기확신, 교육, 기술,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포함함
사회적 결속력	사람과 그룹 사이의 연결고리에 관한 것으로 상호 문화적이고 세대 간 이해를 통한 공감대, 연대 의식 의미함
공동체 의식 강화 자기결정력	조직화에 대한 역량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갈 동기 유발을 지지하고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한 참여와 협조를 의미함
지역 이미지 정체성	장소성에 대한 의식과 지역 소속감, 그리고 지역적 차이와 그룹/공공기관이 이미지에 관하여 구축
상상력과 비전	창의성과 전문적 실천력, 긍정적 도전 정신, 그리고 기대감과 상징성에 대한 공감 능력 발휘
건강과 웰빙	예술을 통한 건강 회복과 교육적 효과, 그리고 삶에 대한 기쁨을 의미함

서울문화재단은 2010년 예술치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간 거점으로 서울예술치유허브(전, 성북예술창작센터)를 운영해왔다. 2019년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며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는데, 이 논의들 속에 국내 예술치유에 관한 인식과 지형이 잘 드러나 있다. <서울, 예술치유를 상상하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4차례의 콜로키움 내용을 여기에 소개한다. 자료는 2019 서울예술치유 네트워크 콜로키움 결과자료집(서울문화재단, 2019)을 참조하였다. 서울예술치유허브는 2021년(7월 28일 폐관)까지만 운영되었고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술치유 사업도 현재는 한시적으로 중단 상태이다.

“스스로 회복하는 것을 서포트 한다’ 일반인들에게 국민체조처럼, 예술치유가 캠페인이나 의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차 콜로키움 | 예술경험 과정이 중심이 되는 치유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 프로그램 Dance for PD(Parkinson's Disease)은 2001년 마크모리스 댄스그룹(MMDG)과 브루클린 파킨슨그룹(BPG)의 협업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도 2017년 전문무용수지원센터와 제휴를 맺고 강사 양성 교육과 임상을 거쳐 2019년부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Dance for PD는 ‘환자가 아니라 무용수이다’를 강조한다.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공동체와 연결성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파킨슨 환자들은 몸이 멈추거나 말을 잘 못하게 되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쉬운 수준의 무용, 가벼운 몸 쓰기를 통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표현해내고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함으로서 정서가 좋아지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모두가 소외되지 않기, 둘째, 예술적 감성을 제공하는 것, 셋째, 명료한 소통의 언어 만들기이다. 특히 예술적 감성이라는 부분에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에 맞춰 스스로 상상한 이미지를 예술가처럼 표현할 수 있게 돕는다. 인상적인 것은 환자의 특성에 맞추어 필요하면 음악과 리듬을 과감히 버린다는 것이다. 결국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가장 쉽고 편안한 예술로서 참여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개선을 돕는 것, 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의 좋은 사례로 보여진다. Dance for PD 수업을 위한 13가지 가이드라인도 확산 모델 개발에서 참조할 만한 지점이다.

(발표자: 김미영, 무용치료사)

“우리는 치유 또는 치료를 말할 때, 언어의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단어가 원래 있었던 의료모델과 차별할 필요가 있어요. (중략) 오랜 시간동안 아픈 사람을 온전케 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어른을 만나는 것이었고, 위대한 자연과 연결하는 행위였고, 예술의 은유와의

식의 승화를 사용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략) 예술이 인간을 치유한다는 말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힐링이라는 원어를 따져보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분리되고 막혔던 게 뚫리고 붙는다는 뜻인데요. 지금은 회복을 해도 돌아갈데가 없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복될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중략)

예술은 인류의 본성이라고 하죠. 동굴벽화 시대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예술을 하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중략) 이런 창조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창조성과 자연스러움이 사라지는 지금 세상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다’의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우리 전체가 온전하지도 자연스럽지도 건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술이 우리를 온전케 하리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었고, 파괴되지 않은 지지체계가 있고, 생명력의 건강함과 죽음의 당연함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발표자: 정은혜, 미술치료사)

“예술가가 치유헌동을 할 때 부딪치는 문제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술가가 예술치유 활동을 할 때, 분명히 자기 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쁨, 만족감, 인간성에 대한 통찰 같은 것 말이죠. (중략) 아마 예술치유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의 고민일텐데, 과연 예술치유라는 일련의 활동들이 진짜 변화를 가져올까요? 교육의 목표는 변화라고 배웠는데, 한발 더 나아가 치유라고 했을 때는 변화의 결과가 감지되거나 측정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답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예술치유 과정에서 변화는 예술가의 직관에 의해 감지되고, 정확한 측정은 과학을 통해 가능하겠죠. (중략) ‘1시에 항암치료를 받을 다섯 살 아이에게 11시의 무용 수업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질문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사례는 성공의 전사가 아니라, 예술가들의 무모한 도전에 힘을 실어주고 독려하기 위한 것에 가까워요, 우리의 목적은 질병과 싸우거나, 치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나를 포함한 참여자들이 인간다움을 만끽하는 찰나의 순간을 통해, 현실을 버티는 힘을 얻기를 희망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춤을 통해서 말이죠.

저희가 하는 활동 <춤추는 나라의 앨리스>는 ‘테라피’가 아니며 증상 완화가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 환아들을 위한 ‘예술적 활동’입니다. 참여 아티스트는 치료사가 아니며 아이들이 꼬마 무용수로서 예술적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에 따라 프로그램 이름도 용감한 탐험가인 캐릭터의 이름(앨리스)을 인용하였어요. 따라서 무용 래퍼토리의 활용

이나 상상과 경험에 기반한 움직임 창작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중략)

저희가 아이들의 컨디션을 다 알 수 없으니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개입해 주시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지치셨더라구요. 24시간 아이와 붙어있으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Dance for PD 프로그램에서는 그것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어머니들께 커피 타임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이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구나 싶어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술의 역할이 지친 어머니들께 커피 타임을 보장하는 거라면, 그것도 예술의 확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표자: 제환정, 한국종합예술학교 무용원 객원교수)

2차 콜로키움 | 정신건강과 예술치유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본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 WHO에서는 건강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잘 지내는 혹은 ‘웰빙(Well-being)’한 상태로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이 ‘웰빙(Well-being)’을 사회 안에서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상태로 본다. 이러한 정신 건강을 설명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만이 정신이 건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주관적인 안녕감, 자기 효능감, 독립성 및 역량, 자기실현의 상태로 정리하기도 하고, 긍정심리학에서는 정신건강을 인생을 즐기고, 삶의 균형을 맞추며, 심리적인 회복탄력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삶의 궤적 안에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에 매우 흔하게 노출된다. 의학적으로 정상(이성적인 상태)과 질병 상태 사이에 아주 넓은 그레이존이 존재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상태라는 정상은 없을 것이고, 이 그레이존이 (현대인들에게는) 정상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공중보건에 따르면 1차 예방적 활동인 건강 증진 측면에서 바로 예술 활동이 자리한다.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내적인 경험에 집중하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발산하는 것에 예술 활동만큼 강력한 도구는 없다. 하루하루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동치는 부정적인 감정은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충분히, 그리고 성숙한 방식으로 대처가 되지 않는다.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내적인 경험과 감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고, 성취감과 흥미도 따라올 수 있다.

(발표자: 손지훈,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예술치유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교육가 혹은 예술가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하지? 나는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예술치료가 병리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치유든 치료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찾아오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예술치유가 일반적인 예술교육 또는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대상/주체에 대한 고민이 빠져서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안된다는 점이다. 예술치유는 먼저 사람을 만난 다음에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나 자신의 주 예술 활동만으로는 예술치유가 원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예술가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예술치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는 다른 문제이다. 결국 참여자의 욕구와 의도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자기 작업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행동과 반응을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모든 과정에 성찰적 반성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잘 이해할 것인가? 예술가, 예술교육자는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해와 적용의 간극을 좁히는 길은 집단적 특성에 대한 선이해 외에 개별적 만남에서 파악되는 내용들이 예술작업에 긴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과 교류하는 것이다.

치유의 이름을 달고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와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 사람들은 자신의 스트레스가, 고민이, 지루한 일상이 어떤 방식으로든 달라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예술이 갖는 치유적 속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활동 자체가 치유를 담보하지 않으며 예술가 개인이 다수의 사람들의 행동과 이야기를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예술가는 예술이 치유적이기 위해서 최소한 참여자들이 작업에 몰입하고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안내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이 경험이 현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을 익히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 좀 더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예술로의 진입에 대한 순간, 첫 인상을 가능한 순탄하고 편안한 과정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예술은 시민들에게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분야이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불편해한다. 이들에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작업하라’는 제안은 예술가의 무심한 제안이다. 긴장되고 불편한 상황에서 ‘편안하라’는 요구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하라’는 지시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유로움’과 ‘창조성’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제안인 것이다. 참여자들이 낯설음을 공감하는 것, 그리고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이를 완화해 주는 것 예술치유 프로그램

램을 진행하면서 예술가, 예술교육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결국 예술치유의 핵심은 예술가가 관계의 속성, 돌봄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상호간의 소통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에 있다. 참여자가 어떤 기대와 욕구를 가지고 치유사업에 참여하는지, 예술가는 어떤 과정과 활동을 가지고 치유대상자를 이끌게 될 것인지 서로 간의 생각과 감상이 진정하게 소통하고 공유됨으로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술가는 참여자들의 몰입을 도와주고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어떻게 몰입하고 예술 작업을 완성해 나가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다 보면 좋은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다.

(발표자: 박은선,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3차 콜로키움 | 공동체로 살아가기

왜 공동체는 치유적인가?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감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라져가는 마을 집단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동체 자체가 바로 치유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보이는 뚜렷한 특징이 바로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에 다수는 문화예술활동에 있다. 도봉구 은혜공동체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있어 뮤지컬 공연을 하기도 한다. 파주 공방 마을은 공동체를 형성한 경우가 아니라 마을에서 다양한 동아리가 생겨나 활기 넘치는 공동체를 만든 곳이다. 충남 보령 천북에 위치한 낙동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교회 목사님이 시작한 문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었고, 마을 어른들도 악기를 연주하는 예술가들로 거듭났다. 예술치유도 결과적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의 노력이 아닐까 한다.

(발표자: 조현, 한겨레신문 기자)

2000년 시작한 은혜공동체는 종교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공동체, 행복, 복지 키워드로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로 변모하여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관계가 좋아지면 안정감, 만족감, 행복함 등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도 커진다.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싶어진다. 이런 욕구들에 의해서 여러 예술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고 함께 축제들을 이어 나가게 되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궁극의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 모습일까?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가장 행복한 사회는 아프리카 원시 부족을 떠올리게 된다. 그들은 밥을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이끼리 복을 치고 놀았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들이 인생을 무엇으로 채웠느냐 묻는다면 당연히 노래와 춤, 즉 예술로 채웠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합창이었다. 합창을 하면서 다른 여러 장르의 활동들이 부차적으로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진행하면서 더 멋진 음악, 아름다운 춤 등 완성도 높은 예술 활동을 추구하게 되었다. 공동체에는 무엇을 하든 함께하면 좋다는 명제가 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매개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예술 활동은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더 할 나위 없는 좋은 매개가 된다. 예술 활동은 오랜 시간 함께 해야 성취감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체에서는 이런 점에서 최적의 환경이다. 좋은 관계를 맺으며 오랜 시간 예술 활동을 하면서 만족하고, 구성원들도 공동체 안에서 이를 수 없었던 꿈을 이루게 된다. 공동체 안에서의 예술 활동이 개인에 내면의 어려움과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치유적인 삶을 살게 한다.

(발표자: 박민수, 은혜공동체 대표)

4차 콜로키움 | 사회적 트라우마와 예술치유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리적으로 흔들렸을 때, 그 흔들린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 무언가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나 공간(혹은 그 대상이나 공간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노래 한 곡 일수도 있고 혹은 긴장되어 나도 모르게 굳어 있던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 보는 것과 같은 신체적 활동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가 떠올랐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자원입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중략) 자원을 발견하고 개발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중략) 트라우마 사건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이때까지 갖고 있던 자원으로는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원래 갖고 있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마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치유에 있어서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략) 예술을 통한 치유라고 하면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분명 예술을 통해 경험하는 카타르시스는 그 나름의 역할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치유에서 자원 개발과 안정화 작업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을 때,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술이 자원으로서 품고 있는 힘과 가능성입니다. (중략) 때로 열 마디 조언이나 분석보다 생존자가 오감을 통해 신체적으로 무언가 긍정적인 느낌에 접촉해 보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발표자: 권승희, 상담심리학 박사)

“예술가로서 시민으로서의 연대를 표현하고 싶었다는 말씀이 와 닿아요. 한 인간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사실은 예술이 할 수 있는 광경

히 아름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성’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 대다수의 우리 국민, 집단적인 우울이나 상처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답변) 공연예술 매체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한 것이라 ...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체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이나 글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에필로그

“치유 대상자를 예술가와 동등하게 바라보고 ‘관계에 집중’하면서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예술 작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태도’에 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요. 당사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고자 하는 태도가 예술치유에서 중한 부분인 것 같아요.”

“치유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가 자기 자신을 재인식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좋은 예술적 경험안에는 공간, 연대, 치유, 감성 등 치유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계와 소유권에 대한 긴장보다 경계의 탐험자로서 갖는 느슨한 예술가의 정체성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이 자발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대학이나 감호기관에 소속되어 치유 프로그램에 마주하는 경우, 사회적으로는 치유일 수 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치유’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예술가 역시 과정의 동반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활동의 목적성이 모호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예술적 경험 안에 교육과 치유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보니 예술가 자신도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처럼 회색지대가 넓은 경우, 자발성에 대한 이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울예술치유허브에서 기관으로 치유예술가들을 파견하는 ‘사회적 예술치유랩’ 같은 경우 예술치유에 참여할 기관을 접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예술치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요.”

“(예술가 중에서) 치유를 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술 작업의 확장 인데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치유 작업이 되었던 사례였죠. 일상적, 일시적으로 누구나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수월한 서울예술치유허브가 되면 좋겠다.”



참여자, 치료사, 환경의 관계와 몰입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 예술적인 감흥으로 반응하는 미술(예술)치료

Respond는 자극이 들어와서 내적인 감성의 일렁거림을 일으키고, 이것이 예술과 같이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말해요 (중략)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흐름에서 우리는 모두 깊은 치유를 경험하게 되요

Dance for the PD
모두는 '환자가 아니다.
무용수입니다'입니다. 수업의 목표는 "혁신, 창조성, 예술성, 협업, 포용, 공동체, 상호존중, 즐거움"이고요

"힐링이라는 원어를 따져보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회복-재생한다. (중략) 예술은 인류의 본성(중략) 그런데 인간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뜻"

창조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예술의 역할이 지친 어머니들께 카피 타임을 보장하는 거라면, 그것도 예술의 확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 6 서울예술치유 프로그램 진행 사례(©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간의 사업 진행과 특징

문화예술치유 사업 방향 및 특징

유네스코 총회 서울 아젠다(2011)*는 예술교육의 발전 목표를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 문화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사회, 문화적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예술교육의 역할을 인식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예술교육 발전의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치유 사업 목표는 예술을 통한 자존감 회복과 자기 표현 능력의 향상으로 개인과 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고 특히,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으로 경미한 심리적 타격을 입거나 정신과 치료 후 심리재활 및 회복 과정이 필요한 대상의 회복을 중심으로 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15년부터 진행한 문화예술치유 시범 사업 운영 내용은 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재난사고와 범죄 피해자 중 경미, 재활 단계의 대상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상담, 심리적 활동 기반의 미술, 음악, 연극, 무용의 예술적 기법 적용과 소규모 그룹 프로그램 지원 등이며, 58개의 시설(국군병원, 안산 정신 건강 트라우마 센터, 도박문제관리센터, 소년원학교, 보호시설, 경찰서, wee스쿨)에서 77개 프로그램을 통해 661명 수혜자가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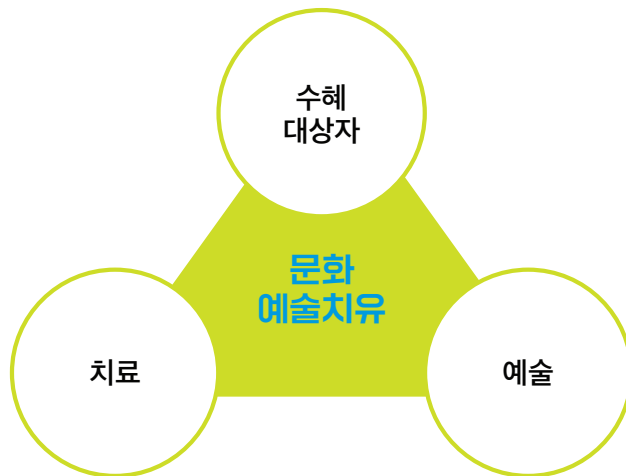


그림 7 문화예술치유 사업의 목표 및 구조

* 2011년 11월 4일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의 「서울 아젠다 : 예술교육 발전목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계 공통의 문화예술교육 목표를 추구하며 전 세계 193개국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진행하면서 예술을 매개로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 <마치, 봄처럼>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2018년도에는 대상을 복합 외상 피해자로 특화하였고, 2019년에는 치매예방형으로 치매환자에 특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예술치료사 등 415명의 참여인력이 120개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범죄 사건 발생지역 거주민, 군대 부적응 병사,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참여자 1,320명에게 심리 및 정서적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시기를 제외하고 2020년에도 비대면 프로그램 <마음치유 라디오 봄봄봄>을 운영하여 코로나 시대에 현장 예술치료사를 중심으로 한 운영을 대상으로 한 치유 사업을 진행하였다. 2022년에는 <어디서든 예술치유-치유로 예술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을 기존 사업에서 보편화하여 취준생,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청년, 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지도 공공공간과 공원,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화하여 운영하였다.

문화예술 치유에 대한 필요가 사회적으로 높아지면서 치유의 대상을 장기투병 환자, 장애인, 노약자와 같은 대상군에서 점차 확대하여 사회문제 갈등으로 인한 피해자로 대상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치유 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건강 관리 목적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시민과 같이 지역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직군 및 직종별로 차별화한 예술 치유프로그램, 복지적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외상 피해자 환자와 같이 전문 치료를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치유 지원사업

**2015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5년 <마치, 봄처럼>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여 2017년까지 심리 치유로 접근하여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를 국군병원, 소년원학교, 게임힐링 센터 등 기관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재난사고·범죄 피해자 중 경미, 재활단계의 대상자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의 행태는 협력부처와 지원(대상) 사업, 운영단체가 구조이며, 운영단체는 총 8곳으로 미술(대한임상미술협회, 서울여대 산학협력단), 연극(공원예술치료협회, 한국연극치료협회), 음악(한국음악치료협회, 희망예술기지), 무용(한국댄스테라피협회, 대한무용/동작심리치료협회)로 주요 치유 관련 단체와 기관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은 상담·심리적 활동 기반의 미술, 음악, 무용의 예술적 기법을 적용한 소규모 그룹의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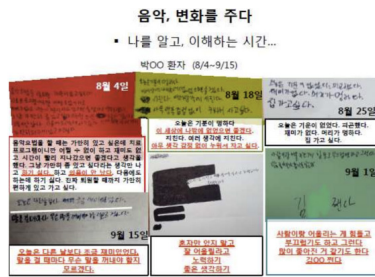


그림 9 음악을 통해 나를 알아보는 음악 심리치료 프로그램 활동



그림 10 2015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표 2 프로그램 내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협력부처	지원(대상)시설	해당시설	프로그램 수	수혜 인원
1 국방부	국군병원	군대부적응 병사	11	15
2 보건복지부	안산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세월호 참사 관련아동 청소년 관계증사자	1	5
3 사형산업통합 감독위원회	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중독자	4	5
4 법무부	소년원학교	학교 부적응 학생	8	9
5 여성가족부	보호시설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	13	13
6 경찰청	경찰서	가정폭력·범죄사건 발생지역 거주 주민	7	10
7 교육부	Wee스쿨(학교형태) Wee스쿨(가정형)	학교폭력 파가해학생	14	29

2017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마음 치유, 봄처럼>

2017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은 2015년 시범 운영과 동일한 운영 체계지만 이보다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자, 운영단체, 예산 등을 지원 확대하였다. 2017년에는 <마음 치유, 봄처럼> 정식 명칭으로 등장하였으며,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운영단체는 총 22개 단체로 확대되었다. 2017년 치유 대상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범죄 피해자 등 경미, 재활 단계의 대상에 특화하였으며, 2015년 사업과 동일하게 미술, 음악, 연극, 무용, 통합의 예술적 기법을 적용한 프로그램 활동으로 기획하였다. 또한, 예술적, 상담·심리, 임상·치료적 요소 중 예술성이 강조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예술적인 창의성을 개입해 치유 대상자가 대상자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미술치유, 무용치유, 음악치유 등이며 참여자들이 예술적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그림 11 예술치유 <그려봄 바라봄> 창작 활동



그림 12 그려봄 바라봄 활동 공유

표 3 프로그램 내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협력부처	지원(대상)시설	지원대상	해당 시설	프로그램 수	수혜 인원
1 경찰청	문화파출소및 경찰서, 치안센터	가정폭력, 범죄사건 발생지역 거주 주민	19	19	156
2 국방부	국군병원 등	군대부적응 병사	11	14	100
3 교육부	Wee 프로젝트 관련 시설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17	17	257
4 법무부	소년원학교	학교 부적응 학생	10	17	190
5 사행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도박 중독자 및 가족	6	6	70
6 여성가족부	보호시설	성·가정폭력 피해자	12	13	117
7 게임문화재단	게임과몰입힐링센터	게임과몰입대상	2	2	29

2019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2019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난치병 환장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사업의 목적을 범죄사건 발생 지역 거주민, 군대 부적응 병사,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참여자가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특히 2019년 사업부터는 기획형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였으며, 암환자 가족, 고객 대면 영역, 미혼모자 등 지원 사각지대의 신규 치유 대상자를 발굴하였다.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현황(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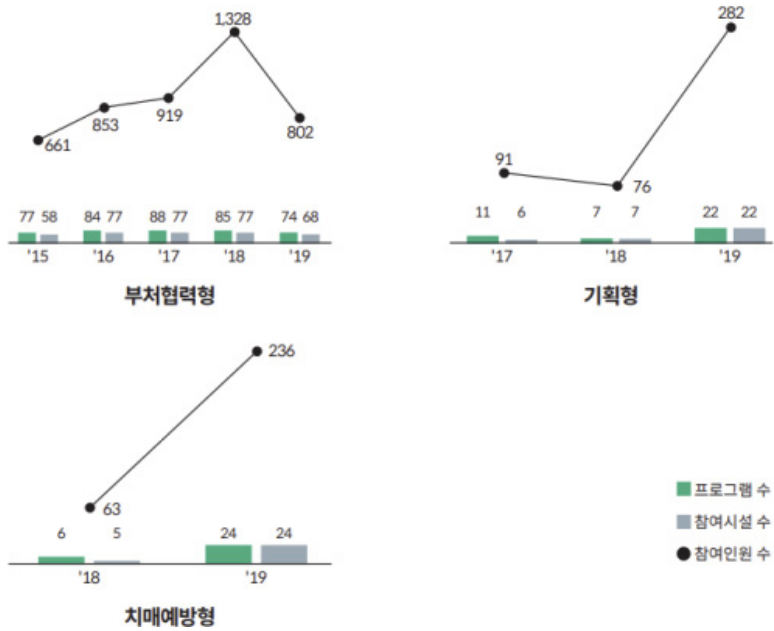


그림 13 2015년~2019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현황(한국문화예술교육위원회 연차보고서, 2019)

표 4 프로그램 내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협력부처	지원(대상)시설	지원대상	해당 시설	프로그램 수	수혜 인원
1 경찰청	경찰서 및 치안센터, 문화파출소	각종 범죄사건 발생 지역 주민	10	10	36
2 교육부	Wee프로젝트 관련시설	학교폭력 피해자학생	24	24	67
3 국방부	국군병원 등	군대부적응 병사	12	14	42
4 법무부	소년원학교	학교 부적응 학생	10	14	47
5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중독자 및 가족	3	3	12
6 여성가족부	보호시설	성·가정폭력 피해자	9	9	39
7 기획형	지원 사각지대 대상 (감정노동자, 난치병 환자/가족, 미혼모자, 가정밖아동등)	22	22	106	29

2020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2020년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각종 범죄사건 발생지역 거주 주민, 군대 부적응 병사, 학교 부적응 학생, 도박중독자 및 가족 등으로 설정하였고 부처기관 개, 시설 122개, 지원 1,272명, 참여인력 409명이 참여하였다. 2020년도에는 특히 주요 프로그램 유형으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마음치유 라디오 봄봄봄>을 운영하였다. 총 6회차의 비대면 오디오 콘텐츠 송출로 코로나로 인한 현장 예술치료사 및 운영단체 간의 예술치유 사례, 경험이나 고충 등을 공유하였다. 치유의 대상군을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치료사 및 운영단체로 하여 치유 대상에 대한 색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표 5 프로그램 내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0))

구분	협력부처	지원(대상)시설	지원대상	해당 시설	프로그램 수	수혜 인원
부처 기관 협력	경찰청	경찰서 및 치안센터, 문화파출소	각종 범죄사건 발생 지역 거주 주민	9	9	65
	교육부	Wee프로젝트 관련 시설	학교 폭력 피해 학생	23	23	312
	국방부	국군병원 등	군대부적응 병사	9	9	30
	법무부	소년원학교	학교 부적응 학생	10	11	48
	시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 관리 센터	도박중독자 및 가족	3	3	17
	여성가족부	보호시설	성 가정폭력 피해자	8	8	32
기획	운영단체의 대상/시설 섭외 *대상유형: 난치병환자 가족, 감정 노동자, 자율제안	병원, 연합회 등 고객대면, 사람들봄등 관련시설 위안부 피해자 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일반단체/기업 지역지활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난치병환자 가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가정폭력피해자(경미단계), 한부모 가정아동, 부모 장애아동 부모, 정신장애인스트릿댄서, 보험설계사, 경력단절 후 재취업 여성 자율사업 참여 주민, 공익활동가	30	30	136
치매 예방	문화기반 시설-치매 안심센터 협력	문화기반시설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 위험이 있는 노인 및 가족	30	30	490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2021년도 문화예술치유사업 <찾아가는 예술처방전>은 학교 가정폭력, 범죄 사건 등으로 인해 심리적 상처를 지닌 대상층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치유 및 심리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프로그램 효과 및 분석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1년에 시행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찾아가는 예술처방전>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을 겪고 있는 전국민들 대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총 문화예술전문인력과 함께 전국 9개 시, 도 20여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20개 시설, 16개 프로그램, 5개 키트, 운영단체는 114개, 수혜자수 2,144명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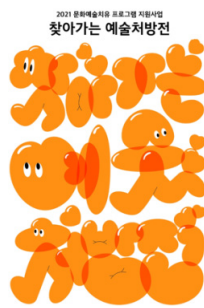


그림 15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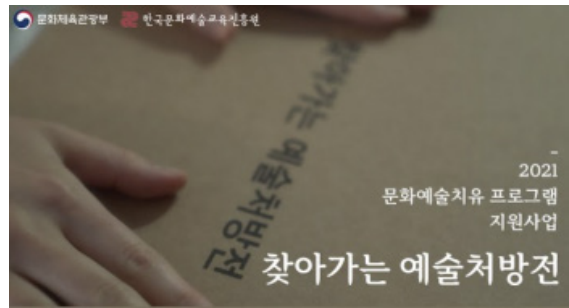


그림 14 2021년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표 6 프로그램 내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0))

구분	협력부처	지원(대상)시설	지원대상	해당 시설	프로그램 수	수혜 인원
	경찰청	경찰서 및 치안센터, 문화파출소	각종 범죄사건 발생 지역 거주 주민	10	10	188
부처 기관 협력	교육부	Wee프로젝트 관련 시설	학교 폭력 피·가해 학생	20	20	356
	국방부	국군병원 등	군대부적응병사	11	11	398
	법무부	소년원학교	학교부적응 학생	9	9	127
	여성가족부	보호시설	성 가정폭력 피해자	7	7	83
치매 예방	문화기반시설-치매안심센터 협력	문화기반시설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 위험이 있는 노인 및 가족	26	26	282
예술 처방전	예술치유팀-정신건강복지센터협력	정신건강복지센터	우울감 경험자	20	16/5	144/2,144

2022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어디서든 예술치유-치유로 예술로>

2022년도에는 <어디서든 예술치유-치유로 예술로> 사업으로 치유가 필요한 일반 대상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예술가와 함께 전국 곳곳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통해서 대상을 보편화 하였다. <어디서든 예술로-치유로 예술로>는 우울증, 상실감 등 일상적 치유가 필요한 국민 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디서든 예술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대상은 취준생, 사회 초년생과 같은 청년과 임산부, 미혼모, 경력 단절 여성의 여성 대상군과 범죄 피해자 가족의 가족을 대상으로 특화하였다. <어디서든 예술치유-치유로 예술로> 문화예술치유사업은 33 명의 예술가와 함께 기획하여 장소 기반으로 총 13개 시·도 39개 지역의 공공공간에 해당하는 치유의 숲, 복합문화공간과 광장(전국 가평, 양평, 울산, 정선)에서 실행되었으며, 총 4,950 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



그림 17 <어디서든 예술치유-치유로 예술로>



그림 16 <어디서든 예술치유-치유로 예술로> 프로그램 소개



그림 18 2022년 <어디서든 예술치유-치유로 예술로> 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분야

2022년 <어디서든 예술치유-치유로 예술로> 문화예술치유 사업은 자연과 호흡하며 자연을 통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대상 특화 <예술치유 워크숍>과 <예술치유 놀이터>로 진행하였다. <예술치유 워크숍>은 대상 특화로 1박 2일 가족 힐링 캠프 프로그램은 울산 국립 대운산 치유의 숲과 양평 신음 자연휴양림을 장소 기반으로 하여 범죄피해자 가족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예술치유 워크숍>은 다양한 산림치유 인자에 오감을 집중하여 미술 활동을 진행하면서 외상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관계 회복과 참여자가 안정감을 되찾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예술치유 놀이터>는 체험형과 소통형으로 나누어 실행하였으며, 체험형은 주요 도심에서 설치된 구조물과 스토리텔러의 이야기가 담긴 스마트폰 웹페이지를 참여자가 스스로 연계 및 체험하여 고민과 걱정을 털어놓고 감정을 해소해 볼 수 있는 대국민 대상의 거점 순화형이고 소통형은 다양한 분야(음악, 국악, 문학, 무용, 미술)의 예술가와 함께 깊이 있게 소통하며 예술을 통한 위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9 1박2일 가족 힐링캠프



그림 20 문화예술치유 놀이터



그림 21 칠드런 아티스트 한예를 <컬러 테라피> 프로그램



그림 22 김이박 식물치료사&설치미술가 <당신과 나의 정원> 프로그램

3

도시숲 정의와 유형화 사업 대상지 도출

도시숲(Urban Forest) 정의

도시숲 용어가 포함하는 숲의 개념적 범위는 다양하다. 도시숲의 기능과 범위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도시 내 위치한 가로수 한 그루, 도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산림을 포함할 수 있다.

법률적 도시숲의 정의 01 | '산림자원'으로서의 도시숲

도시림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의 법률에 등장한 시기는 2006년 산림법이 각종 개별 법률로 분화되면서 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이다.

「산림자원법」이 제정·시행 되면서 도시림의 정의 및 범위가 법률에 포함되었으나, 개념적인 정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공간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규정하고 공원구역 및 군의 면지역은 제외)

표 7 2021년 시행될 「도시숲법」상의
우리나라 도시숲 정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 6. 10 시행(2020. 6. 9. 제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증진 및 정서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 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면지역 제외 규정 삭제)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주변에 조성·관리 하는 산림 및 수목
 -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다. 학교숲: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 하는 수목을 말한다.

법률적 도시숲의 정의 02 | '공원'으로서의 도시숲

도시숲이라 함은 도시 내에 존재하는 숲(초본+목본)이라는 기본적인 정의에 근거하여 도시 내 공원에 존재하는 산림과 수목을 포함한다. 따라서 모든 녹지는 자연스레 도시림에 포함되기 때문에, 「산림자원법」에서 도시림을 정의할 때부터 도시공원은 반드시 도시숲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편입되어 통계 산출하기 시작하였다.

표 8 「공원녹지법」상의 우리나라
공원녹지 정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5. 10. 1 시행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 관리하는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주제공원: 생활권 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법률적 도시숲의 정의 02 | 도시숲 유사공간으로서 '정원' 및 '수목원'

한국에서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하고,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포함)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표 9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정원과 수목원(식물원)의 구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23. 7. 25 시행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 국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②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 (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에 따른 도시숲 분류

법률상 도시숲의 정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은 생활권 도시숲과 비생활권 도시숲으로 구분하며, 생활권 도시숲은 가로수 등 도로변녹지, 하천변 녹지, 국공유지 녹화지, 학교숲, 담장녹화, 옥상녹화, 벽면녹화, 기타 등을 포함하고, 비생활권 도시숲은 산림,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이 해당한다. 「수목원 및 정원」 관련 법률에 따른 도시숲은 수목원, 식물원, 국가정원, 지방정원, 공동체정원, 민간정원, 주제정원으로 구분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은 도시공원, 녹지, 기타로 구분하며 크게 생활권 도시숲과 비생활권 도시숲이 구분한다.

표 10 관련 법률에 따른 도시숲분류

관련법률	도시숲 분류	생활권 분류	소관부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	비생활권	산림청
	자연휴양림 등 (도시지역 내의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하천변 녹지 (「하천법」에 따라 하천주변에 식재된 교목 및 관목)	생활권	
	학교숲 (학교 내 숲을 조성하거나 담장을 허물고 녹화한 면적)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 (보도, 중앙분리대 등 수목식재, 고속국도 제외)		
기타 (옥상녹화, 벽면녹화, 청사 등 수목집단지역)			
「수목원·정원법」	수목원/식물원 국가정원/지방정원/공동체정원/민간정원/ 주제정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	생활권 (묘지, 공공공지, 저수지는 제외)	국도 교통부
	도시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생활권공원 및 역사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기타공원으로 조성된 주제공원의 녹지면적)		
	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조성된 면적)		
	유원지, 공공공지, 저수지		

연구에서 제안하는 도시숲 장소성 도출

이번 과업에서는 법률적 정의와 분류에 따른 도시숲의 기준들을 수용하되 예술치유 프로그램 모델의 확산성과 대중화를 고려해볼 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로 도시숲을 규정하고 해석하여 유형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상에서 가깝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숲 유형으로 도출될 수 있는 ‘숲 정원·공원’을 기준으로 다양한 장소들을 발굴하였다.

숲	식물원/정원	공원	기타 녹지
비 생활권 도시숲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둘레길 국립/도립/군립 공원 산악형	생활권 도시숲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 하천변 녹지 국·공유지 녹화지 학교숲 담장, 옥상, 벽면녹화 기타 (아파트 단지조경, 관공서 녹화사업 등) 해상·해안형 사적형	도시공원 생활권 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주제 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등)	원종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 분류

그림 23 도시숲 유형화 및 대상지 선정

산림청이 발굴한 경관이 아름답고 생태적가치가 우수한 국유림 또는 기존 운영하는 휴양 및 치유숲 가운데 도출하였다. 휴양·복지형, 보전·연구형, 치유의 숲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그림 24 도시숲 사업 유형_숲

표 11 휴양·복지형

명칭	위치	특징
인제 자작나무숲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75-22	자연 생태숲.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1974년부터 1995년까지 자작나무 690,000본을 조림하여 조성
검마산 금강산 숲	경북 영양군 수비면 검마산길 191	수려한 산세와 계곡의 맑은 물로 유명, 과거 선비들의 학문 수행지로 이용
양평 잣나무숲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잣나무숲	생장이 우수한 잣나무 군락이 분포
신불산 억새숲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억새평원으로 영축산으로 이어지는 능선 주변으로 소나무, 신갈나무, 물오리나무 등의 산림 경관
계룡산 편백숲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산100번지 외 필지	경관과 생태 가치가 뛰어난 편백나무숲
천관산 동백숲	전남 장흥군 관산읍 부평리 산109-1	동백나무 단일 수종으로 천연 숲을 이룸

표 12 치유의 숲 유형

명칭	위치	특징
국립대관령 치유의 숲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 2-31	금강소나무, 피나무, 계수나무 등의 수종 과 다양한 동물군이 서식
장성 치유의 숲	전남 장성군 서삼면 대덕리 735-1	편백나무숲을 따라 자연 그대로의 산책로와 탐방로가 있으며 고산의 희귀식물 분포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 숲	경기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산 39	지동산촌생태마을 아래 위치하여 있고 울창한 잣나무와 계곡이 어우러진 경관
힐리언스 치유의 숲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7	산리청 선정 국내 민영 1호 치유의 숲
백운산 치유의 숲	전남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980-1	식물생태숲 면적인 63ha로 자생식물 보존과 자원 연구 기능에 특화된 치유의 숲
국립산음 치유의 숲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산 124	양평에 위치하여 그늘진 숲길을 따라 치유의 숲 조성, 반려견 동반 이용할 수 있는 숲 시설
무수동 치유의 숲	대전 중구 무수동 188	보문산 남서쪽에 자리한 산림치유 공간
삼척활기 치유의 숲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 34	치유의 특화된 산림으로 치유센터가 위치하여 다양한 특화된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
서귀포 치유의 숲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산 4	노고록, 가명오명, 가베뜨롱 등 제주도 방언으로 이름 지어진 11개의 숲길이 있는 곳

명칭	위치	특징
사려니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호지역 선정된 숲으로 산림자원의 가치가 높음
점봉산 곰배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15	백두대간에 자생하는 물푸레나무 군락지 등 생태 경관적 가치가 높아 자연 생태의 박물관으로 불림
DMZ 편치불 숲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 621-1	해발 1,100m 이상의 산으로 둘러싸인 해안분지로 강원도 민통선(DMZ) 마을에 위치
속리산 말티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산 19-6	장재 저수지와 자연휴양림이 위치하여 침엽수와 활엽수가 조화로운 자연휴양림이 어우러져 있는 곳
함백산 하늘숲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 1-35	만항재 주변에 위치하여 하늘과 맞닿은 숲과 숲길에 위치
계룡산 운도령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 254-1	백두대간 금남정맥 끝부분에 있는 생태거점
적보산 씨앗숲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리기테다 소나무, 낙엽송 등 신품종 심사 등을 위한 재배시험포지와 우수종자를 생산, 공급하는 채종원이 위치. 옛길을 따라 한양과 동래를 잇던 길을 걸을 수 있음.
울릉도 성인봉과 나리봉	성인봉: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산 35 나리봉: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리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지형으로 생태계 보존이 필요한 지역
두타산 무릉계곡 숲	강원도 동해시 삼화로 455	느린나무, 피나무 등 휘귀식물이 재상, 벚바위 등 기암괴석과 노송이 어우러진 곳



그림 25 인제 자작나무숲 겨울 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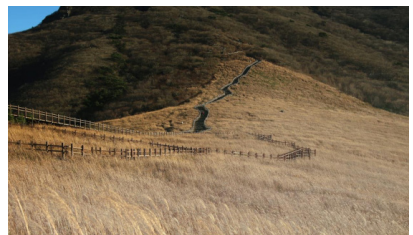


그림 26 산불산 억새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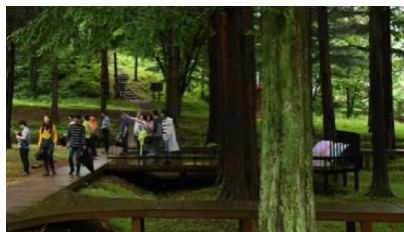


그림 27 적보산 씨앗숲 숲길



그림 28 함백산 하늘숲

도시숲 장소 유형화 02

정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정원누리집에 등록된 정원사업들 기준으로 도출하였으며, 수목원, 국가정원·지방정원, 민간정원, 생활정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29 도시숲 사업 유형. 정원

표 14 수목원

명칭	위치	특징
국립수목원	경기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산 50-18	광릉시험림의 천연림을 이용하여 수목원 조성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485	경상북도의 아시아 최대 규모 수목원으로 가치 높은 식물자원 보유
국립세종수목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14-480	국내 최대 규모 사계절 온실과 온대중부권 역 북꽃을 모티브로 디자인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405-2	자생식물 4,500여 종 중 1,500종을 수입하여 연구하는 최초 및 최대 자생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 구로구 향동 81-1	습지를 중심으로 하여 수변 동식물 자연생태 관찰
석모도수목원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 133-2	숲과 바다로 이루어진 강화도 석모도에 위치
안면도수목원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1-1	374종의 화목류, 단풍류 등을 식재하였으며, 안면도 자연휴양림 주변에 위치
황매산수목원	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219-3	황매산에 서식하는 2천여 종의 야생화와 동식물 보호 및 관리, 종이비행기 전망대 조성
완도수목원	전남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 109-1	산과 바다로 어우러진 국내 유일 난대수목원
화성시우리꽃수목원	경기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179-34	1,299종의 수목자원 보유
제이드가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412	화훼류 위주로 하여 계곡이 우거진 산림 그대로 멋을 살린 자원
천리포수목원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868	해양성 기후조건 맞는 동식물 분포,
화담숲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산 33	LG 상록재단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목원으로
평강식물원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산 155	아시아 최대 규모인 규모 6천 암석원, 40개 연못 등이 조성
사유원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430-6	승효상 건축가가 풀어낸 사유원은 여러 정원과 30여 점 건축물 조성,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진행

표 15 생활정원

명칭	위치	특징
평택역(깊은숲)	경기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서부광장을 그늘을 느낄 수 있는 정원으로 팀퍼리가든 이주는 정원작가 설계
용인중앙시장 (용인구름정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3	용인중시장에 위치하여
송도 완충녹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9-31	송도 주택단지 내 완충녹지대 조성
한밭도서관	대전 중구 문화동 145-3	한밭도서관에 위치한 정원
전주 첫마중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전주 첫마중은 약 670m 구간을 선형정원으로 조성
세종 충남대 병원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407	세종 충남대 병원에 조성한 조경

표 16 국가정원·지방정원

명칭	위치	특징
순천만국가정원	전남 순천시 오천동 600	세계 5대 연안습지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 제 1호 국가정원
태화강국가정원	울산 중구 태화동 107	십리대숲 대나무 정원, 수생정원, 계절정원 등 태화강을 따라 위치
세미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30-6	우리나라 대표 수변생태공원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경계에 위치
죽녹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산 44	담양군 성인산 일대에 죽림 조성하여 대나무숲 식재
거창창포원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86-1	100만 본 이상의 꽃창포 군락
영월동서강정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865-8	영월저수지 일대에 조성
정읍구철초정원	전라북도 정읍시산내면매죽리 57번지	가을야생화인 구절초정원을 조성한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
경북천년숲정원	경북 경주시 남산동 737-3	메타세콰이어나무를 따라 조성된 습지원, 산림자원 보호와 연구목적으로 친환경 숲 공간

표 17 민간정원

명칭	위치	특징
아름다운정원 화수목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 211-1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된 민간정원
생각하는정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529-7	한경면 저지리의 황무지를 개척하여 1만 7,800평의 대지에 7개 소정원으로 구성
섬이정원	경남 남해군 남면 평산리 888-4	남해에 조성한 다양한 초본과 역사로 연출한 유럽식 정원
토피아랜드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588-1	500평의 선산에 주목나무, 동백나무 등 식재
쌍산재	전남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632	조선 후기 민가 정원 동백, 사철나무 등 우리나라 전통 정원
물빛소리정원	경남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산 218-1	민간에서 조성
무등산바위정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287-9	무등산 자락 바위로 만든 정원
베케정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효동 1137-1	제주도의 생태적 특성을 기반으로 조성한 자연주의 정원으로 가든 카페와 함께 정원이 사진 촬영 명소로 유명
힐링파크 쑥섬쑥섬	전남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 789	작은섬 쑥섬을 존속 및 발전시키고 난대원시림 위치
괴산트리하우스가든	충북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산 12	카페와 치유정원 겸 농촌문화 체험농장



그림 30 사유원



그림 32 황매산수목원 종이비행기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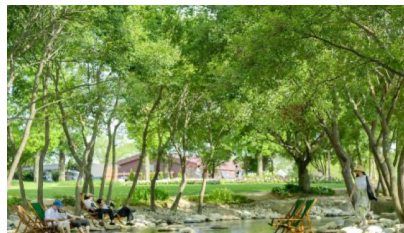


그림 31 순천만국가정원 여름정원



그림 33 힐링파크 쑥섬쑥섬

도시숲 장소 유형화 03

공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원 유형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국관광100선 최종선정지 중에서 선별하였으며,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역사, 문화, 수변 중), 자연공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34 도시숲 사업 유형.공원

표 18 생활권공원

명칭	위치	특징
서울숲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78-1	숲속 호수와 한강, 중랑천이 어우러지는 대표 대형도시공원
서울식물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727-256	보타닉 파크로 주변과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정원 가꾸기 관련 프로그램 운영
서서울호수공원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9-20	신월 정수장을 재생한 생태공원으로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열린 텃밭, 몬드라인 정원, 100인의 식탁 등 조성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 광진구 능동 18	1975년 가족 테마파크로 조성하였고 놀이동산, 동물원, 상상 나라, 어린이정원 등 조성
마로니에공원	서울 종로구 동숭동 1-124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하여 야외무대와 음악 콘서트, 무용, 연극 등이 열림
인천대공원	인천 남동구 장수동 753	인천 도심에 조성된 대단지 자연녹지공원으로 대공원 호수, 등산코스 위치
세종호수공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201	32만 2,800㎡로 축구장 62개 정도 크기의 호수 대형공원

표 19 주제공원

명칭	위치	특징
서소문 역사공원	서울 중구 의주로2가16-4	순교자 현양탑이 있으며 수많은 천주교인이 처형당한 역사 유적지, 지하에 박물관이 위치
동대문역사공원	서울 중구 을지로7가 2-1	옛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공원을 구축, 지하 하이드가 설계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위치
철원역사문화공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366-1	옛 철원 시가지를 축소판으로 재현하여 근대 문화거리와 역사 체험관이 위치
수원화성장안공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49-86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수원 화성을 품고 있는 도심 속 공원
부산시민공원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11	주한미군 부산기지 캠프 하야리아를 도시공원으로 조성
제주 돌문화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19	제주도의 돌 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이자 생태공원
한탄강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경기 포천시 영북면 대화산리 298	지질학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최초 강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시흥갯골생태공원	경기 시흥시 장곡동 724-32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벌과 옛 염전과 염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도심공원
소래습지공원	인천 남동구 논현동 1-55	1970년대 천연염 생산지였던 소래 염전 자리에 개장한 생태공원
창녕우포늪 단감공원	경남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89-3	청정지역인 우포늪이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자연 생태환경이 잘 보존
민락수변공원	부산 수영구 민락동 110	국내 최초의 수변공원으로 해운대와 광안리 중간 지점에 위치, 대표적인 소풍 장소

명칭	위치	특징
북한산국립공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산1-1	도시 속에 있는 자연공원으로 둘레길 탐방 코스로 이루어짐
계룡산국립공원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18	대전 도심과 가깝게 위치하여 능선이 마치 닭벼슬을 쓴 용의 모습을 닮았다고 이름 붙여짐
무등산국립공원	광주 북구 금곡동 산1-3	정상 부근의 시석대와 입석대 등 주상절리 독특한 경관
경주국립공원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우리나라 유일의 사적형 정원으로 8개 자연생태와 문화유산 지구를 국립공원으로 지정



그림 35 서울어린이대공원 어린이정원



그림 36 시흥갯골생태공원



그림 37 서서울호수공원

도시숲 + 예술치유, 새로운 결합을 위한 사례 연구

치유 트렌드

숲치유

정원치유

예술치유

1

치유 관련 트렌드 '자연에서, 숲과 함께'

최근 들어 스트레스 심화, 환경성 질환의 증가, 휴식과 안정,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회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도시민들은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단순 휴양을 넘어서 적극적인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치유를 원하는 수요가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박순현, 2018). 또한 기후위기에 점점 취약해지는 도시 환경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시숲인 자연을 조성하고 가꾸어 나감으로써 삶에서 생활권에서의 자연 처방으로서 도시숲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울산방송은 '우리는 도시숲으로 간다'를 지난 10월 방영하여 울산숲의 생태환경적 가치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속 가능한 숲의 해법에 대해 다루었다.* 치유 프로그램은 도심 속 자연을 기반으로 미술관 및 박물관 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시설 및 기관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하고 한솔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시립 박물관인 뮤지엄 산은 자연에 둘러싸인 공간으로 도시에 느낄 수 없는 정신적인 명상, 휴식을 제안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명상과 음악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힐링명상>, 숲의 소리를 통해 편안한 휴식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리조트 앤 웰니스로 특화된 리조트인 파크로쉬는 현대인이 도시에서 누리기 어려운 숲과 웰빙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로 체험형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하여 소리와 그림을 융합한 명상, 호흡명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한 치유나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넘어서 예술가와 협업 및 기획하여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있다. 정선 파크로쉬에서는 소리와 그림을 융합한 명상의 경우 명상 음악가 정수지와 최알 작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과 접목한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웰에이징 힐링 리조트 공간으로 특화된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힐리언스 선마을은 국내 최초로 웰에이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마음습관 개선, 운동습관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숲테라피의 숲 치유 명상과 아로마 힐링 명상 등을 통해 숲에서 느낄 수 있는 치유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그림 38 정선 파크로쉬 힐링과 명상 프로그램



그림 39 힐리언스 선마을 숲치유 프로그램

* ubs 울산방송, 보도특집
'우리는 도시숲으로 간다'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AKR20231006072700057>

국내에서는 자연치유와 관련하여 산림치유, 치유농업 등이 법제화를 통하여 국가 차원에서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산림청에서 2010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치유의 숲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치유의 숲 조성 및 산림 체험을 통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치유를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을 높이고 증진 시키는 활동(제2조 4항)”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산림청이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 발표를 통하여 정원치유 지원을 통한 생활 속 면역력 증진을 4개 전략 13개 중점과제로 포함하면서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치유농업 부분에서는 원예치료, 도시 농업의 측면에서 제도화를 통해 치유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치유 농업법(제1장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원예치료와 정원치유의 경우는 산림치유와 치유농업과는 다르게 식물과 정원의 환경적, 공익적 기능이 주목받으면서 관련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원치유는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의 13대 중점과제로 선정되면서 정원치유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등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원치유는 수목정원법에서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 시키는 활동”으로 정원치유를 정의하고 있다. 미국원예치료협회(AHTA, American Horticultural Therapy Association)에서 원예치료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인 상태의 향상을 위하여 식물과 정원 가꾸기 활동을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 내리고 있으며 원예치료와 정원치유는 식물을 매개로 한 일련의 정원 가꾸기 활동이 주는 지속 가능한 치유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치유 농업	산림 치유	원예 치료(치유)	정원치유
법적의미	법적의미	법적의미	법적의미
치유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 농업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휴양법)	미국원예치료협회(AHTA, American Horticultural Therapy Association)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수목원정원법)
제1장 제2조(정의)	제1장 제2조(정의)	제1장 제2조(정의)	제1장 제2조(정의)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 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인 상태의 향상을 위하여 식물과 정원 가꾸기 활동을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	7.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KHTA, Korean Horticultural Therapy Association)	제1장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②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전인적인 활동”	6. 주제정원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그림 40 국내 유사 도시숲 기반 치유 프로그램 검토 및 제도화 사례

산림청 정원치유 사업 <사회적 약자 가드닝>

대표적인 산림청의 정원치유 사업 「사회적약자 가드닝」은 2021년 정원, 식물원, 수목원 등의 기반을 활용한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사회적 질병 치유 및 건강한 삶을 회복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사회적약자가드닝」은 발달장애인, 독거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운영 중인 정원·수목원을 활용하여 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과 관계 형성 도모와 녹지공간의 체계적 관리·보전으로 경관개선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성별·연령·장애 등에 차별받지 않고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원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행하였다.

연간 11개소(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로 선정)를 선정하였고 참여기관으로 나사렛대학교, 신구대학교 식물원, 한택식물원 등이 포함된다(표11). 사회적약자 가드닝 프로그램에 총 643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사업 대상자로 환자, 돌봄가족 및 암생존자에 해당하는 주부양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치유프로그램의 주요한 대상자였던 환자군이 아닌 이들을 돌보는 돌봄가족에 두고 치유 대상을 확대하였다.

산림청 정원치유 사업 「사회적 약자 가드닝」사업내용

◎ 사업내용

- 가. 발달장애인, 독거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운영 중인 정원·수목원을 활용 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
- (참여자) 독거노인, 교화 청소년, 장애인 등 소외계층 중심(개소당 20명/회) - (참여활동) 식물심기(식물교육 병행), 정원가꾸기 등 저장도 가드닝
- 나. (운영기관) 권역별 국가·민간정원 및 수목원 11개소
- 다. (참여활동) 식물심기(식물교육 병행), 정원가꾸기 등 저장도 가드닝
- * 시민정원사가 가드닝 지도 및 보조에 참여(1:2 매칭)

◎ 지원 필요성

- 참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및 관계형성 도모와 녹지공간의 체계적 관리·보전으로 경관개선과 기능을 유지
- * 영국 NHS(National Health System, 영국건강보험)은 정신적·육체적 치유를 위한 사회적 처방요법으로 가드닝을 확대·장려(출처: '19 Social Prescribing, NHS England)
- * 성별·연령·장애 등에 차별받지 않고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정원치유 서비스 제공 필요
- * 활동인력 중 우수인력은 정원을 관리하는 전문관리인 또는 일반* 관리인으로도 채용될 수 있어 일자리 창출(40~60대, 여성)에 기여

◎ 지원근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사업)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9(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표 21 산림청 정원치유 사업 「사회적 약자 가드닝」 사업내용(출처: 산림청)

표 22 산림청 정원치유 사업 운영 현황(2022년도 운영 기준)

	협력부처	지원(대상)시설	지원대상	진행기관	프로그램 비율	조성정원
1	나사렛대학교	경도 이상 우울 경험. 노인대학 재학 중인 노인	6~11월 주 1회 3시간 (총 20회기 진행)	가드닝 70%, 이벤트 30%	치유정원 3종 (안덕땃밭, 달팽 이정원, 그루터기정원)	156
2	신구대학교 식물원	경도 이상 우울 경험 65세 이상 재가 노인	6~10월 주 2회 (총 30회기 진행)	가드닝 80%, 이벤트 20%	오감치유정원	100
3	한택식물원	우울 증세 성인	8~11월 주 1회 3시간 (총 20회기 진행)	가드닝 75%, 이벤트 25%	치유정원 3종 (치유정원, 채소정 원, 이벤트정원)	257
4	한국 정원 디자인학회	경도 인지 장애 요양원 노인	5~10월 주 2회 (총 30회기 진행)	가드닝 87%, 이벤트 13%	치유정원 3종 (수생원, 약초원, 향기원)	190
5	청주대학교	정신질환자	6~9월 주 2회 (총 23회기 진행)	가드닝 70%, 이벤트 30%	치유정원 6종 (그라스윈호스타, 빛물, 씨앗, 수생, 계절)	70
6	중부대학교 /조경하다얼음	홀트학교 1,2학년	7~10월 3시간 (총 24회기 진행)	가드닝 70%, 이벤트 30%	참여형 정원	117
7	국제원예 연구원	아토피 피부염 질환 환아 부모	7~10월 주 2회 3시간 (총 15회기 진행)	가드닝 80%, 이벤트 20%	치유정원 7종 (가족, 텃밭, 컬 러, 그라스, 나비, 암석, 계절)	-
8	그람디자인	치매 돌봄 가족	6~11월 (총 30회기 진행)	가드닝 70%, 이벤트 30%	이더블가든	-
9	고려대학교	코로나 블루 의료 종사자	9~10월 주 2회 (총 15회기 진행)	가드닝 60%, 이벤트 40%	치유정원 3종 (사각정원, 미각 정원, 후각정원)	-
10	한국침례 신학대학교	범죄 외상 경험자	9~11월 3시간 (총 18회기 진행)	가드닝 66.6%, 이벤트 33.3%	MARCH 정원	-
11	대구가톨릭 대학교	우울 증세 노인	9~10월 주 2회 3시간 (총 16회기 진행)	가드닝 74%, 이벤트 26%	치유정원	29

2020년 「사회적약자 가드닝」 사업으로 시행한 ‘느슨한 가드닝’ 프로그램은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가드닝 프로그램이다.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로 돌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내 꾸준히 증가하는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보호자의 부양고통과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사회적 관계 단절이라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주부양가족들을 대상으로 가드닝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원문화 활동의 유기적 조직체계를 활용하여 자연을 가꾸며 즐기는 감성적 탐구생활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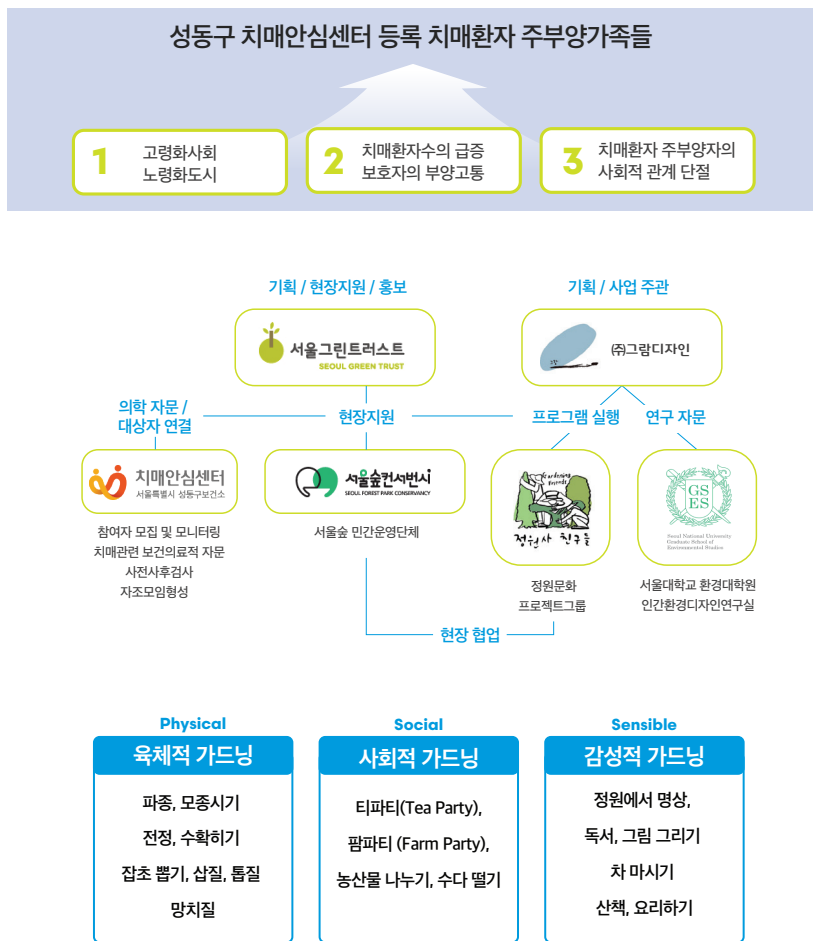


그림 41 느슨한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 조직도

가드닝 프로그램은 참가자 모집 오리엔테이션부터 정원기반 조성, 가드닝, 이벤트, 강좌, 참여자 모니터링의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서울그린트러스, 그람디자인/정원사친구들, 서울대학교가 협력하여 실행하였다. 세부 가드닝 프로그램은 정원식물공부와 같은 식물을 알아 가는 기본적인 이론 수업에서부터 정원오두막(티하우스) 꾸미기, 정원 독서회, 팜파티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참여 대상자들이 다 함께 정원 가꾸기 활동을 통해 연대하며 공유할 수 있는 활동으로 기획하였다. 느슨한 가드닝 참여 성과의 결과로서 전시회 및 성료식을 진행하면서 가드닝을 통한 치유와 위로를 받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림 42 <느슨한 가드닝> 컨셉



그림 43 느슨한 가드닝 프로그램 활동



그림 44 느슨한 가드닝 화단정리 후 금계국 꽃다발 만들기



그림 45 정원 다과파티

서울형 치유의 숲길,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서울형 치유의 숲길은 2014년 도봉구 초안산과 서울대공원에 처음 생겨난 이후에 2023년 기준 서울시 내 15곳에서 치유의 숲길 연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산림청이 숲의 개념을 휴양 공간에서 치유 공간으로 확대하면서 ‘치유의 숲’을 도입 및 지정을 한 이후로 관악산을 포함해서 숲이 양호하고 뛰어난 지역에서 명상을 하거나 휴식하면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서울형 치유의 숲길로 선정하고 산림치유사를 배치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숲명상, 숲해설 및 숲속 오감 체험 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지차제 별로 계절에 따라 대상을 특화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15). 관악산은 갱년기 여성 등을 대상 특화하여 ‘숲에서 토닥토닥’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치매안심센터,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숲에서 물랑물랑’, ‘홀로(HOLO)’ 운영하여 참여자들이 관악산 치유의 숲에서 자연을 통한 치유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캠핑숲 체험



산림치유- 마음카드 읽기



숲명상



차 마시기



노르딕워킹



숲속오감 체험



숲 해설



숲길산책



향기치유



숲놀이



생태놀이



생태관찰 및 탐방

그림 46 서울시 치유의 숲길 주요 프로그램

표 23. 서울시 치유의 숲길
15곳 및 주요 프로그램

산	위치	길이	주요 프로그램
초안산	도봉구 청산 산 189-3	2	치유센터가 위치 행복숲산림치유 프로그램: 생애 주기별태교숲, 유아숲체험, 노년층으로 특화
청계산	과천시 막계동산 46-1	5	숲해설: 청계산일대 보존된 자연숲산림치유 프로그램
안산	서대문구 연희동 산2-13	1.6	노르딕워킹
호암산	금천구 시흥동 산93-1	0.7	숲속 오감체험
불암산	노원구 중계동 산101-1	2.6	5월 치유의 숲길을 맨발로 산책하며 발을 자극하고 힐링 해보는 '맨발숲' 프로그램을 운영. 약초 족욕, 온열치료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치유 과정'과 실외인 불암산의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연계(22' 19만명 시민들이 이용)
관악산	관악구 신림동 산29-3	0.5	숲에서 소곤소곤(누구냐), '숲에서 토닥토닥(갱년기여성, 대사증후군), '숲에서 쓰담쓰담(초등학생 대상)', '숲에서 몰랑몰랑(치매안심센터)', '홀로(HOLO)' 운영 숲에서 몰랑몰랑: 60대 이상의 고연령층대상 숲 티어링프로그램- 참여자 스스로 생태미션에 참여. 관악산 찾아가는 학교 숲 체험: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진행. 학교 주변 생태를 관찰하는 프로그램
일지산	강동구 둔촌동 산29-3	1	행복을 주는 숲(가족 대상), 기쁨을 주는 숲(청소년 대상), 생명을 주는 숲(예비 엄마, 아빠대상)
매봉산	성동구 옥수동 428-6	1	활력숲(몸털기(목봉스트레칭, SH지압)+스트레스체크 스트레스체크+ 맨발걷기+ 청기백기+ 숲산책+ 눈 스트레칭 +478호흡 환경조건에따라생략될수있음) 행복숲(몸털기마음털기+ 행복숲놀이+ 바보걷기+ 빛명숲명+ 유아일번지+짜장스트레칭) 건강숲(숲명상, 맨발걷기등)
배봉산	동대문구 전농동 산32-20	1	배봉산치유의 숲 힐링 프로젝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가족 힐링 체험 프로그램(숲체조, 숲명상, 숲생태놀이, 숲길 트레킹, 향기치유)
북악산	성북구 정릉동 산87-1	0.8	-
수락산	노원구 상계동 산1-2	1.2	숲 바디 스캔 명상, 나뭇잎 마나라, 숲 스토리텔링 등
아차산	광진구 광장동5-124	1	숲IN, 휴(休): 복잡한 일상을 떠나 자유롭게 자연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용마산	종랑구 면목동 산1-3	1	희망찬 숲, 구구팔팔건강한 숲, 함께하는 숲 등(숲길걷기, 심신돌아보기등) 대상: 성인, 경도인지 장애 어르신, 직장인, 청소년, 가족
월곡산	성북구 하월곡동 산2-1	1	'행복하심(성인)', '소통하심(청소년)', '건강하심(어르신)', '무슨걱정하심(어르신)', '휴식하심(직장인)' 프로그램

서울시에서는 2023년 유아로 대상을 특화하여 ‘서울시 유아숲체험원’ 77개소를 개장하여 유아가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특히 유아가 숲에서 놀며 자연을 배우고 사회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공물보다는 바위나 나무, 흙 등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기구를 조성하여 유아가 자연을 소재로 놀 수 있도록 규모 5천㎡ 이상 규모의 숲의 식생이 다양한 곳에 야외체험학습장과 대피시설, 안전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대상은 개인이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체에서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로서 각 시설에는 유아숲 지도사가 배치된 점이 특징이다. 유아숲체험원의 프로그램은 주로 생태놀이 및 체험, 자연 창작, 생태 관찰의 활동으로 자연을 기반으로 하여 자연 안에서 창의력을 키우고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7 서울시 유아숲 자연창작 활동



그림 48 서울시 유아숲 체험원 공간

서울식물원 <가드닝 및 치유 프로그램>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유형 | 도심형 식물원

특징 |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 어린이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 운영 형식

- 주요 프로그램 명상/치유, 가드닝, 원예 테라피, 생태관찰, 힐링으로 구분
- 주요 프로그램은 어린이 대상의 어린이정원학교 프로그램과 성인 대상 숲문화학교로 진행

■ 운영 행태 및 대상

- 어린이, 청소년, 가족, 성인으로 연령대별로 구분
- 특히 어린이 특화 <어린이정원학교> 프로그램은 서울식물원의 대표 프로그램, 주로 텃밭 가드닝, 생태 관찰이 주를 이룸

표 24 서울식물원 가드닝 및 치유 관련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치유/ 명상	휴(休)정원	성인	
		가족 (7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	월별로 진행. 토피어리 만들기 프로그램은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나누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격려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식물을 매개체로 원예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는 치유정원 프로그램
가드닝/ 원예 테라피	어린이정원학교 <저원 안 식물 텃밭>	어린이	거인의 정원을 품은 어린이 정원학교
		어린이가있는가족	가족과 함께 하는 식물 테라피 교실
	한국 전통 꽃꽂이	성인	한국전통놀이 꽃꽂이 수업
생태관찰	어린이정원학교 <초록놀이터>	유아	생태놀이 관찰 프로그램
	해설사와 함께하는 온실 로보타닉 투어	가족(보호자 1명 +b아 또는 초등 학생)	해설사와 함께하는 온실 속 다양한 식물들을 로보타닉의 설명을 들으면서 관람하는 생생한 식물 이야기
	어린이 탐험대 '여름 친구 매미와 함께'	초동학생 (초등저학년)	여름친구매미를 직접 관찰하고 매미의 생태를 탐구하는 프로그램 어린이정원학교에서 진행
힐링	숲문화학교 <힐링 꽃 나들이>	성인 및 가족 (7세 이상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열린숲에서 자연을 소재로 하는 스토리텔링형 프로그램으로 서울식물원의 열린숲의 계절과 월별, 시간의 순차적으로 식물이 보여 주는 식물 스토리를 듣는 프로그램

국립수목원 <사회적 약자 치유 프로그램>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원원로 415

유형 | 생태숲 수목원

특징 | 국내 산림생물, 생물다양성을 지닌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 체험하고 활동, 학습할 수 있도록 함.

주요 프로그램

- 운영 형식
 - 수목원 해설, 숲이오래 아카데미, 산림교육가 양성 실습 프로그램 운영
- 운영 형태 및 대상
 - 개인 대상별(어린이(5-7세) 및 중고교생(14-19세) 대상 프로그램)/ 기관 신청 / 특별기획



그림 49 숲이오래 키즈 아카데미



그림 50 산림생물학교(12세~1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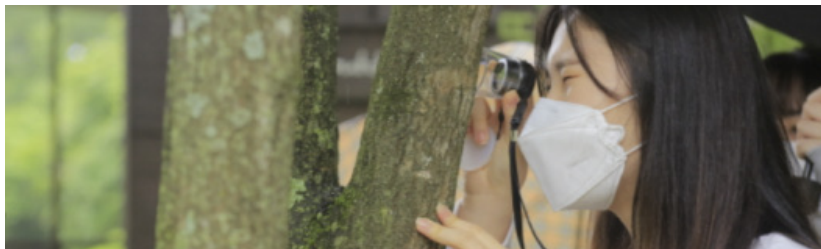


그림 51 산림생물학교(14-19세)



그림 52 우리 산림생물 바로 알기 탐험대

표 25 국립수목원 생태 및 가드닝 관련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개인	해설	수목원해설	누구나	수목원의 산림생물 전반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
	생태 관찰	숲이오래 키즈아카데미	가족	광릉숲 보물찾기(대상: 6-9세 가족참여 가능) 산림생물 탐사하기(대상: 10-13세)
	교육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양성 실습	누구나 (사립교육 전문가 향상과정 교육생, 교육과정 60% 이상 이수자)	숲해설가 자격증을 받고자 숲해설가 양성 과정 중인 분들에게 보조교사 등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관	생태 교육	숲이오래키즈아카데미	5-7세	생명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으로, 숲에서 오감을 통해 자연에 대한 생태교육
			8-9세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물 '서식지'를 관찰하고 탐구. '나 무친구'를 사귀며, 관계 맺기를 기본으로 자연의 감성적 경험 쌓기
	산림생물학교	10-11세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다양한 동식물의 '한살이'를 관찰. 포유동물, 산새, 곤충, 식물로 대표되는 각 생물군의 한 살이를 관찰하고 각 생물군의 상호작용과 산림생물과 생태계 보전 개념 교육	
기관	산림생물학교	12-13세	생태계 보전을 활용할 수 있는 생태 소양을 갖추기 위해,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지속 가능한 숲을 위한 전통 생태시식과 미래기술 탐구	
	산림생물학교	14-19세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지구 생태계의 식물과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 되어보기' 프로그램으로 산림생물종 연구기관 차세대 생물학 연구자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	
특별 기획	우리산림생물 바로알기 탐험대	초등학생 3-6학년	국립수목원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여 직접 체험활동을 통해 교육과 놀이, 학습, 자기주도적 참여 등 융복합 산림체험으로 산림생물종 미션을 통해 조별로 산림생물 종 관찰, 관련 지식 습득	

천리포식물원 <숲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1길 187

유형 | 생태숲 식물원

특징 | 청소년, 취약계층 지원 숲해설, 체험 위주로 전문화 및 특화하여 다수의 프로그램 진행

주요 프로그램

- 운영 형식
 - 숲, 체험 교육 사업 프로그램
- 운영 형태 및 대상
 - 기관 및 단체(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청소년), 전 연령층 대상 프로그램

표 26 천리포수목원 관련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기관 및 단체	생태체험	숲체험 교육 사업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청소년	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 녹색기금인 복권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
	휴식 힐링	다함께 힐링캠프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청소년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 심성순화, 삶의 질 향상 등 보편적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
개인	휴식 힐링	무지개를 담은 숲 프로그램	청소년	수목원의 숲 활동을 하면서 자연과 가까워지는 프로그램으로 진로 체험을 담아 산림 분야 직업군 소개 및 내 나무 갖기 활동으로 구성
	휴식 힐링	포레스트(forest) 숲에서의 휴식	일반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리포수목원의 장소성을 반영하여 운영 1차: 숲체험, 식물심기 2차: 바다에서 추억 만들기 활동
		내가 Green 숲	청소년	자연 속에서 8가지 미션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성취감과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그림 53 내가 그린 숲 프로그램



그림 54 청소년 숲 체험 프로그램

서울숲(도시공원) <가드닝 프로그램>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273

유형 | 도시공원

특징 | 국내 공공시설 가운데 민간, 시민 참여에 의한 공간 활성화. 음악, 생태 관련 도시공원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

주요 프로그램

- 운영 형식
 - 행정 직영 및 민간 지역의 숲체험, 생태관찰의 체험형 프로그램
- 운영 행태 및 대상
 - 어린이 및 가족, 일반 성인

표 27 서울숲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가드닝 교육	도시정원사 및 꼬마정원사	어린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가드닝 교육 및 생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개인 및 단체	서울숲 산책 프로그램	성인	도시정원사와 함께하는 서울숲 산책 프로그램으로 서울숲에서 자라는 식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책하고 식물일기를 써보는 프로그램
서울숲학교	서울숲자연학교 서울숲정원학교 서울숲건강학교 서울숲문화학교	성인	숲속유치원, 자연관찰학교, 아낌없이 주는 서울숲 등 생태교육 위주의 프로그램
키트	가드닝 교육 서울숲초록키트	누구나	식물을 가꾸는 경험을 통해 친해지는 서울숲 가드닝 프로젝트로 집에서 가꿀 수 있는 식물 키트를 배포



그림 55 서울숲 산책 프로그램



그림 56 꼬마정원사 숲 관찰 프로그램

영국 박물관 연계 캠페인 사업 <The Wild Escape>

위치 | 영국

유형 | 가이드라인 및 툴킷

특징

- 영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가 복권 프로젝트 보조금의 지원으로 영국 예술기금(Art Fund), Bloomberg Philanthropies, Kusuma 트러스트, Foyle 단체, WWF, RSPB, National Trust, 개인 및 신탁 그룹 후원
- 영국의 자연사 시리즈 Wild Isle에서 영감을 받아 영국 전역에 학교와 학교가 박물관과 함께 창의적인 프로젝트들 통해 자연에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로 가이드라인 및 tool kit를 제공
- 영국예술기금이 후원한 가장 큰 박물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예술가, 유명인사(가수 등), 셀럽 등이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여 홍보

주요 프로그램

■ 운영 형식

- 박물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Wild Escape'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toolkit 배포 및 공식 온라인 웹사이트 운영, 창작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 The Wild Escape Toolkit

- 대상은 박물관, 영국의 초중고교로 Toolkit은 박물관 관계자 및 초중고 교사가 참여 하여 가이드라인 개발
- 자율활동 문화예술 수업 프로그램 및 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활동, 평가, 사례조사, The Wild Escape 마케팅 계획, 박물관 및 교사 특화 가이드라인 자료 제공



그림 57 The Wild Escape 툴킷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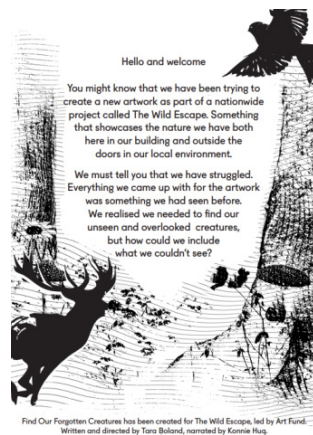


그림 58 The Wild Escape 툴킷 활동 내용

■ The Wild Escape 공식 웹사이트 및 브랜딩

- 영국 예술기금(Art Fund)가 주도하고 영국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캠페인을 런던 전역의 갤러리와 뮤지엄에게 브랜딩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배포
- 야생이라는 큰 주제를 탐구하여 미래세대에게 생물다양성의 환경을 통해 예술과 상상력의 힘을 전파, 마케팅 활동을 위한 로고 및 툴킷을 포함
- The Wild Escape 공식 웹사이트(<https://thewildescape.org.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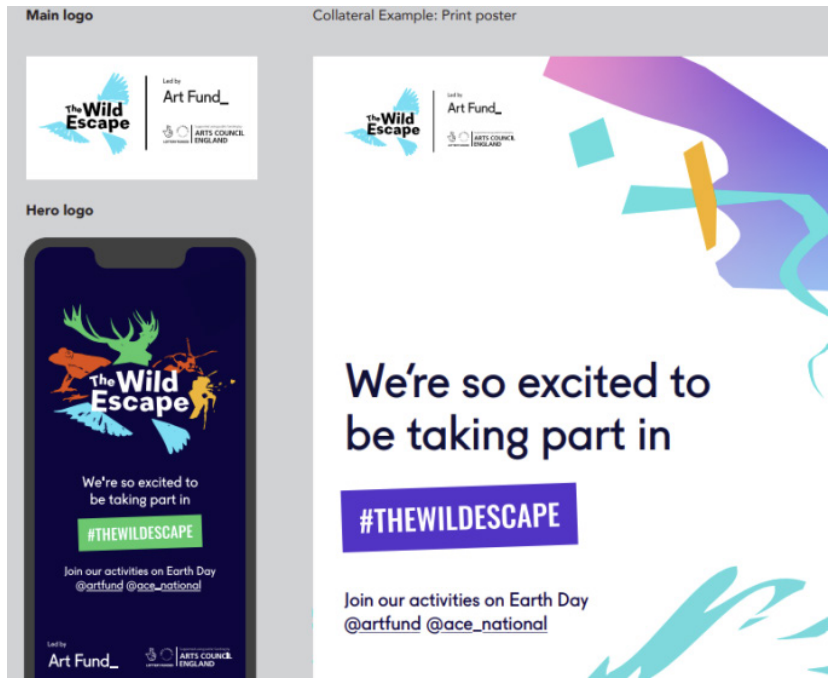


그림 59 The Wild Escape BI 개발

■ The Wild Escape 어플리케이션 개발

- 박물관과 갤러리에서 학생, 일반인 등이 참여한 야생동물 창작 결과물을 직접 업로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
- 드로잉, 창작 활동을 디지털로 업로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기반 갤러리 형태로 구축



그림 60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디지털 창작물 게시



그림 61 디지털에 구축된 창작 결과

독일 베를린시 공공 생태교육 프로그램 <자연체험실>

위치 | 독일 베를린시

유형 | 공공 주도 도시자연 프로그램

특징

- 공공기업 그린베를린 산하 조직의 제공하는 전 연령대 대상으로 진행되며 야외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도시 내 자연탐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생태적, 환경적 특성에 맞게 조성하여 운영
- 베를린 6개소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

주요 프로그램 | <자연체험실>

■ 운영 형식

- 체험형 및 교육형 프로그램

■ 대상 및 운영형태

- 대상: 어린이 6세-12세
- 운영근거: 2015-2019년 자연보호재단 시범사업 진행으로 2019년 건축법 개정 녹지 항목에 추가
- 조성 위치 및 기준: 주거지 인근, 도로나 철도와 같은 장벽 없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자연구조물, 면적의 50% 이상의 자연 상태로 존재, 10%의 잔디밭 등 관리 영역, 테두리

■ 운영 조직 역할

- 베를린 자연보호재단(Stiftung Naturschutz Berlin): 1981년 황무지 재상과 자연보호구역 확보를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2011년부터 대도시에 있는 자연체험실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2015년-2019년 시범사업을 추진
- 시티네이처캠퍼스(Campus Stadt Natur): 공공기업 그린베를린(Grün Berlin) 산하 조직으로 어린이 대상 자연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음. 어린이뿐 아니라 가족과 성인 대상 투어,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자연과 환경, 원예, 예술 및 미디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룸.

《자연체험실 위치 및 성격》

- 1.스피로텍 자연체험실: 놀이 언덕의 지형으로 촉각과 운동 감각 훈련
- 2.늪지 초원 자연체험실: 대형 주택 단지 인근 근처
- 3.카엔베르그 자연체험실: 2017년 국제정원박람회GA 개최를 계기로 공개. 숲, 경사, 과일나무들로 구성
- 4.로비니아숲 자연체험실: 다람쥐와 큰점박이딱다구리를 볼 수 있는 곳
- 5.글라이스드라이에크파크 자연체험실
- 6.템펠헵곡 자연체험실: 기존 언덕을 활용 모래, 진흙, 물과 같은재료 사용

조성 규모 | 최소 1ha, 최대 2ha

디자인 | 기존 잠재력을 활용 및 반영(흙더미, 기반 생태 환경 등), 안정성 고려



그림 62 베를린 내 자연체험실 위치



그림 63 공원 안에 위치한 자연체험실

Green Plan IT 챌린지 프로젝트

위치 | 영국

유형 | RHS(영국왕립원예학회)의 캠페인 일환 학교 프로젝트

특징

- 영국왕립원예학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와 커뮤니티 녹지공간을 창의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챌린지 프로젝트
- 2023년 기준 38,000여개의 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Green Plan It 챌린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혜택을 받음

주요 프로그램

■ 운영 형식

- 12주 운영 프로그램

■ 대상 및 운영형태

- 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소규모 팀 구성
- 정원 및 조경 설계와 원예 분야의 다양한 직업적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영국왕립원예학회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교소 및 업계 멘토와 함께 10-12주 정도의 학교 운동장이나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을 위한 정원을 설계하고 정원 모델, 패널 등을 전시하여 심사
- 식물을 탐구하고 식물이 개인, 사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구성, 참여하는 팀에게 상을 수여
- 특히 도심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시 환경 안에서 원예의 가치를 배우고 새로운 야외 공간을 직접 만들어서 커뮤니티 정원이 실제로 구축되는 기회도 제공



그림 64 Green It 챌린지 프로그램



그림 65 Green It 챌린지 활동 결과

브루클린 식물원 (Brooklyn Botanic Garden)

위치 | Brooklyn, NY 11238, USA (미국)

유형 | 도심형 식물원

특징

- 매년 75만명 정도가 방문하는 도심형 식물원으로 면적 20ha로 1만 2천 여종의 식물이 전시, 어린이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드닝 프로그램
- 1914년부터 어린이정원 프로그램을 일반에 진행하고 있으며, 약 1,224평 규모의 어린이정원으로 해마다 15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 운영 형식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식물원의 내외부 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및 운영형태

- 성인 및 가족, 어린이 대상 특화 프로그램
- 어린이정원(Children's Garden Class): 19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식물원에서는 최초로 어린이정원을 만들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으로 운영, 세계에서 가장 오래됨. 어린이정원을 대표하는 구호 Let's Grow 라는 구호를 통해 땅에서 식물을 기르며 환경을 지각하게 취지로 운영
- 디스커버리 가든(Discovery Garden): 5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최초의 발견>의 식물 심고, 천연 재료를 이용한 공예품 만들기,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감각을 사용한 자연 탐색 등
- 아트 인 더 가든(Performing Artist in Residence): 2023년 레지던시 주제는 나무의 힘(Power of Tree)로 전시 나무, 나무 관리 및 관리인, 모임, 쉼터 및 문화의 장소로서의 나무의 상상성에 영감을 받음.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4명의 작가를 선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 수업, 세미나 또한 작가가 활동을 주최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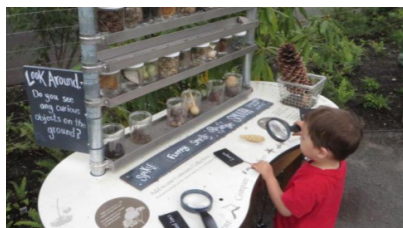


그림 66 어린이정원 프로그램



그림 67 디스커버리 가든 어린이 참여

뉴욕 보타닉 가든 (New York Botanical Garden)

위치 | 150 Eastern Pkwy, Brooklyn, NY 11238 (미국)

유형 | 도심형 식물원

특징

- 50개의 정원과 3만 그루의 나무가 있는 대형 식물원으로 뉴욕시 북부 브롱크스 식물원, 동물원과 인접하여 공원 지역을 이루며 약 15,000종의 식물을 재배하고 있음
- 약 400만 점의 표본이 소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식물 연구와 식물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정원치유 및 원예치유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치료원에 프로그램 활성화

주요 프로그램

■ 운영 형식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특화, 시

■ 대상 및 운영형태

- 성인 및 가족, 어린이 대상
- 학교 밖 가드닝 프로그램(Out-of-school): 학교 밖인 식물원의 정원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식물을 익히고 원예의 기본적인 식물 과학 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 연령대 별로 특화하여 진행
- 계절별 뉴욕 보타닉 가든 캠프(Botanic Garden Camps):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를 위한 캠프 프로그램으로 뉴욕 식물원 전체 정원에서 이루어지며 계절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Cool Science 프로그램, Green Thumbs Gardening Camp 등)
- 먹거리 정원 아카데미(The Edible Academy): 지속가능성을 배울 수 있는 먹거리 정원으로 어린이뿐 아니라 가족, 학생들과 일반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아웃도어 프로그램으로 식물이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배움과 스스로를 돌보는 경험 제공으로 식물이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배움과 스스로를 돌보는 경험 제공



그림 68 뉴욕 보타닉 가든 어린이 식물자연 캠프



그림 69 뉴욕 보타닉 가든 먹거리 정원 아카데미

위치 | Mrs Macquaries Rd, Sydney NSW 2000, Australia (호주)

유형 | 시드니 중심 지구에 위치한 도심형 식물원

특징

- 시드니에서 대중에게 개방된 식물원 중 3대 주요 식물원 중 하나로 일반에 개방
- 시드니 왕립식물원은 1816년 30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원예연구, 분류연구, 생태연구 및 식물병리연구 4개 분야로 세부 프로젝트를 수행

주요 프로그램

■ 운영 형식

- 식물원 공간을 활용한 치유뿐 아니라 문화와 여가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대상 및 운영형태

- 13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
- 자연 테라피 산책: 자연에 감각을 몰입 시켜 건강 증진, 산림 치유 전문가가 수업 진행
- 어린이 [초등 프로그램]: 초등,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 식물원을 탐구하며 동식물, 곤충을 발견
- 정원 딱정벌레(6-12세), 묘목 자연학교(매주 화요일 2.5-5세): 자연에서 감각 형성, 호기심, 창의력 향상, 자존감 회복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 나만의 디깅 스틱 만들기(Make your own digging sticks): 수천 년 동안 굴착 도구를 사용하던 막대기를 만들어보면서 정원 땅속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땅속의 작은 생물의 집을 발견하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체험으로 암석이나 화석을 발견해보고 물을 이용해서 수로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구성. 정원을 이루는 땅의 요소를 고대 시대부터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디깅 스틱을 창작해보고 지형 만들기, 땅속 생물 서식처 알기 등을 손을 활용해서 해보는 활동



그림 70 곤충 자연생태계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그림 71 어린이 나만의 디깅 스틱 만들기

가든뮤지엄 (Garden Museum)

위치 | 5 Lambeth Palace Rd, London SE1 7LB, UK (영국)

유형 | 영국 최초 정원 박물관

특징

- 1962년 건축하여 1977년 개관, 2015년 문화재로 지정된 템스강 남쪽에 위치한 정원 및 정원 가구기와 관련된 전시 및 행사를 주도하는 박물관
- 영국 정원 디자이너 댄 피어스(Dan Pearson)이 조성한 외부 정원 공간과 센터에서 가드닝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

주요 프로그램

■ 운영 형식

- 자생식물 수종의 박물관 야외 정원을 활용한 가드닝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 대상 및 운영형태

- 성인 및 가족, 어린이(단체 및 개인) 대상
- School Visit(학교 기관 대상): 지역 인근 학교 방문 프로그램으로 식물 관찰, 미술 창작 활동. Food Learning: 음식 만들기를 통해 자연과 식물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레시피 만들기 프로그램
- 커뮤니티 배움 교육(Community Learning): 치매노인 대상으로 Community Learning- Dementia Friendly Craft: Arts 4 Dementia and crafts council partnership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창의적 활동을 통해 치매 노인들에게 치유와 커리어 전환의 기회 제공. (CNN에 소개)



그림 72 치매예방 점도 활용 식물 치료 프로그램



그림 73 어린이와 함께하는 예술-가드닝

(장소 기반)
사례 01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모카가든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50 SPACE1, A관 3F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유형 | 사립 미술관

특징 |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책미술관으로 자연을 테마로 실내정원과 연계한 생태예술, 전시 교육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 운영 형식

- 교육 및 전시연계, 모카가든 온라인 프로그램

■ 대상 및 운영형태

- 대상: 미취학아동 및 어린이, 성인
- 전시 연계 프로그램, 테마 프로그램, 단체 프로그램 및 온라인 프로그램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음.
- 실내정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체험 및 창작 프로그램: 모카가든에 조성한 실내정원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실내정원 속 식물을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 가족이 함께 자연을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자연예술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자연의 형태 탐험, 소리 탐험 등의 자연탐험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식물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식물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대표적임.



그림 74 모카가든 <오자연> 프로그램



그림 75 탐험 프로그램<감상가방>

블루메 미술관 <정원 예술교육 프로그램>

위치 | 경기도 찬현면 헤이리마을길 59-30

유형 | 자연과 연결되는 미술관

특징 | 자연과 연결하는 미술관이라는 테마로 미술관 중정 정원에서 이루어지는
가드닝 프로그램과 식물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주요 프로그램

■ 운영 형식

- 전시 연계 교육 및 체험형 프로그램

■ 대상 및 운영형태

- 대상: 어린이 및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 Green Sound Bath 프로그램: 정원공간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드는 사운드 스퀘이프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운드 힐러 홍미정과 함께 명상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돌아보기' 경험을 제공. 이를 통해 자연 속에서 나를 겸허하게 비워내는 효과와 싱잉볼 사운드 배스 경험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 경험
- 오드 투 뮤직가든 콘서트 프로그램: 일상의 작은 소리들을 아름다운 색과 형태로 붙잡아놓은 <한국의 소리> 관화 시리즈로부터 클래식 음악을 담아서 블루메 미술관 정원에서 피아노 연주와 함께 감상하는 프로그램
- 오시영 작가와 함께 하는 <여린바람> 프로그램: 어린이 가족 대상 모빌 워크샵으로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오시영 작가의 작품인 모빌을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보고 블루메 미술관 야외 정원에서 모빌이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감각을 느껴보는 프로그램



그림 76 Green South Bath 활동



그림 77 여린바람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순환랩 2021 <폴리네이터 가든-어린이 정원사의 그림일기>

위치 | 국립세종수목원

기간 | 2021년 10 - 11월 / 5회차(매주 토/일요일 3시간)

유형 | 생태교육 기반 창작 및 체험 프로그램

특징

- 예술교육을 하던 교육기획자가 국립세종수목원에 아이들을 초대하여 식물과 곤충을 관찰하게 하고, 세밀화 작가와 함께 그리게 한 결과물을 지도로 엮어냄
- 국내 유일 '폴리네이터 가든' 홍보하여 시민의 관심 제고
- 학생들에게 폴리네이터 가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태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
-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곤충의 역할과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이러한 곤충들을 지키기 위해 폴리네이터 가든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중요성 강조

*폴리네이터 가든 : 꽃가루를 생산하는 식물을 심고 곤충들을 유도하여 꽃가루반이를 도와주는 꽃가루매개자(Pollinator) 정원을 의미

기획 | 국립세종수목원 학교교육팀



그림 78 세종수목원 폴리네이터 정원 관찰



그림 79 어린이 작가 창작 활동

(예술가 작업)
사례 연구 04

London Bridge <The Nelken Line Project>

위치 | 런던 브릿지, 런던, 영국

유형 | 무용 기반 창작 및 체험 프로그램

특징 | 2018년에 피나 바우쉬 재단(Pina Bausch Foundation)의 세계적인 참여 프로그램 일환으로 무용수들이 런던 브릿지 지역을 누비며 피나 바우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안무를 선보임.

주요 프로그램

■ 운영 형식

- 1회차 이벤트 프로그램(영국 런던 브릿지 프로젝트)

■ 넬켈라인(Nelken Line) 프로젝트*

- 독일 피나 바우쉬 재단(Pina Bausch Foundation)은 세계적인 안무가 피나 바우쉬 아들 잘로몬 바우쉬가 2009년에 설립한 단체로 피나 바우쉬의 업적을 보존하고 그녀의 다양한 작품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음. 이 밖에도 정부, 지자체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가족,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회 지원 프로젝트와 공연을 기획 및 지원함
- 넬켈라인 프로젝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안무가 피나 바우쉬의 동작 중 한 부분인 “넬켈라인” 동작을 익히는 프로젝트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표현한 통합적이고 원초적인 티칭, 댄스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피나 바우쉬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음.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피나 바우쉬의 좋은 움직임을 함께 나누고 움직이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현재 다양한 나라에서 “넬켈라인”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음.
- 영국 런던 브릿지 넬켈라인 프로젝트: 런던 브릿지에서 진행된 넬켈라인 프로젝트로 무용수들이 런던 브릿지 지역을 누비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안무를 선보임. 기획 및 참여는 피나 바우쉬 재단(Pina Bausch Foundation), 런던 브리지 시티(London Bridge City), 포터스 필드 매니지먼트 트러스트(Potters Fields Management Trust), 네트워크 레일(Network Rail), 킹스 칼리지(Guy's Campus) 및 서더크 위원회(Southwark Council)와 협력하여 팀 런던 브리지(Team London Bridge)



그림 80 (2018) by The Pina Bausch Foundation's world-wide participatory



그림 81 (2018) by The Pina Bausch Foundation's world-wide participatory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

Eden Anthem

위치 | 영국

유형 | 자연관찰과 결합한 공연 프로그램

특징

- 자연을 기반으로 한 합창 프로젝트로 영국에서 시작해서 ITAC(International Teaching Artists Collaborative)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프로젝트로 추진

주요 프로그램

■ 운영 형식

- 오페라 가수 조이스 디도나토(Joyce DiDonato)와 함께 지역 합창단이 에덴 콘서트 공연하고 예술 워크숍 운영
- “희망의 씨앗”을 배우는 워크숍으로 ‘나무가 노래 할 수 있다면...’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워크숍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며 자신의 소리의 가치와 예술이 전달하는 중요한 표현 매체를 배울 수 있도록 함



그림 82 지역 학교와 연계한 학교 정원에서 진행된 ‘희망의 씨앗’ 워크숍



그림 83 지역 학교 합창단과 ‘희망의 씨앗’ 공연

(예술가 작업)
사례 연구 06

일일댄스 일*일*일상 몸부림 몸바람

위치 | 인왕산 일대(서울 종로구 무악동 산2-1)

유형 | ARKO와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 매칭지원을 통해 진행하는 현대무용 워크숍

기간 | 2021년

특징

- 숲에서 진행되는 시민 참여 현대무용 워크숍
- 일상을 찾고 유지하지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며 몸으로 만나는 체험형 프로그램
-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랜선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던 시기, '신체'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마련
- 인왕산에서 진행하며 자연의 바람으로 몸을 채우는 시간을 가짐

기획 | 송주원(일일댄스 프로젝트)



그림 84 <일일댄스 일*일*일상.몸부림몸바람>(2021) Track 1. 산다람쥐

<그린아카이브 2020> '우리의 이웃, 숲의 발견'

위치 | 서울숲(생태숲, 서울숲이야기관, 커뮤니티센터, 겨울정원)

유형 | (재)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그린아카이브 2020 展:
댄스필름 송주원, <우리의 이웃, 숲의 발견>(2020)전시 및 도시민과
<생태숲의 자연>사진 기록 클래스 진행

기간 | 2020년 10월 27일 - 11월 10일

특징

- <우리의 이웃, 숲의 발견>(2020)에서 무용수들은 서울 한가운데 자리한 서울숲 생태숲에서 도시를 함께 살아가는 생태숲의 생명을 느끼고, 자연의 운동이 어떻게 우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움직임 자체를 몸의 리듬으로 표현함
- 같은 땅과 바람과 하늘 속에서 각각의 생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도시생태숲과 사람들이 일상적 이웃으로 교감하는 몸짓을 담은
- <생태숲의 자연> 사진 기록 클래스에서 시민들은 작가의 안내로 <우리의 이웃, 숲의 발견>의 배경이 된 서울숲 안에 위치한 비공개구역인 생태숲 풍경을 감상하고, 휴대폰으로 자연 사진 기록 남긴 후 서로의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기획

기획: 장지혜

작가: 송주원

참여: 일일댄스프로젝트

후원: 서울그린트러스트



그림 85 송주원 <우리의 이웃, 숲의 발견>(2020)

(예술가 작업)
사례 연구 08

살아 있는 관계

위치 | 남산공원, 남산 둘레길

기간 | (2021년 10월 11일, 2022년 2월 19일, 5월 22일, 7월 30일)

특징

- 1년을 주기로 4번, 하루씩 진행.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연에서 한시적으로 전시.
- 숲에 작품을 자연에 기대듯이 설치하여 숲이 형성한 생태환경을 방해하지 않고 견기를 통한 숲을 돕는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림

기획 | 이상엽

작가: 강수민, 김목인, 무니페리, 민백, 박보마, 양윤화, 원정인, 임창곤, 정하슬린, 쿠카카와이

후원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그림 86 살아 있는 관계 프로젝트 결과물(강수민 작가)



그림 87 그림 살아있는 관계들(원정인 작가)



그림 88 살아 있는 관계 프로젝트 결과물(양윤화 작가)



그림 89 살아 있는 관계 프로젝트 결과물(민백 작가)

Children's Forest Pavilion

위치 | 리투아니아의 Vilnius와 Curonian Spit 주변 삼림 지대, 핀란드 Paljakanvaara의 오래된 숲 지역

기간 | 2023년 5월 18일 - 11월 26일

유형 | 2023 제18회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리투아니아 파빌리온 출품작

특징

- 어린이와 생태환경 리서치를 통한 전시 조성 후 전시에 사용한 목재는 다시 존재하던 숲으로 옮겨 문화공간 조성
- 숲의 생태계를 교육하고 어린이가 생태 환경을 관찰하고 탐구해보는 시간을 통해 자연과 관계 맺는 방법을 학습한다.
- 고대 숲, 원시 늪지 풍경 등의 지질 형성과정을 배우며 숲에서 진행
- 다양한 규모의 숲을 탐험하고, 증강현실을 통해 화학적 오염을 조사하고, 목재의 소리 울림을 발견하며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학습해본다.
- 어린이들과 함께 리투아니아와 핀란드 주변 삼림 지대에서 환경 교육자, 활동가, 예술가, 건축가 및 삼림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야외 활동과 숲 탐구 진행
- 플레이스케이프(playscape)로 구성하여 숲을 관찰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설명하고, 숲을 형성하는 주체를 요구하도록 고안

기획 | Vilnius Academy of Arts의 Nida Art Colony 내 큐레이터, Jurga Daubaraitė, Egija Inzule 및 Jonas Žukauskas



그림 90 Children's Forest Pavilion



그림 91 Children's Forest Pavilion 숲관찰

(예술가 작업)
사례 연구 10

환경으로서의 예술: 자두나무 개울에서의 문화활동

위치 | 대만의 Zhuwei 지역

기간 | 2009년 협업 시작 이후 2011년 1월 - 2012년 7월까지 진행

유형 | 다학제 연구자들이 지역사회 환경 개선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

특징

- 큐레이터,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며 지역의 생태환경을 연구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Zhuwei 지역민들의 자두나무 개울의 환경 오염 인식 제고
- 지역사회, 전문가, 공공 부분이 예술을 통해 연구와 토론 진행하여 환경 개선
- 참여인원: 60명이 넘는 대만 국내, 해외 예술가, 큐레이터, 전문가 및 NGO의 문화활동으로 80,000명 이상의 참가(*대상자: 자두나무 개울은 본래 지역민들의 음수 및 농수원지로 사용되었으나 20년간 개발이 진행되어 현재는 몇 구간이 오염된 상태로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

◎ 기획 | 우 말리(Wu Mali) x 밤부 커튼 스튜디오(Bamboo Curtain Studio)

- 우 말리: 대만의 큐레이터, 설치 작가, 사회참여적 개념미술가로 활동
- 밤부 커튼 스튜디오: 홍콩 출신 도예가 및 마가렛 슈(Margaret Shiu)



그림 92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



그림 93 자두나무 개울에서의 문화활동

Forest Transformation

위치 | 콜롬비아 Choco 열대우림

기간 | 2017년 진행

유형 | 비영리단체, 예술가, 큐레이터가 진행한 열대우림의 나방과 나비를 연구하는
공동 프로젝트

특징

- 다학제간의 연구를 통해 나방과 나비를 연구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교류하여 다양한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
- 환경과 세계에 대한 관찰과 연구로 세계를 이해하고 예술을 통해 이를 창조적 변형하는 시간을 가진다.
- Choco Base 주변에서 약 50종의 나비를 연구하고 성인을 위한 강연과 어린이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 이들이 연구한 결과물과 워크숍에 참여한 대상들의 작업을 화집으로 제작한

기획

- MAMA(Mas Arte Mas Accion): 2011년부터 태평양 지역의 지역사회와 종종 과정을 수반하는 학제간 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 앨리슨 턴불(Alison Turnbull, 콜롬비아-영국 예술가)
- Blanca Huertas(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콜롬비아 나비 큐레이터)



그림 94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Forest Transformation 활동 모습

(예술가 작업)
사례 연구 12

Assembly <Assemble Play>

위치 | 킹스크로스, 런던, 영국

유형 | 어린이 주도 체험 프로그램

특징

-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playwork를 만드는 프로그램
- 지역 마을, 도시에서 쉽게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놀이를 개발하여 가족과 어린이의 웰빙과 행복을 향상하도록 지원, 도시 환경에서 어린이의 창의적인 놀이 가능성을 구축

주요 프로그램

■ 운영 형식

- 이벤트 형식으로 Playworker Penny Wilson과 Assemble이 협업하여 플레이 프로그램을 고안함.
- 디자인은 가족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동기에 부여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고정된 놀이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느슨하게 도구를 사용하여 '이동, 운반, 구르기, 들어 올리기, 쌓기 또는 결합하는 경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2018년-2020년 런던 킹스 크로스에서 실행된 Paly KX의 경우에는 Playworker Penny Wilson과 Assemble 협업으로 설립, 가족들이 자유롭게 놀이의 형태로 구성하고 가족들이 함께 주도적으로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기획:

- 런던 지방 당국 (Waltham Forest의 London Borough, Southwark의 London Borough), 개발자 (Argent), 디자인 관행 (LDA) 디자인, 박물관 및 갤러리 (Royal Academy, John Soane Museum, Pitzhanger Manor, Headstone Manor, Ty Pawb), 학교 (Hugh Myddelton School), 예술 축제 (Brent Biennial) 및 자선 단체 (Toynbee Hall, Great Ormond Street)가 참여



그림 95 Assembly <Assemble Play> 프로그램



그림 96 Assembly <Assemble Play>

사례 연구 종합: 도시숲 예술치유 방향성

도시숲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도시공원과 식물원/수목원은 생태 관찰·체험 기반의 활동이 주를 이루며 참여 대상의 경우도 특화된 대상층 보다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자연에 대한 가치를 창작 활동을 통해 상상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영국의 'The Wild Escape' 프로그램은 런던의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런던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야생동물을 다양한 시각으로 탐구하고 창작하는 캠페인이자 가이드라인이다. 독일의 시티네이처캠퍼스와 자연체험실은 공공 주도로 도시 내 공원, 생태숲에서 도시자연을 직접적으로 탐구하고 자연에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의 지역의 장소적 맥락에 맞게 최소한의 자연적 재료를 사용하여 조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가가 직접적으로 기획 및 참여한 국내외 프로그램 사례에서는 남산공원과 둘레길에서 진행한 '살아있는 관계(Living Relation)'의 경우처럼 자연과 인간의 편향적인 관계를 넘어서 서로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숲을 걷는 행위를 통해 자연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을 예술을 통해 제공,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예술적 경험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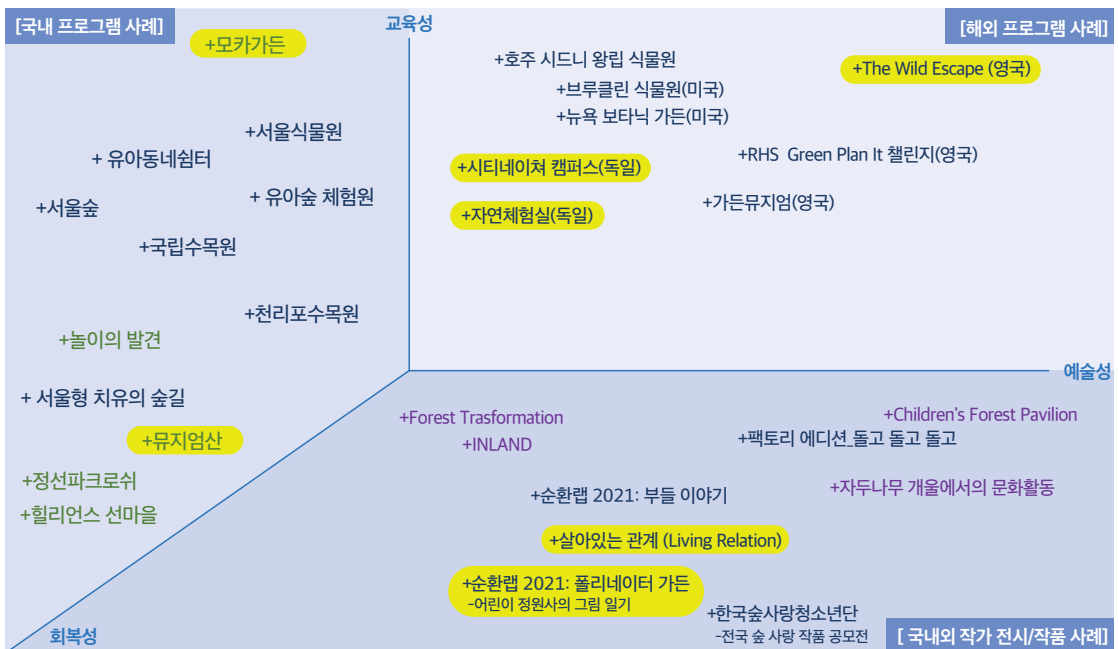


그림 97 국내외 도시숲 기반 프로그램 사례 분석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모델 기본구상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사업 모델

콘텐츠

1

도시숲 예술치유 기획 의도

예술과 자연을 마주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이다. 예술이 불러일으키는 감수성과 창의성은 개인의 심리, 정서와 닿아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숲을 거닐고 정원을 가꾸고 공원을 찾는 이유는 신체 건강과 정서 회복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예술과 자연은 모두 치유의 원천이자 개인의 회복,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매개체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인류는 “자연”이라는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기존의 태도와 입장을 전환할 필요에 동의한다. “환경”으로서의 자연을 대하는 이들은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적극적인 교감을 시도한다. 한편 누군가에게 자연은 보다 개인적인 장소이자 인류의 원초적인 열망의 장소, 즉 유토피아로서 다시금 삶의 장소로 돌아오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태초부터 야생의 자연을 정원으로 일구고 가꾸며 살아온 삶의 여정이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벽화를 그리고, 몸짓을 만들어 소통해왔으며 어린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기까지 마당에서, 뜰에서, 숲에서 끊임없이 지속해 온 놀이를 통한 창작의 표현은 한 개인을 자라게 하고 사회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든 문명의 토양이다.

2015년부터 문화예술치유 사업을 전개해 온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그동안 예술치유의 개념과 대상을 확대해 왔다. 2022년 예술치유 사업으로 수행한 ‘치유도 예술로: 어디서든 예술치유’는 공간의 기관 중심, 내적·외적 피해자 대상 중심을 보편적 일반인 수혜로 확장하여 숲에서, 공원에서, 광장에서 만나는 예술치유를 시도하였다.

2023년 사업에서는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를 한층 더 확대하는 일환으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도시숲’을 대상지로 한다. ‘도시숲’은 비법정용어이나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림과 수목, 공원, 정원 등”의 물리적, 법적 대상지를 포괄하는 장소이다. 도시숲 예술치유를 기획하면서 ‘자연을 무대로 원형적 예술의 경험을 스스로 체험’하는 조건을 상상해 보았다.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도시숲의 장소들을 자연의 물성에 따라 숲, 정원, 공원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러한 장소들 가운데 경관적으로, 생태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곳들을 선정하였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토의 빼어난 자연 자원을 찾고 누리며 즐겨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다. 도시의 일상적인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도 있고 발길이 드물게 찾아지는 먼 거리의 장소도 있다. 치유에 더해 유량의 좋은 목적지로도 손색이 없는 장소들이다.

문화의 원형, 고대 극장을 상상하다

고대 그리스의 극장 문화는 개인의 안녕과 평화, 사회 공동체의 번영에서 출발하였다. 기원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의 연극은 제례적 행사에 인류의 창의성과 감수성이 더해져 종합예술로 발전한 문화예술의 정수이다. 이러한 연극의 기원은 그리스에서 출발하였으나 다른 모든 문화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인류 공통의 문화예술이다. 에게해를 둘러싼 고대의 극장들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숲과 들판, 해안 경관이 무대이자 장막의 배경이 되었다.

도시숲에서 누리는 특별한 예술적 경험, 예술치유 자연극장이 되다.

도시숲과 예술치유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예술치유 자연극장]이라는 무대를 세워본다. [예술치유 자연극장]은 사람들에게 문화 원형에서 비롯된 태초의 경험과 자유로움을 만나게 한다. 자연을 무대로 한 편의 서사,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개인이 되었던 집단이 되었던 참여자-예술가-환경 3자 관계 속에서 깊은 몰입을 만들고 창조적인 경험을 만들어낸다. 이 특별한 경험에 예술적인 감흥이나 표출로서 반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치유’는 완성된다.

극장에서 펼쳐지는 예술치유의 드라마는 무궁무진한 장르의 확장성을 갖는다. 기존의 시각예술, 음악 예술, 무용 예술 등 각각의 장르를 넘어서는 융복합의 장르 구성을 통해 참여자와 환경의 일체감을 선사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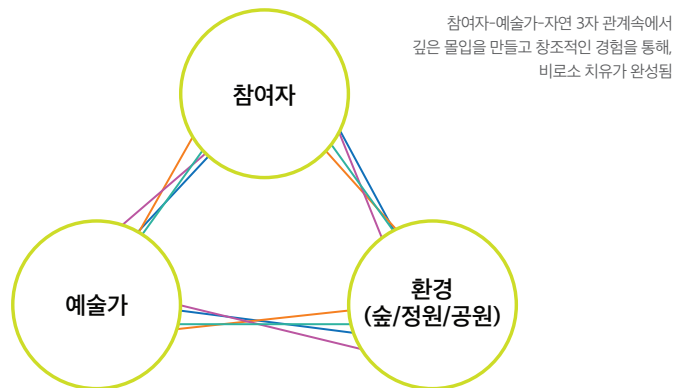


그림 98 그림 도시숲 예술치유의 3가지 구성 요소

3

도시숲 예술치유 프로그램 비전 및 목표

비전

누구나, 자연을 무대로 원형적 예술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드라마를 만드는 예술치유 자연극장

목표

일상에서 경험하는 숲, 정원, 공원의 자연을 삶의 장소로서 재인식하고
자연의 무대속에서 원형적 예술의 경험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회복탄력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치유 사업



그림 99 도시숲 예술치유 비전 및 목표

사업 대상

누구를 치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예술치유 사업 모델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다. 지금 시대에 가장 큰 위기로(치유적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위협과 1인 가구 증가를 꼽았다. 개인의 정서적·정신적 위기의 징후인 우울증 환자수는 코로나 이후로 37.1%(2021년 기준)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위기는 공동체 붕괴로도 이어진다. 2022년 전국적으로 1인 가구수는 946만 1,695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40.3%를 넘겼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함께 사는 삶, 협력 없이도 얼마든지 홀로 살 수 있는 외적인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급속한 핵가족화와 산업화, 자본주의로 인하여 다수의 노인과 청년 외에도 일자리, 경제적 이유 등으로 독거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족 구성원들이 늘고 있다.

예술과 도시숲의 만남을 통해 ‘나’와 ‘우리’를 위한 치유의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다. 도시숲을 무대로 삼아 예술을 통해 창의적인 표현과 경험을 제공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공동체 활동을 사회로 이끌어 냄으로써 개인과 사회는 보다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림 100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 모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발표, 2021년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수는 93만 3,481명으로 2017년 대비 37.1% 증가하였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자료: 행정안전부(2022),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사업 모델

개인 자아의 회복과 치유

개인의 삶과 일상에서 도시숲은 놀이이자 유희의 장소, 하나의 유토피아가 되어 자아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매개체로 다가오게 된다. 주로 1인 가구 청년층, 중장년층(은퇴자), 노년층(독거노인) 등 세대는 다양하다. 개인의 삶, 나의 문제에 좀 더 접근하는 치유가 필요한 이들이다.

사회 공동체 / 가족 문화의 회복과 연결

공동체인 우리는 어린이를 돌보는 가족일 수도 있고 청소년 그룹이나 단체일 수도 있으며,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가족 집단일 수도 있다. 사회적 격리와 박탈감의 이면에는 지지받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움, 고독이 존재한다. 지역 또는 장소 기반의 동질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치유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구적 미래의 돌봄과 공존

도시숲에서 개인과 사회를 넘어서는 미래를 위한 치유를 상상해 본다. 기후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기후 재난의 징후들, 더 이상 함께 공존하지 못하는 도시의 생물종 등. 예술이 품고 나아가야 할 치유의 서사에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 MZ세대를 주체로서 함께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비극적인 미래에 절망하는 한국의 수많은 ‘툰베리’들에게 전하는 치유의 메시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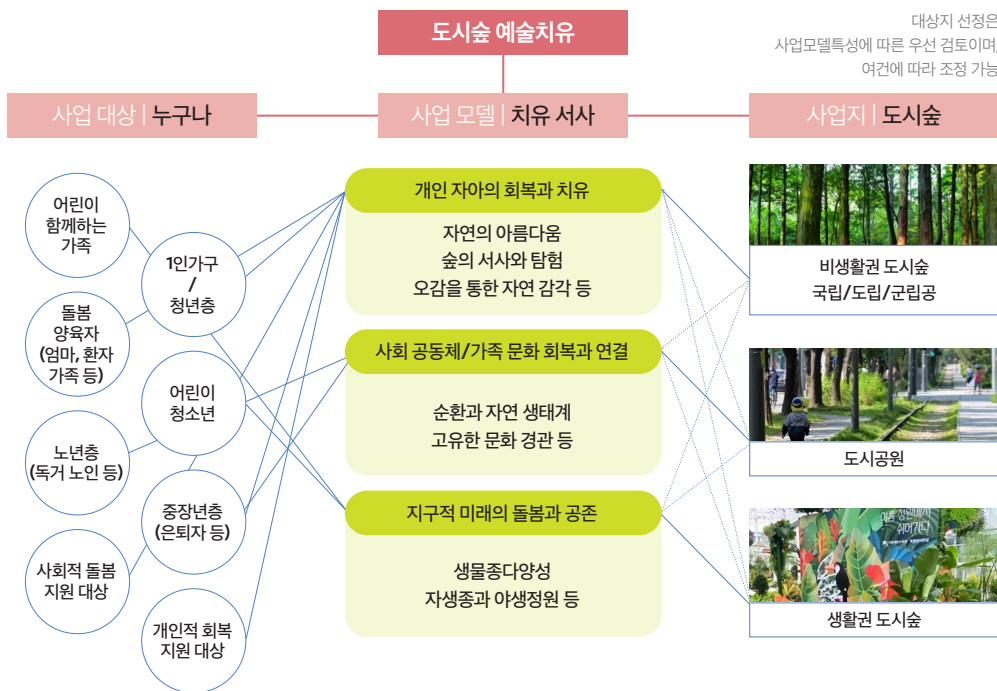


그림 101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 구조

사업 추진 전략 프로그램 개발 원칙

전략 01

경관적, 생태적 가치를 지닌 도시숲의 서사 발견하기

도시숲 예술치유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전략으로 장소에서 출발하는 서사 구성하기를 제안한다. 참여자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는 장소가 가진 힘, 독특한 매력과 이야기에서 출발할 때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며 동질적 감정을 나눌 수 있다. 고유한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도시숲 장소가 가진 경관, 생태적 가치에 대한 탐색 외에도 도시의 인문학적 배경, 인문·지리학적 문제들,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폭넓은 조사를 통해서 발굴할 수 있다.

관점 혹은 이슈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예술가(창작자/단체) 외에도 지역에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이끌어 나갈 주체들(예를 들어, 수목원/식물원 운영자, 지역의 학교 등 관계 기관)이 다학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함께 논의함으로써 장소와 지역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하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하다. 일회차 또는 다회차 구성 및 운영에 상관없이 참여대상자도 장소도 회복을 경험하는 치유의 서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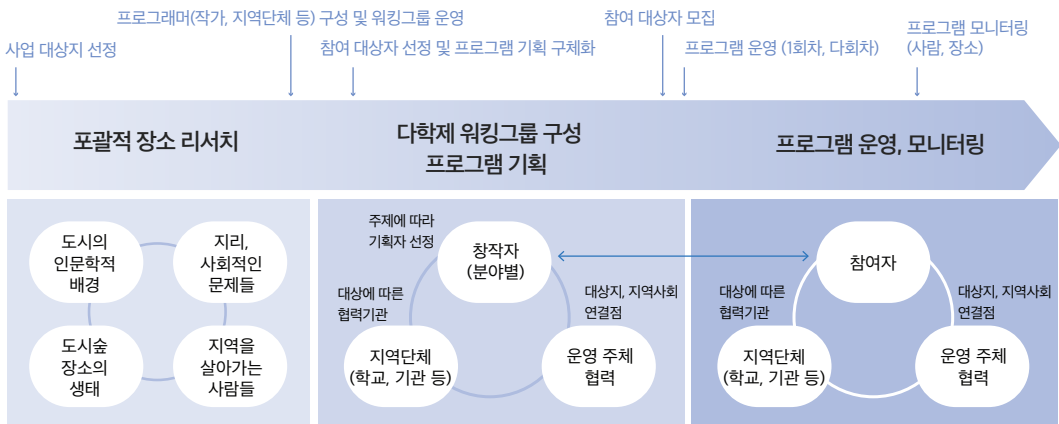


그림 102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 추진 전략 01

전략 02

자연으로부터의 영감 매개하는 예술가 (기획자)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에서 예술가는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인물자이다. 예술가는 환경(도시숲 장소, 자연)과 참여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자로서 주체적이고 창조성 있는 작업을 고안,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예술가가 어떤 작업 또는 태도, 가치관에 기반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생태-환경-식생-식물-정원 등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매개하는 작업, 예술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가령, 생물학적 탐색·시각정보를 예술창작물로 환원하는 방식의 작업을 주로 하는 이소요 작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물학적인 감각을 환기한다. 이소요 작가의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전시작 <석병산>(2022)에서는 강원도 석회암 지대에 사는 회양목 식물종을 통해 지역의 서사를 드러내며, 무용감독 송주원 작가는 일상의 숲과 정원, 공원의 장소에서 새로운 풍경과 사람의 관계맺기, 사람과 사람, 또는 지역과 사람이 관계맺기를 끊임없이 시도해 간다. 예술가들의 작업이 화이트큐브를 벗어나 야외 공간, 숲과 정원으로 나가는 이유도 이러한 생물학적인 감각, 자연으로부터 얻는 지식과 이미지들이 사회적인 메시지나 이미지로서 순환과 공감대(또는 지지)를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예술치유 콘텐츠의 핵심은 참여자의 특성, 도시숲 장소의 구성 뿐만 아니라 예술가가 자연과 어떤 관계맺음,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최근 예술가들의 작업 경향이 단일한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융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만큼 장르적인 고려 보다는 예술가가 생각하고 취하는 자연에 대한 관점을 고려하도록 한다.



그림 103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 추진 전략 02

콘텐츠 개발 과정

이 과업에서는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콘텐츠 유형화 및 시나리오 개발을 진행하였다. 예시로서 몇 가지 프로그램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파일럿 사업을 위한 몇 개의 세부 프로그램 계획을 발전시켜 제안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도시숲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이며, 이후 여러 장소들을 탐색하고 선정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후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는데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개발 과정과 파일럿 사업 실행 계획안 도출 과정을 소개한다.

1단계 | 사업 대상지 선정 (23년도 파일럿 사업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3년도 도시숲 예술치유 모델 개발을 시작하면서 국립세종수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도심 속 작은 공원에서부터 정원, 수목원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환경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확산에 국립세종수목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도시숲 유형화에 따른 숲, 정원, 정원의 장소적 접근으로 '국립세종수목원'을 파일럿 사업지로 삼았으며, 공원과 숲의 유형 가운데서는 '강릉 치유의숲'과 '시흥갯골생태공원'을 각각 사업지로 삼아 장소 리서치를 비롯한 포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2단계 | 장소 리서치 및 서사 구성하기_워킹그룹 운영 (협력체 논의)

대상지에 대한 선행 조사는 지리적·사회문화적·생태학적 조사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 방문객 또는 치유 프로그램 수요자(참여 대상) 연령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콘텐츠 기획 과정에서 다학제적 협업팀을 구성하여 창작자(문화예술 작가)·기획자·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업을 통하여 (선택) 창작자의 작품세계를 반영한 예술 치유 콘텐츠(안)을 도출하였다.

참여 대상자 선정은 대상지 방문객 대상 가운데 어떤 집단으로 진행할지 선정하기 위해서 대상자 범위 내 치유프로그램 니즈를 갖는 대상에 대한 파악과 조사를 진행하였다. 강릉 치유의숲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숲해설가를 통한 수요 파악이 이루어졌으며, 국립세종수목원은 기관 교육 운영팀에서 워킹그룹으로 논의를 함께하였다. 대상지에서 우선적으로 식생 등을 연구하여 주요 장소와 주제들을 개발하였으며, 몇 개의 참여자 그룹을 설정하여 참여 대상별 세부 프로그램 방향을 점검하였다. 콘텐츠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창작자의 작품세계와 관련 있는 대상자 범위를 선정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대상지와 참여 대상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기획 방향을 마련하였다.

* 2023년 5월 17일자 보도자료 참조

3단계 | 프로그램 시나리오 구성_ 워킹그룹 운영 (예술가-기획자 선정)

프로그램 기획 방향에 따라 장르, 주제를 검토하여 예술가-기획자를 선정하였다. 각각 개별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유형으로 제안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자연에 대한 영감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예술가 선정을 우선하였다. 강릉 치유의숲 경우는 사업모델 기획 초기 단계부터 흑표범 작가와 기획자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프로그램 방향 수립에서 시나리오 구성까지 개발하였다.

국립세종수목원의 경우는 프로그램 콘텐츠(안)을 운영할 수 있는 예술가(또는 예술강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예술가가 선정된 이후 각각 개별 콘텐츠의 특징도 예술가의 작업에 기반하여 방식과 프로세스, 대상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립세종수목원 정원 교육실 - 기획자(퍼블릭 어라운드) - 예술가(안성석, 송주원, 김지수) 작가와 프로그램별 워킹그룹 논의를 진행하였다.

4단계 | 프로그램 세부 계획 수립 및 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본 과업에서는 파일럿 프로그램 실행 이후 확산 모델 활용을 위하여 운영 가이드라인을 함께 작성하였다. 작가들과 함께 프로그램 세부 계획은 수립하면서 이후 다른 장소, 예술강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과 운영 지침을 함께 마련하는 것을 논의 과정에 포함하였다.

장르 융복합을 위한 새로운 장르적 제안

기존 예술치유 사업에서 이루어진 장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치유의 유형인 미술, 음악, 무용 외에도 사진, 문학과 게임디자인, 마임, 영화/영상 등 다양한 장르를 활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에서 작가에 따라 복합적인 장르 결합의 특징이 나타났다. 치유 프로그램 외에도 최근 예술가들의 작업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장르적 성격을 탈피하여 다양하게 장르 복합이 이루어지는 만큼 새로운 치유적 접근을 위한 장르 융복합의 개념을 제안한다.

몸짓 경관

몸짓경관은 Moving(움직임, 몸짓)과 Scape(풍경)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장르로서 몸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풍경, 몸짓 언어(제스처, 손짓, 발짓, 표정 등의 비언어적인 소통)를 통해 그려보는 새로운 관계맺기의 풍경을 만드는 치유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놀이 경관

놀이경관은 Play(놀이, 창작, 탐색)과 Scape(풍경)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장르로서 놀이 활동이 만들어내는 풍경, 탐색(채집, 수집, 탐험 등)과 창작(그리기, 만들기 등의 조형적 소통)를 통해 그려보는 새로운 관계맺기의 풍경을 만드는 치유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감각 경관

감각경관은 Aroma, Sound(향과 소리)과 Scape(풍경)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장르로서 향, 냄새, 소리의 감각이 만들어내는 풍경, 향과 소리 채집과 재배열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계맺기의 풍경을 만드는 치유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융복합 경관

융복합경관은 Convergence(장르 융합)과 Scape(풍경)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장르로서 영상, 공연 등 장르 융합이 만들어내는 풍경, 미디어, 공연(퍼포먼스와 음악) 등 다중 매체적 경험이 만드는 새로운 관계맺기의 풍경을 만드는 치유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도시숲 예술치유 (Moving Scape)

Moving (움직임, 몸짓) + Scape (풍경)

몸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풍경
몸짓 언어(제스처, 손짓, 발짓, 표정 등의 비언어적 소통)를
통해 그려보는 새로운 관계맺기의 풍경



놀이 경관 (Play 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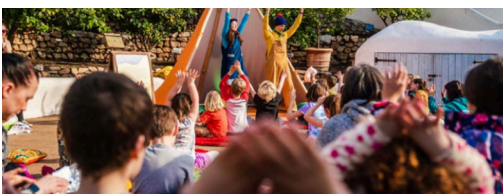
Play(놀이, 창작, 탐색) + Scape(풍경)

놀이활동이 만들어내는 풍경
탐색(채집, 수집, 탐험 등)과 창작(그리기, 만들기 등의 조형적 소통)을
통해 그려보는 새로운 관계맺기의 풍경

감각 경관 (Sense Scape)

Aroma, Sound (향, 소리) + Scape (풍경)

향, 냄새, 소리의 감각이 만들어내는 풍경
향과 소리 채집과 재배열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계 맺기의 풍경



융복합 경관 (Convergence Scape)

Convergence(장르 융합) + Scape(풍경)

영상, 공연 등 장르 융합이 만들어내는 풍경
미디어, 공연(퍼포먼스와 음악) 등 다중 매체적 경험이
만드는 새로운 관계맺기의 풍경

그림 104 프로그램 장르 제안

예술치유 자연극장

몸짓 경관 (Moving Scape)

강릉 치유미술

프로그램명: 비커밍 버즈
작가/장르: 흑표범 / 마임, 퍼포먼스
내용: 다른 종 되어보기를 통한 치유와 회복
대상: 어린이, 청소년

세종수목원

프로그램명: 정원으로 가는 길
작가/장르: 송주원 / 무용
내용: 몸의 감각을 통한 치유와 회복
대상: 어린이와 가족

시흥갯골공원

프로그램명: 춤으로 감각하기
(몸-마음의 속도)
작가/장르: 정지윤 / 무용, 연극
내용: 나를 위한 돌봄을 춤을 통해 나누는 회복
대상: 노년층

놀이 경관 (Play Scape)

강릉 치유미술

프로그램명: 숲의 여정
작가/장르: 이소요 / 조형, 수집, 드로잉
내용: 숲의 시간성 탐색, 수집, 기록의 여정
대상: 중장년층

세종수목원

프로그램명: 종의 집,
폴리네이터 가든
작가/장르: 안성석 / 디지털 드로잉, 조형
내용: 가상을 넘나드는 놀이 통한 치유
대상: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시흥갯골공원

프로그램명: 무경계 정원
작가/장르: Mix n FIX / 조형, 설치, 퍼포먼스
내용: 자연 재료의 물성을 직접 경험하는 치유
대상: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감각 경관 (Sense Scape)

강릉 치유미술

프로그램명: 살아있는 관계들
작가/장르: 정필승 / 조형, 드로잉, 소리
내용: 숲이 생명이 작품으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작업으로 공유
대상: 어린이와 가족

세종수목원

프로그램명: 그리고 싶은 나의 향
작가/장르: 김지수 / 향, 드로잉
내용: 오감을 매체로 환기하는 치유
대상: 돌봄 양육자(엄마와 아빠)

시흥갯골공원

프로그램명: 연결된 우리, 소리놀이
작가/장르: 정만영 / 소리 채집, 사운드 믹스
내용: 자연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 통한 치유
대상: 1인 가구(청년층)

융복합 경관 (Convergence Scape)

프로그램명: 숲으로 가는 <Eden>
작가/장르: 공연
내용: 자연을 배경으로 만들어가는 성장과 치유의 서사를 담은 합창 공연,
미디어 결합 다중매체 프로그램
대상: 전 세대(지역 어린이/청소년 등)

프로그램명: 어디서나 예술놀이터 <오! 플레이>
작가/장르: 퍼포먼스, 공연
내용: 공원, 정원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어른들을 위한 창작 예술 놀이터
대상: 전 세대(가족, 시니어, 청년)

그림 105 유형별, 장소별 콘텐츠 11가지 제안

몸짓 경관 <흑표범 작가의 비커밍 버즈>

■ 프로그램 개요

- <비커밍 버즈: 뱀, 물, 새의 연습>은 흑표범 작가와 개발, 진행하는 강릉에서 사는 서로 다른 배경의 학생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퍼포먼스 프로그램이다. 대관령의 입구이자 출구인 어흘리에 있는 국립대관령치유의숲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숲의 생태 환경을 탐구해보며 숲속 다양한 존재의 소리와 움직임을 몸짓 언어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몸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풍경을 통해 내가 아닌 존재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고 다양한 종들과 공생하는 삶을 상상해 본다.

참여작가 | 흑표범

참여 대상 | 아동 청소년과 가족(2인 이상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 / 아동·

청소년(8~14세 초등, 중학생)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집단(다문화 청소년)

운영 목표 | 한국 사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정체성들을 이야기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흑표범 작가와 함께 숲에서의 다양한 생물종에 대한 체험과 모색을 해보는 기회 마련하고 작가의 <비커밍 버즈> 작업에서 출발하여 대상지와 참여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치유적 기대효과 | 정체성을 수립해나가는 아동과 청소년들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몸짓 언어를 찾아가는 체험하여 시각 중심의 감각을 확장시켜 보고 다른 타자를 이해하는 시간을 사유

■ 프로그램 커리큘럼

표 28 <비커밍 버즈: 뱀, 물, 새의 연습> 커리큘럼 예시안

구분	주제 및 주요내용
사전 서신 교환	1~2회 작가와 참여자 간의 교감 형성을 위해 진행하는 사전 프로그램(작가가 참여 대상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는 편지)
오리엔테이션	110분 숲속 다양한 생물군을 상상하며 자신의 이름을 지어보고, 새로 지은 이름을 서로 소개해 보는 활동을 통해,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기대감 형성
1차시	150분 주제: 뱀의 연습, 뱀들은 눈을 감고 알아차린다. 시각에서 벗어난 주변적 감각으로 타자와 교감하는 뱀에 대해 이해해보기
2차시	150분 주제: 물의 연습, 물은 구별하지 않고 흐른다.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타자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탐구해 보기
3차시	150분 주제: 새들도 두려움 없이 날기 위해 연습이 필요하다. 숲속 다양한 생물 존재의 움직임을 상상해 보고 자신의 몸짓 언어로 사용해 보며, 움직임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경험해 보기

몸짓 경관 <송주원 작가의 정원으로 가는 길>

■ 프로그램 개요

- 송주원 작가와 개발한 <정원으로 가는 길>은 국립세종수목원을 대상지로 수목원의 정원길을 나무가 되어 걸어보고 자연의 생태 감각을 즉흥춤으로 표현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제목인 '정원으로 가는 길'은 프랑스 원예가이자 식물학자, 곤충학자이기도 한 질 클레망(Gilles Clément)이 쓴 책의 제목으로부터 출발한다. 식물을 종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거시적인 자연의 신뢰를 바탕으로 야생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정원과 숲정원에서 나무의 역사와 자연의 관계를 배워보고 '친구 나무'를 가족들이 만들어 나무의 호흡, 나무의 소리를 춤으로 표현한다. 참여자들의 춤의 행렬 자체가 정원으로 가는 길이 되며, 참여자들은 자연 생태계를 새롭게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작가 | 송주원

참여 대상 | 가족(2인 이상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

운영 목표 |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보존 및 연구하는 후계목정원과 숲정원에서 나무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의 세계를 개인의 정서적 반응과 연결. '친구나무'를

가족들과 만들고 자연 생태계를 이루는 야생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나무의

생태 감각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치유적 기대효과 | 생태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른 시기의 인식이 성인기의 환경

의식을 형성시킨다는 전제로부터 어린이, 가족 구성원이 수목원의 자연을

경험하며 자연과 연결된 환경을 인식하는 경험을 몸짓언어인 춤의 예술을

통해 경험

■ 프로그램 커리큘럼

표 29 <송주원 작가의 정원으로 가는 길> 커리큘럼 예시안(단체차 프로그램)

구분	주제 및 주요내용	
도입 몸풀기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 송주원 작가의 안무를 감상하며 자연의 생태 감각을 몸으로 표현하는 법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자연을 몸의 언어로 표현하여 자연과 인간이 풍경을 이룰 수 있는지 서로의 이야기 나누기 • 몸풀기 진행 : 숲 정원에 나가기에 앞서 스트레칭, 몸짓언어를 자기 신체로 감각화 하는 연습하기
생물종과 교감하기 + 친구나무 만들기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종의 호흡 표현하기 -나무의 학명, 나무의 특징 찾기 -나무 소리 찾기 • '친구나무' 만들기 -가족들과 친구나무를 찾아보고 만들어보는 시간 -나무 되어보기 (나무의 들숨과 날숨, 나무의 자라나는 형태 몸짓 언어로 표현하기) • 마무리 시간: 활동의 경험 공유 시간

몸짓 경관 <춤으로 감각하기(몸-마음의 속도)>

■ 프로그램 개요

- <춤으로 감각하기 몸-마음의 속도>은 안무가 정지윤의 작업으로부터 출발하여 현대무용을 도시자연 안에서 몸짓언어로 참가자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경험을 갖을 수 있도록 한다.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하여 나를 위한 돌봄의 시간이 생긴 분들을 대상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해보면서 자신을 돌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도시공원이라는 가까운 생활 장소에서 느낀 몸과 마음의 속도를 현대무용의 즉흥춤으로 표현한다. 이를 통해 노년층의 새로운 창작 활동과 자기표현의 방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원이란 도시자연의 생태 호흡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작가 | 정지윤

참여 대상 | 시니어층(평일에 공원에서 나를 위한 돌봄을 춤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시니어, 춤을 통해 나를 표현하고 싶은 시니어)

운영 목표 | 공원에서 즉흥무용인 노인무용(Dance for Older Adult)을 안무가의 지도 과정 아래 배우면서 지금까지 바쁘게 지내 온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과정을 제공, 즉흥 무용 수업 자체가 공연되는 것을 목표로 함

치유적 기대효과 |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즉흥 무용을 도시공원에서 배우면서 바른 몸을 갖게 해주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몸으로 교감하는 경험 제공. 시니어도 새로운 무언가를 창작할 수 있다는 자기표현의 방식을 춤을 통해 발견하고 자신에게 전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프로그램 커리큘럼

표 30 <춤으로 감각하기, 몸-마음의 속도> 커리큘럼 예시안(단회차 프로그램)

구분	주제 및 주요내용
몸과 만나기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정지윤 안무가의 작업 소개 -즉흥춤을 이루는 요소와 효과 -몸의 감각을 이용하는 방식 • 몸풀기와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몸풀기 수업으로 천천히 몸을 느끼고 동작을 안무가와 함께해보기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보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
자연 속에서 나의 몸과 마음을 표현하기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의 자연 속에서 나를 표현하는 춤의 요소를 동작을 자유롭게 따라 하면서 표현하기 -안무가의 지도로 자연의 느슨한 흐름에 온몸을 맡기면서 마음속의 회로 애락을 동작으로 표출하기

놀이 공간 <숲의 여정>

■ 프로그램 개요

- <숲의 여정>은 숲의 시간성을 수집과 기록을 통해 탐색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치유의 숲에서 해설을 통해 듣던 생태적인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숲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직접 문헌과 기록의 자료들을 작가와 함께 살펴보고, 치유의 숲에서 발견한 생태적 고유성 질문을 통해 사유해보는 보는 시간을 갖는다. 치유의 숲을 산책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나뭇조각, 흙, 열매, 곤충 등을 저마다의 키워드로 수집하고 기록해본다. 참여자들은 숲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숲이 존재하는 이유와 시간이 무엇인지 숲의 여정을 재구성해보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중장년층에게 앞으로 나아갈 고유한 자신의 시간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도 사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안작가 | 이소요

참여 대상 | 중장년층(숲이 가진 시간성, 다양성, 생태성에 깊이 빠져들어 탐험하는 작가 기록자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은 중장년층. 숲해설가, 식물해설가 등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즐기는 이들을 위한 작가와의 기록 여정)

운영 목표 | 숲이 주는 개인적인 즐거움과 열망, 지식과 삶의 배움의 시간을 넘어 작가가 탐색하고 수집하고, 기록하는 예술적 여정을 함께 일반인들이 따라가면서 예술 표현과 창작의 경험을 함께 즐김

치유적 기대효과 | 과학으로 알던 숲과 생태를 예술적으로 탐구하는 창작 방식을 통해 내면의 성취감과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기회 제공. 기록과 발견, 수집의 과정을 예술가의 도움으로 진행하면서 숲을 시간성을 하나의 고유한 서사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 제공

■ 프로그램 커리큘럼

표 31 <숲의 여정> 커리큘럼 예시안

구분	주제 및 주요내용	
오리엔테이션 (숲 탐험)	1회차	치유의 숲에서 장소를 다른 눈(시각 외의 다양한 감각)으로 바라보기
숲의 서사 알기 (숲이 위치한 서사 구성)	2회차	치유의 숲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고유성을 탐색해보고 문헌과 기록과 다르게 숲이 가진 자연의 고유한 시선과 언어로 발굴해보기
숲의 물성, 재료, 시간성 탐구하기	3회차	치유의 숲을 거닐며 재료, 물질, 생물종 등 저마다의 키워드로 수집, 기록하기
숲의 여정을 재구성하기	4회차	숲에 질문을 던지고 숲이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 시간 : '어디에서 와서 여기에 존재하는가?' 작가와 함께 숲의 여정을 재구성해보는 시간 갖기

놀이 경관 <안성석 작가의 종의 집>

■ 프로그램 개요

- <안성석 작가의 종의 집>은 국립세종수목원 폴리네이터를 대상으로 선보이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폴리네이터 정원(Pollinator Garden)은 꽃가루를 생산하는 식물을 심고 곤충들을 유도하여 꽃가루받이를 도와주는 꽃가루 매개자 정원을 의미한다. 곤충의 시점으로 세종수목원의 폴리네이터 정원을 관찰하면서 곤충의 서식지나 먹이원이 되는 식물을 곤충이 살아가는 꽃가루를 옮기고 생존하기 위한 생활의 방식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창작 활동에 기초가 되는 드로잉과 흙을 만지듯 클레이를 사용한 창작 활동은 손으로 정원을 가꾸는 생태적인 돌봄의 가치와도 이어진다. 참여 아이들이 만든 드로잉과 클레이로 작품을 작가가 구현한 디지털 폴리네이터 정원에서 입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자연과 공생하는 특별한 관계맺기 풍경인 '놀이 경관(Play Scape)'을 만든다. 기피의 대상이었던 곤충과 친숙해지고 자연과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새로운 다감각의 경험을 제공한다.

참여작가 | 안성석

참여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및 청소년

운영 목표 | 수목원/식물원이 생물다양성을 위한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서식처이자 서로 다른 종의 관계 맺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전체성의 자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서로 다른 종의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해 나가는 경험을 제공

치유적 기대효과 | 생소한 수분매개 곤충과 친해지면서 멸종위기의 정원에서 사는

생물종을 알아보고 자연과의 연결감, 생물종 존재에 대해 소중함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커리큘럼

표 32 <안성석 작가의 종의 집>
커리큘럼 예시안

구분	주제 및 주요내용	
오리엔테이션	1회차 (180분)	오리엔테이션: 작가 소개 및 작가작업 소개 -꽃가루 매개자를 위한 폴리네이터 정원 이해하기 -폴리네이터 정원 살펴보기(폴리네이터 정원 전체에 대한 해설, 루페 등을 활용한 곤충, 식물 관찰)
폴리네이터 정원 탐색하기	2회차 (180분)	주제: 폴리네이터 정원 탐색하기 곤충, 식물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자세히 기록하기 (네이처링을 활용한 관찰 기록 활용).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살고 싶은 곤충'을 드로잉으로 그려보기
꽃가루 매개자를 상상	3회차 (180분)	주제:함께 살고 싶은 꽃가루 매개자를 상상하기: 점토를 활용해서 곤충 만들기
디지털 폴리네이터 정원 만들기	4회차 (180분)	주제: 디지털 폴리네이터 정원 접속하기 디지털 폴리네이터 정원 짓기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폴리네이터 정원 안에서 새로운 관계맺기 활동)

놀이 공간 <무경계 정원>

■ 프로그램 개요

- <무경계 정원> 프로그램은 도시의 공원을 대상지로 하여 도시공원에서 자연스레 생겨나는 낙엽, 풀잎, 나뭇가지 등의 자연소재와 버릴 수 없는 사물들을 재료로 한다. 믹스 앤 픽스(MIX n FIX)의 작업으로부터 출발하여 흔히 공원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최소한 물질로 취급받던 자연의 부수물을 걸러내고 수집하여 재조합하는 과정을 배우는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자연 재료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물질 사용을 이용한 창작을 유도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창작하는 과정 안에서 자연물의 색다른 미감을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은 아이들에게 생명 가치에 대한 사유와 실천을 스스로 소멸하는 자연물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며, 가족들에게 생태적 관계 회복의 시간을 제공한다.

제안작가 | MIX n FIX

참여 대상 | 어린이가 있는 가족(시민)

운영 목표 | 도시공원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낙엽, 풀잎, 나뭇가지 등의 자연소재와 버릴 수 없는 사물을 걸러내고(cut) 수집하여 재조합하는 과정 안에서 자연과 친밀해지고 가족 간의 소통과 정서적 교감의 과정을 느껴보는 경험 제공

치유적 기대효과 | 자연의 재료로 설치물을 만드는 미술 경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의 모델을 적용하고 자연을 치유함과 동시에 가족들이 가까운 주변의 도시공원의 자연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함.

■ 프로그램 커리큘럼

표 33 <무경계 정원> 커리큘럼 예시안

구분	주제 및 주요내용
오리엔테이션	1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 소개와 오리엔테이션 -자연의 재료를 조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여러 가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재료를 걸러 내고(cut) 수집하여 재조합(mix)하는 작가의 작업 방식에 대한 소개를 통한 자연과 나, 나와 가족이 연결된 공동체라는 질문과 생각을 나누어 보기
오감으로 공원의 자연 모으기	2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션 수행 : 도시공원으로 작가와 함께 이동하여 오감으로 자연 재료를 탐색하기. 도시공원의 관리 과정에서 나오는 나뭇가지, 낙엽 등의 자연 재료와 쓸모가 없어진 사물을 수집하여 정원을 구성하는 동물, 생물, 식물 만들기 -자연 재료, 사물 재료를 선별하여 조각하고자 하는 생물종, 자연물로 작품 구성하기
무경계 정원 만들기	3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상한 생물종, 자연물을 작가와 함께 가족이 한 팀으로 완성하는 작업(*작품은 도시공원 내 관리 협조를 받아 상시적으로 전시 혹은 전시하는 형태)

감각 경관 <살아 있는 관계>

■ 프로그램 개요

-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이상엽 큐레이터가 기획한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여름까지 남산에서 열린 사계절 전시 살아 있는 관계 Living Relation 의 기획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자연과 인간의 호혜적인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숲에 작품을 기대듯이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창작 작품을 설치하여 숲이 형성한 생태환경 안에 작품이 계절에 따라 소멸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작가 | 정필승

참여 대상 | 어린이가 있는 가족

운영 목표 | 자연과 인간의 편방향적인 관계를 넘어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지향함.

숲에 작품을 자연에 기대듯이 설치하여 숲이 형성한 생태환경을 방해하지 않고 걷기를 통한 숲을 돕는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림

치유적 기대효과 | 숲을 걷는 행위가 숲의 소화기관의 역할을 하는 균류의 생성을 도와주기에 숲속을 산책하는 것이 숲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자연과 우리가 연결

■ 프로그램 커리큘럼

표 34 <살아있는 관계> 커리큘럼
예시안(단회차 프로그램)

구분	주제 및 주요내용
숲을 거니는 시간	60분
버섯집 만들기	60분

- 오리엔테이션
 - 작가의 작업 소개
 - 참여자 소개
- 숲을 거니는 시간 프로그램 소개
 - 숲을 거닐며 관찰하고 숲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확인하는 시간 (*걷기는 효과는 무엇일까?
 - 숲을 살아가는 생물들, 숲의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생물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걷기를 통해 나타나는 숲의 생태 작용에 대해 배워보기)

- 숲의 버섯집 짓기
 - 숲을 다시 한번 탐색하고 숲에서 발견한 자연 재료로 버섯집을 만들기
 - 버섯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곳들을 발견하여 버섯집 지어보기
-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
 - 숲에서 발견한 자연소재를 만든 버섯집을 통해 자연의 계절에 따라 순환하는 자연의 물성을 생각해보기

감각 경관 <김지수 작가의 그리고 싶은 나의 향>

■ 프로그램 개요

- 김지수 작가와 기획한 <김지수 작가의 그리고 싶은 나의 향> 프로그램은 자연의 향과 기억을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김지수 작가의 작업으로부터 자연의 '향'을 매개로 정원에서의 경험이 후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한 관찰과 기록을 토대로 냄새 드로잉을 창작한다. 수목원 온실과 실외 정원에서 시각으로 보던 자연의 인식 방식을 벗어나 냄새 맡고, 서로의 기억을 후각을 통해 느끼면서 작품으로 표현한다. 참여자들이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나만의 향이 기억되는 방식과 표현 방식을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참여작가 | 김지수

참여 대상 | 오전에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긴 엄마와 딸, 엄마와 엄마(엄마의 엄마)

- 워킹맘으로 생활하다 오전에 잠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생긴 엄마

- 사회구성원이었다가 은퇴 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생긴 엄마

운영 목표 | 수목원 자연에서 냄새 맡고, 서로의 기억을 후각으로 느끼며 공유해보면서

후각과 다양한 감각을 연결하여 작품으로 표현.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대화하며 나만의 향이 어떻게 기억되고 표현될 수 있는지 경험하는 시간

치유적 기대효과 | 자연에서 나의 기억을 모으는 기회를 냄새, 향으로 표현해보고

채집, 이를 후각적 상상력을 통해 엄마가 아닌 '나'로서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의 존재를 향이란 추상적인

감각으로 환원시키며 엄마가 아닌 오롯이 나라는 존재를 알아보고 느끼는

시간을 이해해 볼 수 있음.

■ 프로그램 커리큘럼

표 35 <김지수 작가의 그리고 싶은 나의 향> 커리큘럼 예시안

구분	주제 및 주요내용
오리엔테이션 감각하는 자연 소개	1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 진행, 작가 소개 및 작업 설명 - 참여자 소개: 참여자들이 어떤 계기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 서로의 가족(엄마와 엄마) 소개하기 • 감각하는 자연 프로그램 진행 - 우리의 감각 • 식물원 온실 탐구: 기초적인 해설을 토대로 온실에서 식물을 관찰하며 향에 대해 서로 표현, 향으로부터 느낀 기억 공유하기
기억 모으기 Part1 (정원 산책+기록)	2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하는 자연을 생각하기 그리고 표현하기(대상지는 수목원내 주제정원중산정) -정원 산책: 후각으로 관찰하기 -기록하기: 정원을 후각과 다양한 감각을 연결하여 관찰하며 기록 • 관찰하며 기록한 후각 경험 나누기 - 나만의 향을 어떻게 표현할지 구상하기
기억 모으기 Part2 (나만의 향 구상하기)	3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만의 향 구상 - 지난 수업에서 (1)정원 산책-후각으로 관찰, (2)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3)나만의 향을 어떻게 표현할지 구상하기 소개 • 냄새 드로잉 그려보기 - 다감각을 활용한 경험이 후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드로잉으로 표현해보기 • 활동 마무리하는 시간: 서로가 정원에서 느낀 후각에서 비롯된 기억을 통해 참여자 가족 간의 느낀 점 나누기
나만의 향 표현하기 (냄새 드로잉)	

감각 경관 <연결된 우리, 소리 읽기>

■ 프로그램 개요

- <연결된 우리, 소리 읽기> 프로그램은 '소리'를 통해 우리가 사는 일상 속 자연을 감각해보는 의도를 갖는다. 기후가 달라지면 자연의 소리가 달라진다. 계절에 따른 식물의 생장, 서식지를 옮겨가는 철새, 빙하의 녹는 소리 등 기후 위기는 우리의 일상에 직면해 있다. 정만영 작가의 사운드 작업에서 착안하여 특히 1인 가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자들이 도시공원의 소리를 색다른 방식으로 탐구하며 장소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친숙한 생활공간에서 도시공원의 소리를 채집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통해서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과 환경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한다.

제안작가 | 정만영

참여 대상 | 20~30대 1인 가구 청년층

운영 목표 | 일상적인 도시공원에서 야생의 소리를 청년들이 귀로 듣고 담아보면서 다른 청년층 참가자들과 함께 공유, 기록하는 경험 제공. 지나기 쉬운 가까운 공원 속 자연의 소리를 친밀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예술적 창작물로 표현

치유적 기대효과 | 혼자 살아가는 1인 청년층이 친숙한 도시공원에서 야생(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워크숍을 통해 '나'의 존재에 대한 마음의 소리를 함께 느껴보는 치유의 시간 제공. 자연에서 느끼는 미시적인 소리로부터 삶의 중요한 가치를 다시금 찾아보고 삶에 원동력을 제공하여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과정 경험

■ 프로그램 커리큘럼

표 36 <연결된 우리, 소리 읽기>
커리큘럼 예시안

구분	주제 및 주요내용
오리엔테이션 소리 감각을 깨우는 법	1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정만영 작가의 작업 소개 • 소리 감각으로 듣는 자연과 나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소리 감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교육 진행
야생의 소리 수집과 기록	2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을 산책하며 탐험하고 발견된 야생의 소리를 채집하는 필드 레코딩 -집음기를 활용하여 소리를 들어보고 소리를 들던 공원의 장소를 사진으로 기록해보기 -루페를 활용하여 곤충과 식물 잎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청각과 시각을 이용하여 기록해보기(야생의 소리 모으기 채집도구: 집음기 활용), (필드 레코딩(Field Recording) : 필드(Field), 즉 스튜디오와 같은 작업환경이 아닌 외부에서 녹음한 소리를 이용한 음악)
야생의 소리 스펙트로그램 워크숍	3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의 소리 스펙트로그램 워크숍 -집음기를 통해 수집한 소리를 작가의 코딩을 통해 시각적인 스펙트로그램으로 창작. 스펙트로그램에 담긴 소리를 함께 공유하며 이야기 나누기

융복합 경관 숲으로 가는 <Eden>

■ 프로그램 개요

- 영국에서 시작한 ITAC(International Teaching Artists Collaboration)과 연계한 합창 프로젝트인 <Eden Anthem>을 응용하여 도시숲을 배경으로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참여자들이 함께 합창하는 워크숍과 함께 도시숲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결합한다. 또한 합창 공연을 미디어 매체와 결합한 다중매체의 퍼포먼스 공연으로 확장할 수 있다.

운영 목표 | 도시숲 생태 탐구를 바탕으로 음악가와 함께 참여자들이 합주실에

벗어나서 자연을 감각하면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연의 소리를 표현.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콘서트 프로젝트로 미디어 결합한 다중매체의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기획할 수 있도록 함

치유적 기대효과 | 자연 활동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음악 창작을 결합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기 표현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자연 체험과 결합하여 신체적인 기능 회복과 치유적 경험을 새롭게 전달

융복합 경관 어디서나 예술 놀이터 <오! 플레이>

■ 프로그램 개요

- 2022년도 <어디서든 예술치유-치유도 예술로> 사업에서 진행했던 체험형 프로젝트 ‘예술치유 놀이터’를 도시숲으로 확장하여 ‘어디서나 예술놀이터 <오!플레이>’를 기획한다. 아이들에게 이른 나이의 숲에서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시간의 지점들(spot of time)’은 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조규성, 2010). 숲, 정원, 공원을 거점으로 하여 참여자가 공원에 고정된 놀이터에서 벗어나 자연을 배경을 한 느슨한 놀이터를 직접 창작하고 자연 속에서 재미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운영 목표 | 도시공원의 고정된 놀이터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선택한 자기 동기로

재료를 선택하여 자연 놀이터를 창작

치유적 기대효과 | 도시숲에서 도구를 직접 선택하고 놀이터를 만드는 창작 활동을

통해 공존, 관계,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이른 시기에 올바른 생태적 관계 맺기의 방식 놀이를 통해 상상하며 배울 수 있도록 전달

파일럿 사업 프로그램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 # 파일럿 사업
- # 대상지 조사
- # 워킹그룹 운영
- # 운영 가이드라인

1

파일럿 사업지 조사 및 워킹그룹 운영

파일럿 대상지에 해당하는 국립세종수목원, 강릉 국립대관령치유의숲, 시흥갯골생태공원 3곳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지 사전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이루졌으며, 각각의 대상지에 대해서는 장소적, 생태적, 인구학적으로 구분하여 대상지에 대한 특성을 도출하였다.

대상지 01

국립세종수목원

장소적 특성

- **지리적:** ‘객사터’, ‘동헌터’의 지방행정 세종의 중심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의 기획도시로 세종특별자치시 중심부에 위치하며 주변에 금강과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한 세종특별시 주요 도심 녹지로 기능
 -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의 지형인 장남 평야 지역을 수목원으로 식생 복구한 도시형 수목원
 - 우리나라 자생 식물에 대한 연구 특화 및 한국전통정원의 미를 보여주는 전략적 경관 조형에 따라 조성

생태적 특성

- **생태학적:** 서로 다른 종의 환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세계 안에 함께 존재하고 관계 맺는 방식들 탐구
 - 3,759종 172만본 식재 되어 있으며 지중해온실, 열대온실 등을 포함한 사계절전시온실, 민속식물원, 주제원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식물상이 전시 및 보존되고 있음
 - 온대 중부권 산림생물 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희구특산식물 서식지의 생태환경분석 등 자생식물 군락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우리나라 자생식물로 구성된 화분매개 곤충 서식지 구성에 대한 조사도 진행
 - 특히 국내 최초로 곤충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꽃가루 매개자(벌, 나비 등의 수분매개 곤충류)를 위한 폴리네이터 정원을 2021년 조성
 -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 정원을 조성. 천연기념물 후계목이란 천연기념물과 유전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개체로 천연기념물의 천재지변, 병해충 등 훼손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증식·보존하는 유전자원.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정원에는 ‘대구 도동 측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호, 1962)’의 측백나무, 안면도에서만 자생하는떡넉출 등 천연기념물, 보호수, 이야기가 있는 나무 등의 식물 유전자원 27종이 있음.

인구학적(주요 이용자/수요자)

■ 신도시 이주로 인한 분거가족의 특수한 도시적 장소성

-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지 합계출산율이 높은 도시이지만 세종시대에 대한 소속감이 크게 떨어지고 직장 때문에 분거하는 사람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분거가구는 21.4%. 5가구 중 한 집이 가족과 따로 사는 가구라는 뜻
- 공무원 이주를 포함한 비자발적 이동과 함께 보다 나은 주거지에 정착하기 위한 자발적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수지역



그림 106 국립세종수목원 대상지 리서치



그림 107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 정원

그림 108 후계목 정원의 보은 속리 정이품송 후계목

강릉 국립대관령치유의숲

장소적 특성

- **지리적:** 강릉의 지리적 경계를 뜻하는 대관령의 입구이자 출구
 - 국립대관령치유의숲은 대관령 아래 첫 마을로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통 요충지인 성산면 어흘리에 위치. 대관령 옛길, 선자령 순환등산로, 국가숲길, 등 백두대간 등산로와 연계되어 있음. (고속도로 개통 전 강릉을 방문한 사람들이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으나 현재 일부 차량만 통행)
 - 옛 선조들이 걸어서 강릉을 오고간 대관령 옛길과 연결된 숲은 강릉의 지리적 경계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해 사유하게 함
- **사회문화적:** 어흘리, ‘어울리다’, ‘만나다’라는 어원을 가진 강릉의 작은 숲속 마을
 - 현재 마을의 고령화로 소수의 인구가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음. 마을의 어원처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마을에서 함께 관계 맺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공동체성 회복하는 기회 필요

생태적 특성

- **숲속 존재를 탐구하여 다양한 종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사유**
 - 국립대관령치유의숲은 금강소나무, 피나무, 계수나무 등의 다양한 수종을 보유한 산림환경과 노루, 다람쥐, 뱀, 새 등 다양한 동물군이 서식하고 있어 다양한 생물종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

인구학적(주요 이용자/수요자)

- **강릉은 동해안 대표적인 관광지역이면서도 생활권 인구(거주 외 목적의 정주 인구) 높은 지역**
 - 강릉을 찾는 이들에게 숲은 동해안을 찾는 관문이자 새로운 정주지, 정착지로서 특히 새로운 라이프를 선호하는 30-40대 거주 높음
 - 강릉에는 2-3개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청소년들 외에도 학교 소멸 위기 지역에 있는 학교(이을학교) 청소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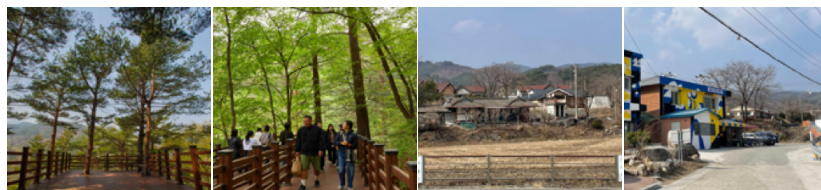


그림 109 국립대관령치유의숲과 성산면 어흘리 대상지 리서치

장소적 특성

- **지리적:** 산업 부지, 갯벌 개발의 역사에서 생태 자원을 보존하는 생태 친화도시로 전환
 - 1934-36 조성된 소래염전은 일제 시대 착취와 수탈의 장소. 96년 폐염되기까지 60년간 포동·방산동 주민들의 생활터전
 - 10여년간 방치되어 있던 갯골은 이후 자연의 회복력과 생태성을 길러가는 쉽의 기간을 거쳐, 갯골생태공원으로 재탄생
- **국내 유일의 내만 갯벌과 옛 염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생태공원, 자생적 ‘갯골 생태 축제’ 이루어지는 장소**
 - 2014년 배곧신도시 개발과 함께 갯골생태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미 2006년부터 지역의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주도하는 시흥 갯골 축제가 자생적으로 열리기 시작함. 현재는 시흥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이자 지역의 축제로 자리함

생태적 특성

-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기수역으로 다양한 갯벌의 생태계와 동식물이 공존하는 도시공원**
 - 2012년 국가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 시흥갯골생태공원에는 천이생태학습원, 사구식물원, 해수 체험장, 염전 체험장, 소금창고, 담조대 등이 있어 시흥의 고유한 도시자연 생태를 관찰하고 옛 염전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학습장이자 도시공원
 - 공원 내에는 다양한 염생식물(鹽生植物)이 자생하고 있으며, 각종 어류와 양서류 등이 서식하고 있음. 특히 깨끗한 자연 환경과 풍부한 먹이가 있어 갯골 주변에서 66종의 조류가 관찰되고 있음. 이 중 멸종위기 동물 1급인 저어새, 멸종위기 동물 2급인 검은머리물떼새·새홀리기,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제205-2호]·황조롱이[제323-8호]·노랑부리백로[제361호] 등이 서식 관찰됨

인구학적(주요 이용자/수요자)

- 인구 이동 비율이 높고 외국인 인구가 전국 2위 도시. 원도심 장년층 비율 높고, 캠퍼스 타운 따른 청년 증가
 - 시흥은 경기도 수도권 31개 가운데 중위권 도시로 서울-인천로부터 인구 순이동이 높은 확장 도시임. 인구 증가율 전국 6위(25.2%) 도시. 외국인 비율은 10.5%로 전국 2위를 차지함
 - 도시의 상당수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었으나 수도권 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지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단기간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요의 가구 구성원이 유입(원도심-중장년층, 신도시-어린이 있는 가족, 캠퍼스 타운 조성-청년층, 산업단지-외국인)



그림 110 시흥갯골생태공원 대상지 리서치

워킹그룹 구성 및 논의 과정

대표 파일럿 프로그램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예술가, 기획자, 국립세종수목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이루어진 워킹 그룹을 진행하였으며, 사업 추진 대상지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논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대상지를 탐색하고 예술가 리서치와 연구와 실행 주체를 워킹 그룹으로 설정하고 프로그램이 대상지의 장소성과 예술가의 기획을 개발 과정에서 반영하고자 하였다. 파일럿 프로그램 사업 대상지 발굴을 위하여 1차 논의에서는 식물원 전문가 및 조경가와 논의를 통하여 도시숲 기반 국내 대상지 발굴을 위한 자문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논의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파일럿에 적합한 대표 대상지를 선정하고 2차 워킹 그룹 논의에서는 예술가와 현장 기반을 통해 기획한 도시숲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의 적합성과 운영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립세종수목원 파일럿 프로그램의 안성석, 김지수, 송주원 작가와 줌과 현장을 통한 기획회의에서는 수목원을 대상지로 했을 때 대상자와 예술가의 작업에 기반한 예술 경험을 어떻게 프로그램 활동 안에서 참여자에게 전달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운영 부분과 추후 확산하는 모델에서 예술강사 혹은 숲해설가 등이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해 도시숲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 매뉴얼을 설정하였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운영 주체인 국립세종수목원과는 파일럿 프로그램 기획 방향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온실, 주제정원 등 수목원의 정원과 식생, 생태적 환경 등에 대한 사전 답사를 진행하여 기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111 1차 자문회의



그림 112 2차 자문회의



그림 113 국립세종수목원 기획 회의



그림 114 국립세종수목원 온실 현장 답사

2

파일럿 프로그램 01

<안성석 작가의 종의 집>

프로그램 개요

<안성석 작가의 종의 집>은 국립세종수목원 폴리네이터를 대상으로 선보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2022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한 폴리네이터 가든 순환랩(2022년)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관찰과 기록을 중심에 둔 활동이었다면,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파일럿 사업으로 기획한 <안성석 작가의 종의 집>은 아이들이 꽃가루 매개자(Pollinator)가 되어 생물종을 드로잉과 점토(클레이)로 표현하고 생물종과 함께 사는 집을 상상하고 실험하는 디지털 폴리네이터 정원을 만드는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놀이, 창작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맺기 풍경인 ‘놀이 경관(Play Scape)’를 만들어내고 다른 종의 관계를 창작의 놀이를 통해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단계별 접근

<안성석 작가의 종의 집> 프로그램 기획의 첫 단계는 대상지인 국립세종수목원에 대한 선행 조사로 지리적·사회문화적·생태학적 조사를 통해 폴리네이터 정원이 가진 생태적 특성과 공간적 특성을 발굴한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선정은 세종수목원의 주요한 방문객 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드로잉과 클레이 점토 창작과 디지털 기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참여 대상으로 하여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1. 대상지에 대한 선행 조사
 - 지리적·사회문화적·생태학적 조사
 - 대상지 방문객 연령대 파악
2. 다학제적 협업팀 구성
 - 창작자(문화예술 작가)·기획자·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
 - (선택)창작자의 작품세계를 반영한 예술치유 콘텐츠 기획
3. 참여대상 선정(방문객 대상/ 모객)
 - 대상지 방문객 대상 어떤 집단으로 진행할지 선정
 - 대상자 범위내 치유프로그램 니즈를 갖는 대상 조사 및 모객
 - (선택)창작자의 작품세계와 관련된 대상자 범위 선정
4. 협업팀과 대상지, 참여 대상 연구
 - 대상지 폴리네이터 정원의 식생 및 꽃가루매개 곤충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 참여자의 연령대와 배경 조사
5.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 대상지와 참여 대상 적합형 프로그램 개발



그림 115 국립세종수목원과 안성석 작가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논의



그림 116 국립세종수목원 폴리네이터 정원 곤충 및 식생 조사

국립세종수목원 맞춤형 커리큘럼 프로그램인 <안성석 작가의 종의 집>은 2단계의 형태로 운영된다. 첫 번째로 작가와 참여자가 국립세종수목원 폴리네이터 정원 생태 관찰을 통하여 수분(Pollination)의 방식, 꽃가루 매개자 곤충과 역할에 대해 익혀보는 시간을 갖는다. 2 단계에서는 예술가와 함께 창작하는 시간으로 관찰 및 탐구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꽃가루 매개자 곤충과 먹이원이 되는 폴리네이터 정원의 식물을 드로잉과 점토(클레이)로 만들어 본다. 예술가의 디지털 폴리네이터 안에서 참여자가 접속하여 디지털 공간 안에 구축된 꽃가루 매개자 곤충을 찾아보고 확대해보면서 서로 다른 종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탐구하며 관계맺기 경험을 제공한다.

표 37 단계별 접근을 통한 <안성석 작가의 종의 집> 운영형태

1단계	<p>폴리네이터 정원 관찰 및 탐구 프로그램</p> <p>폴리네이터 정원의 주요 식생과 꽃가루매개 곤충의 종류와 먹이원 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 환경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고 자유롭게 관찰 할 수 있도록 지도</p>
2단계	<p>예술가와 함께하는 창작 프로그램</p> <p>관찰 및 탐구 활동으로 익힌 꽃가루매개 곤충과 식물을 드로잉과 클레이로 창작해보고 디지털 폴리네이터 안에 개입해서 새로운 방식의 관계맺기를 경험</p>

세부 커리큘럼

국립세종수목원 맞춤형 커리큘럼 프로그램인 <안성석 작가의 종의 집>은 프로그램 창작 수업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참여자가 수분(Pollination)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꽃가루 매개자 곤충이 살아가는 삶터, 방식 등을 국립세종수목원 폴리네이터 정원을 직접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에 다양한 화분매개 곤충(나비류, 꽃등에류, 벌류)을 직접 관찰한 경험을 가지고 자세히 기록을 살펴보고 드로잉을 상상해 보면서 이후에 점토를 활용해서 ‘함께 살고 싶은’ 곤충을 점토로 표현해본다. 2차, 3차의 창작활동을 충분히 가짐으로써 화분매개 곤충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해 보고 곤충과 식물 간의 관계를 참여자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한다.

작가가 직접 창작한 디지털 폴리네이터 정원에서 참여자들이 직접 그리고 만들어 낸 수분 곤충을 디지털 공간 안에서 만나봄으로써 자신이 만든 생물종을 확대해보고 탐구해보면서 곤충의 세계를 다각각으로 소통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폴리네이터 정원과 가상의 폴리네이터 정원으로 확장된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종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의 정원인 폴리네이터 정원 속 곤충의 소중함과 공존의 가치를 이야기해 본다.

표 38 <안성석 작가의 종의 집>커리큘럼 예시

구분	주제 및 주요내용
1회차	180분 오리엔테이션: 작가 소개 및 작가 작업 소개 꽃가루 매개자를 위한 폴리네이터 정원 이해하기 (진행: 세종수목원) 우리는 왜 집을 함께 지어야 할까 설명 (곤충이 살아가는 삶터, 방식, 먹이원 식물, 환경을 이해하기) 폴리네이터 정원 살펴보기 (폴리네이터 정원 전체에 대한 해설, 루페 등을 활용한 곤충, 식물 관찰) *세종수목원 폴리네이터 정원 관련 작가 사전 워크샵 교육 필요
2회차	180분 폴리네이터 정원 탐색하기 곤충, 식물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자세히 기록하기 (네이처링을 활용한 관찰 기록 활용)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살고 싶은’ 곤충을 드로잉으로 그려보기 (진행: 작가, 보조 예술강사)
3회차	180분 2회차에서 그린 ‘함께 살고 싶은 꽃가루 매개자’ 드로잉을 바탕으로 점토를 활용해서 곤충 만들기
4회차	180분 디지털 폴리네이터 정원 짓기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폴리네이터 정원 안에서 새로운 관계맺기 활동) 내가 탄생시킨 꽃가루 매개자를 찾아보고 소개해보기

기대효과

국내 최초로 조성된 국립세종수목원의 폴리네이터 정원에서 자연 탐구의 예술 개입을 통해 꽃가루 매개자 곤충인 다른 종과의 관계를 수목원에서 새롭게 알아보는 경험을 제안한다. 수목원과 식물원은 생물다양성을 위한 보다 좋은 도시 생태 환경을 만드는 서식처이자 비인간인 곤충과 같은 생물종과의 관계 맺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지인 국립세종수목원의 장소적, 생태적, 인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기획한 놀이 경관의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꿀벌 등 수분 곤충과 친해지면서 정원에 서식하는 생물종과 먹이원이 되는 식물을 직접 탐구하고 창작해보는 활동을 통해 전지구적 위기의 시대에 도심 속 수목원에서 자연과의 연결감, 생물종 존재에 대해 소중함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

3

파일럿 프로그램 02

<송주원 작가의 정원으로 가는 길>

프로그램 개요

<송주원 작가의 정원으로 가는 길>은 국립세종수목원을 대상지로 수목원의 정원을 나무가 되어서 걸어보고 ‘친구나무’를 만들며 자연의 생태 감각을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제목인 ‘정원으로 가는 길’은 프랑스 원예가이자 식물학자, 곤충학자이기도 한 질 클레망(Gilles Clément)이 쓴 책의 제목으로부터 출발한다. 질 클레망은 생태주의 정원 철학으로 ‘움직이는 정원’을 제안하며, 자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연에 순응하여 식물이 본연 그대로 적절한 생육환경을 찾아가도록 허용하는 야생(wild)의 가능성에 의미를 둔다. 식물을 종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거시적인 자연의 신뢰를 바탕으로 야생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신도시로 계획된 세종시에서는 야생(wild)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새롭게 계획된 도시 구조에서 도시 안에서 길은 자연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만들어 낸 인간 중심의 길이 대부분이다.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 식물에게 도시 생태계는 낯선 삶의 터이다. 가족들이 국립세종수목원의 후계목 정원*과 숲정원에서 발견한 ‘친구나무’를 만들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수목원을 즐기는 그동안의 방식에서 확장하여 자연과 친근한 교감을 형성한다. 나무의 몇 세대에 걸친 가족의 역사를 보여주는 후계목 정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숲정원 숲길을 따라 천천히 호흡하고 걸으며 ‘친구나무’로 관계 맺고 자연과 마주하는 감각을 즉흥의 몸짓 언어로 표현한다. 자연의 보이지 않는 땅 속과 땅 위의 움직임의 세계를 상상하며 개인의 정서적 반응과 연결해보고, 가족 구성원이 자연을 몸과 마음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단계별 접근

<정원으로 가는 길> 프로그램 기획의 첫 단계는 대상지인 국립세종수목원에 대한 선행 조사로 지리적·사회문화적·생태학적 조사를 통해 수목원이 고유하게 가진 생태적 특성과 공간적 특성을 발굴한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선정은 세종수목원의 주요한 방문객 중에서 참여자의 연령대와 배경 등을 선행적으로 조사하여 세종시 사는 가족 중심으로 모객하였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도시계획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신도시인 세종시에 위치한다. 세종시는 신도시로 분거가족 형태, 어린이가 있는 가족, 소규모 가족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장소로 세종수목원의 주제정원 중 후계목 정원과 숲정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신도시에 조성된 수목원의 자연에서 나무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후계목 정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야생의 숲정원을 대상으로 가족 참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 천연기념물 후계목 정원(Natural Monument Conservation Garden)이란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후계목을 보존 및 연구하는 정원이다. 천연기념물이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식물자원으로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되어 국가에서 보호, 관리하는 문화재이다. 소멸위험이 높은 천연기념물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 정원에 식재된 나무들은 국립산림과학원의 DNA분석, 종식법 연구를 통해 복제 성공한 개체로 천연기념물 제30호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제359호 의령 성황리 소나무 등의 후계목이다(국립세종수목원).

1. 대상지에 대한 선행 조사

- 지리적·사회문화적·생태학적 조사
- 대상지 방문객 연령대 파악

2. 다학제적 협업팀 구성

- 창작자(문화예술 작가)·기획자·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
- (선택)창작자의 작품세계를 반영한 예술치유 콘텐츠 기획

3. 참여대상 선정(방문객 대상/ 모객)

- 대상지 방문객 대상 어떤 집단으로 진행할지 선정
- 대상자 범위내 치유프로그램 니즈를 갖는 대상 조사 및 모객
- (선택)창작자의 작품세계와 관련 있는 대상자 범위 선정

4. 협업팀과 대상지, 참여 대상 연구

- 대상지 폴리네이터 정원의 식생 및 꽃가루 매개자 곤충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 참여자의 연령대와 배경 조사

5.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 대상지와 참여 대상 적합형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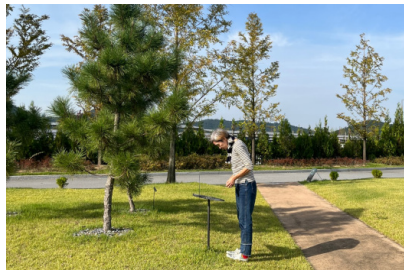


그림 117 국립세종수목원과 송주원 작가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논의



그림 118 세종수목원 숲정원, 후계목 정원 대상지 사전 조사

국립세종수목원 <정원으로 가는 길> 프로그램은 2단계의 운영형태를 갖는다. 1단계에서는 송주원 작가의 작업 방식에 대한 이해로부터 몸짓 언어로 나무의 호흡, 소리와 형태를 표현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참여 대상자가 스스로 몸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몸풀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참여자들 간의 타인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호흡하며 몸짓 언어를 이해해본다. 2단계에서는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정원과 숲정원에서 나무를 관찰하며 나무의 역사와 관계 등을 설정하는 시간을 갖는다. 가족들이 정원에서 나무가 지라온 관계를 생각하며 ‘친구나무’를 만든다. 정원 속의 다양한 나무의 생태감각을 느껴보면서 나무의 들숨과 날숨 등 남의 호흡을 상상하며 가족이 함께 몸짓 언어로 나무를 표현한다. 나무종이 되어 함께 만든 가족 참여 대상자의 행렬은 수목원의 새로운 정원으로 가는 길로 기억된다.

표 39 단계별 접근을 통한 <송주원 작가의 정원으로 가는 길> 운영형태

1단계	몸짓 언어로 자연감각 표현 몸풀기 - 송주원 작가의 안무 매뉴얼을 토대로 몸짓 언어로 자연을 표현하는 방법을 즉흥춤에 대한 몸풀기와 교육
2단계	즉흥춤 창작 워크숍 -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정원과 숲정원에서 나무의 역사, 시간성의 관계를 탐구하며 가족이 ‘친구나무’ 만들기 - 자연을 탐색하는 시간을 토대로 정원의 나무가 되어보며, 나무의 호흡과 소리, 형태를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몸짓 언어로 창작하는 시간

세부 커리큘럼

<송주원 작가의 정원으로 가는 길>은 1회차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몸’으로서 도시자연 속 생태 감각을 표현하며 생태와 친밀해지는 의도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 참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몸풀기 워크숍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들에게 작가는 그동안 어떤 주제로 창작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프로그램에서 진행할 워크숍에 대해서 참여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몸풀기 워크숍과 함께 자연의 생태 감각과 속도로 표현하는 방법을 작가와 보조예술 강사의 지도하에 동작을 따라 해 보고, 수목원의 다양한 나무종(나무의 들숨과 날숨, 나무잎의 소리를 몸짓언어로 표현하기) 등을 상상하면서 참여자 스스로 동작을 창작해본다.

동선을 따라가면서 몸풀기에서 배운 동작으로 나무의 움직임도 시도해본다. 후계목 정원과 숲정원에서 가족들이 함께 ‘친구나무’를 찾아보고 나무의 움직임, 소리를 함께 관찰해보면서 나무를 즉흥의 몸짓 언어로 표현해본다. 일상에서 잊고 있던 몸의 감각을 깨우고 친구나무를 만들면서 가족 간의 관계를 몸의 움직임으로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참여자들의 연결된 움직임은 그 자체로 정원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된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 간 활동의 소회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표 40 <송주원 작가의 정원으로 가는 길> 커리큘럼 예시

구분	주제 및 주요 내용
도입 몸풀기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주원 작가의 안무를 감상하며 자연의 생태 감각을 몸으로 표현하는 법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 자연을 몸의 언어로 표현하여 자연과 인간이 풍경을 이룰 수 있는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 몸풀기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칭, 기초 근력 트레이닝 등의 몸짓언어를 자기 신체로 감각화 하는 연습하기
몸으로 표현하기 + 친구나무 만들기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종의 호흡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 소리 찾기 • ‘친구나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들과 친구나무를 찾아보고 만들어 보는 시간 - 나무 되어어보기(각자 선택한 나무 또 생물종의 소리 혹은 움직임, 특징을 몸으로 표현하기) - 나무의 들숨과 날숨, 나무의 형태를 만들고 멈춤, 각 4박자로 정지, 나무의 형태는 계속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 - 마무리 시간: 활동의 경험 공유하기

기대효과

<송주원 작가의 정원으로 가는 길> 프로그램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가족 구성원을 팀으로 모집하였다. 프로그램은 인간이 자연을 상호작용적, 역동적인 공동체로 지각할 수 있도록 ‘친구나무’를 만들고 나무가 되어 이를 몸짓 언어로 새롭게 표현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수목원의 후계목정원과 숲정원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자연에 친근해지는 방식으로 ‘친구나무’를 찾아보고, 수목원의 기존에 정원을 관람하는 동선을 따른 관찰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들이 춤을 매개로 하여 자연 존재들과 가까워진다. 국립세종수목원의 후계목정원과 숲정원에서 가족 간의 관계를 생태적 관계로 확장하여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온몸으로 자연의 자율성을 받아드리는 경험을 통해 일상의 긴장을 해소, 가족 간의 긍정적인 정신적 안정감과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가족 회복력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일럿 프로그램 03

<흑표범 작가의 비커밍 버즈: 뱀, 물, 새의 연습>

프로그램 개요

<비커밍 버즈: 뱀, 물, 새의 연습>은 2023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서유록》에서도 함께 선보이는 퍼포먼스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대관령의 입구이자 출구인 어흘리에 위치한 국립대관령치유의숲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숲의 생태환경을 탐구해 보며, 숲 속 다양한 존재의 소리와 움직임을 몸짓 언어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몸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풍경인 ‘무빙 스케이프(Moving Scape)’를 통해 내가 아닌 존재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고 다양한 종들과 공생하는 삶을 상상해 본다.

시각예술가인 흑표범 작가와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기획팀 그리고 지역의 연구자인 (사)다봄인권센터 나갑주 센터장을 팀으로 구성하여 대상지와 참여자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강릉시 옥계면의 이을학교 어린이·청소년들과 타국에서 강릉으로 이주해온 강릉해람중학교 한국어학급 청소년(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출신의 이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체성을 수립해 가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몸짓 언어를 찾아가는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여 다양한 존재와 관계맺는 삶에 대해 사유하게 한다. 이와 함께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기간 중 가족 대상으로 원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세대와 성별을 넘어 몸짓 언어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단계별 접근

국립대관령치유의숲 맞춤형 커리큘럼 프로그램인 <비커밍 버즈: 뱀, 물, 새의 연습>은 2단계의 형태로 운영된다. 첫 번째로 작가와 참여자가 숲속의 나무, 새, 다람쥐 등과 다양한 생물의 이야기와 각자의 역할 등의 생태적 지식을 배우는 ‘산림치유-숲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작가가 대상지 식생을 연구한 후 직접 숲해설을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과 숲해설을 같이 연결하여 사유할 수 있도록 한다. 숲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탐구한 숲속 다양한 존재의 소리와 움직임을 몸짓 언어로 표현하는 ‘퍼포먼스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다음 단계에서는 숲해설을 통해 숲에 있는 다양한 생물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이 움직임을 관찰하고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동물들의 움직임을 따라해 보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몸짓 언어로 표현해보며 타인의 움직임도 이해해본다. 후각과 열로 대상을 알아차리는 뱀,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흐르는 물, 두려움 없이 날기 위한 새의 연습이라는 회차별 주제를 통해 참여자들은 다양한 존재가 되어보는 몸짓 언어를 수행하는 시간을 경험한다.

1. 대상지에 대한 선행 조사
 - 지리적·사회문화적·생태학적 조사
 - 대상지 방문객 연령대 파악
2. 다학제적 협업팀 구성
 - 창작자(문화예술 작가)·기획자·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
 - (선택)창작자의 작품세계를 반영한 예술치유 콘텐츠 기획
3. 참여대상 선정(방문객 대상/ 모객)
 - 대상지 방문객 대상 어떤 집단으로 진행할지 선정
 - 대상자 범위내 치유프로그램 니즈를 갖는 대상 조사 및 모객
 - (선택)창작자의 작품세계와 관련있는 대상자 범위 선정
4. 협업팀과 대상지, 참여 대상 연구
 - 대상지 숲의 식생을 연구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 참여자의 연령대와 배경 조사
5.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 대상지와 참여 대상 적합형 프로그램 개발



그림 119 흑표범 작가의 비커밍 버즈 오리엔테이션



그림 120 흑표범 작가의 비커밍 버즈 오리엔테이션 참여 모습

표 41 단계별 접근을 통한 <비커밍 버즈: 뱀, 물, 새의 연습> 운영형태

1단계	산림치유-숲 해설 프로그램 숲에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의 이야기와 각자의 역할 등의 생태적 지식을 교육
2단계	퍼포먼스 프로그램 숲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탐구한 숲 속 다양한 존재의 소리와 움직임을 몸짓 언어로 표현

기대효과

국립대관령치유의숲이 가진 천혜의 자연을 활용하여 예술을 통해 자연과 관계 맺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대상지와 참여자에 대한 연구와 작가의 작품세계를 기반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과 다양한 종들이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 사유해보고 숲 너머의 세계에 대한 지형적 상상력을 이끌어낸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다학제적 협업팀이 함께 개발한 커리큘럼을 통해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산림치유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기관인 (사)다봄인권센터와 강릉에서 학업을 이어 가는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세부 커리큘럼

<비커밍 버즈: 뱀, 물, 새의 연습>은 작가와 참여자간의 교감 형성을 위해 사전 서신 교환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 작가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소개하며,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진다. 이후 오리엔테이션에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존재(동물, 식물, 사물 등)를 상상하며 프로그램에서 불릴 이름을 지어보고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작가의 <비행공포>(2023)작품을 감상하며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 나누어보고 작품에 등장한 동물들의 움직임이나 소리를 따라해 본다.

1차시 뱀의 연습 시간에는 작가의 드로잉 프로젝트 <선영, 미영, 미영>(2017) 작품을 함께 보며 우리가 뱀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시각이 아닌 후각과 열로 대상을 인지하는 뱀의 여러 특성에 대해 배우며, 안대를 쓰고 뱀이 되어보는 몸짓 언어를 시도해 본다. 2차시 물의 연습 시간에는 물을 통해 나와 타인의 연약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의성어와 몸짓 언어를 통해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 3차시 새의 연습에서는 새가 되어보는 퍼포먼스를 해보며 기후위기 속 터전을 잃은 다양한 종들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표 42 <비커밍 버즈: 뱀, 물, 새의 연습> 커리큘럼 예시안

구분	주제 및 주요내용
사전 서신 교환	1~2회 작가와 참여자 간의 교감 형성을 위해 진행하는 사전 프로그램 (작가가 참여 대상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는 편지)
오리엔테이션	110분 숲속 다양한 생물군을 상상하며 자신의 이름을 지어보고, 새로 지은 이름을 서로 소개해 보는 활동을 통해,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기대감 형성
1차시	150분 주제: 뱀의 연습, 뱀들은 눈을 감고 알아차린다. 시각에서 벗어난 주변적 감각으로 타자와 교감하는 뱀에 대해 이해해 보기
2차시	150분 주제: 물의 연습, 물은 구별하지 않고 흐른다.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타자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탐구해 보기
3차시	150분 주제: 새들도 두려움 없이 날기 위해 연습이 필요하다. 숲속 다양한 생물의 존재의 움직임을 상상해 보고 자신의 몸짓 언어로 사용해 보며, 움직임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경험해 보기

사업 추진 방안 공모 프로세스 제안

#사업 추진 체계
#사업 추진 유형
#확산형
#개발형

1 사업 추진 체계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 체계는 다음과 같다.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기관(부처 및 소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23년 국립세종수목원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청 산하의 국공립 및 민간 수목원·식물원을 대표하는 중앙 기관으로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도시숲의 무대가 되는 숲과 정원의 장소들을 연계, 확산할 수 있는 모델로서 적용이 가능하다.

사업 추진 유형은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한다.

첫째는 공모사업형이다. 파일럿 사업 운영을 통해 개발한 프로그램/콘텐츠를 확산·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문화예술 치유 사업에서 적용해 온 관계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자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

둘째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형 방식이다. 새로운 도시숲 장소에서 서사를 만들어내는 예술가 및 기획자 중심의 기획 및 파일럿 프로젝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장소에서 차별화하는 영감을 발굴, 치유적 접근과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예술가 작업 기반의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 모델의 확산과 영향력 확대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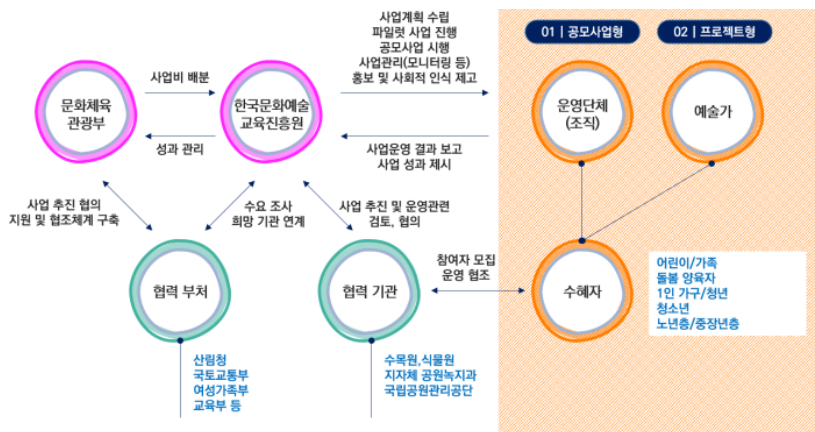


그림 121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 추진 체계

사업 추진 유형 01 <확산형 공모사업>

사업 추진을 위한 확산 모델로서 <확산형 공모사업> 운영을 제안한다. 기개발한 콘텐츠를 도시숲 여러 장소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 기획하여 적용하고 운영,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한다.

사업지 선정은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예산 범위에 따라 5-10개소 사업지 선정 후, 사업지별 모델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콘텐츠를 적용한다. 이후 사업 수행 주체를 선정하는 운영자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선정된 사업 운영자는 기개발한 프로그램/콘텐츠를 장소 또는 지역 여건에 맞게 변형하거나 새롭게 기획,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치유 대상자 선정 및 규모, 횡수 등을 조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업 진행 과정 및 사후 모니터링을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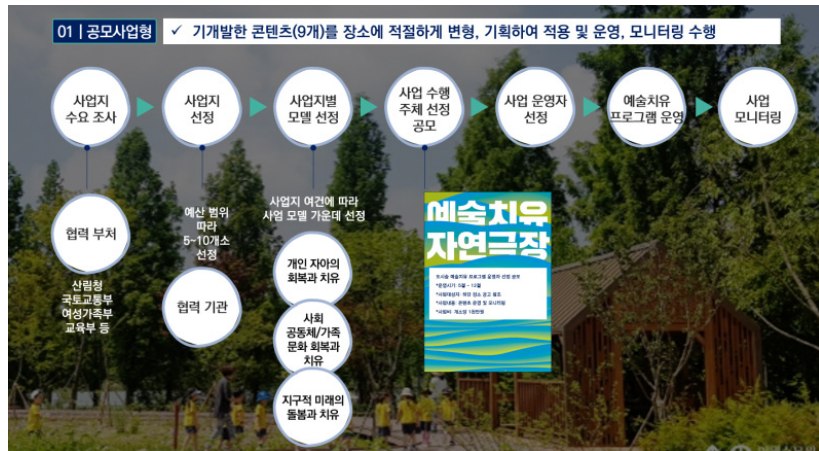


그림 122 도시숲 예술치유 <확산형 공모사업> 추진 프로세스

3

사업 추진 유형 02 <콘텐츠 개발형 예술가 기획사업>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의 목표가 되는 자연으로부터 얻는 예술적 경험을 통한 치유 모델 개발을 위하여 장소 기반의 <콘텐츠 개발형 예술가 기획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본 사업 모델에서 제안하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중요 요소는 자연이라는 무대의 극적 경험을 연출하는 ‘예술가’의 역할이다. 도시숲 이라는 장소와 예술의 만남을 다양하게 변주하는 새로운 콘텐츠와 기획자를 기대한다.

도시숲 예술치유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위원회와 커미셔너(기획자, 큐레이터)를 선정하고, 4-6명의 예술가를 선발하여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하는 파일럿 사업을 진행한다. 예술가 선발은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작업을 주제로 하는 작품(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전 과정에 대한 영상 기록을 함께 진행, 공유하도록 한다. 대상지는 1개의 대상지에서 여러 장소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도시숲 장소를 선정한 후, 작가들이 선택한 여러 장소들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예술가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은 예술 분야 장르(연극, 음악, 무용 등) 외에도 도시숲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6-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커미셔너(디렉터) 선정은 장소에 대한 고유의 이해와 서사 구성이 가능한 역량있는 예술가 또는 기획자로 한다.



그림 123 도시숲 예술치유 <콘텐츠 개발형 예술가 기획사업> 추진 프로세스

부록

<안성석 작가의 종의 집> 세부 프로그램 진행(안)

<종의 집(House of Species)> 프로그램 계획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참여 작가	안성석	진행 도움	보조 강사 1인
일정	2023년 9월16일~10월 14일	장소	세종수목원, 폴리네이터 가든(실외탐색),사계절배움터(실내교육)
참여자	초등학교 3-4-5학년(10~13명)		
주제	꽃가루 매개자가 되어 생물종이 함께 사는 집을 상상하고 실험하는 디지털 폴리네이터 정원(Digital Pollinator Garden) 짓기		
회차(시간)및장소	주요내용	세부내용 (진행 시나리오)	비고
1회차 (180분) 사계절 배움터 & 폴리네이터 가든	수업소개 +참여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원 소개 (주의사항 안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원에서 가장 궁금한 곳 • 온실에서 가장 맘에 드는 식물 찍어오기 ■ 카메라 사용법 간단히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찍은 식물 프린트 - 식물 혹은 곤충을 활용한 이름표 만들기 - 식물과 함께 자기소개 	
	폴리네이터 정원 이해하기 +이동시간 +정원 해설 +이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회차 프로그램 진행 소개 (작가 소개) ■ 꽃가루 매개자를 위한 폴리네이터 정원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네이터 정원 소개 • 참여자가 폴리네이터 정원으로 이동 • 폴리네이터 정원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종과 곤충들 관찰 등 자유롭게 관찰 • 카메라 활용하여 촬영 및 관찰 기록 작성 	물 낙시 의자 카메라 PC, 모니터링용 모니터
	쉬는시간	10분	
2회차 (180분) 폴리네이터 가든 & 사계절 배움터	경험공유 +다음시간소개 +오늘 수업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네이터 정원 관찰 경험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한 생물종(식물, 곤충, 새 등) 경험 나누기 (진행: 작가) •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참가자들이 느낀 폴리네이터 정원에 서 경험을 발표하기 • 사진 등 기록 자료 활용하여 관찰한 꽃가루 매개자 출력 ■ 다음 시간 프로그램 진행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가루매개자드로잉작업 소개하기 (진행: 작가, 예술강사) (*메뉴얼 참조) 드로잉 및 점토 워크숍(2, 3회차)에 대한 수업 설명 	
	꽃가루 매개자 관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네이터 정원 탐색하기(진행: 세종수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수업에서 진행했던 관찰을 바탕으로 드로잉하기 	24색 파스넛 색연필, 크레용 연필, 반짝이 등

<p>2회차 (180분)</p> <p>폴리네이터 가든 & 사계절 배움터</p>	<p>드로잉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네이터 정원에 사는 꽃가루 매개자 그리기(진행: 작가, 보조 예술강사) • 꽃가루매개자관찰을 토대로 함께 살고 싶은 곤충 선택하기 • 꽃가루 매개자 곤충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드로잉으로 표현하기 • '함께 살고 싶은 곤충'이 생활할 수 있는 집 그려보기(먹이 원 식물, 휴, 주변에 사는 식물, 서식처를 함께 그려보기) 	<p>드로잉이 어려운 친구들은 재미있게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하기</p>
<p>3회차 (180분)</p> <p>폴리네이터 가든</p>	<p>수업 소개 점토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토 워크숍 수업 소개(진행: 작가, 보조 예술강사) • 오늘 시작하는 점토 워크숍에 대한 설명(재료를 쓰는 방법 등에 대해서 진행) • 2회차 곤충 드로잉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소개하기(캐릭터 리깅) • 마찬가지로 드로잉 바탕으로 점토를 활용해서 식물 및 곤충 만들어보기(곤충 탄생시키기-추후에 3d) • 점토를 통해 곤충의 생김새, 몸의 형태, 수분하는 방식 등을 참고로 해서 점토로 자유롭게 만들기 	<p>실내 마이크, 클레이 도우(아노스 스노우매직, 플레이도우), 아이스크림 막대, 스토로폼 볼, 하드우드 등</p>
<p>내가 만든 꽃가루 매개자 곤충 소개하기</p> <p>오늘 수업 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만든 꽃가루 매개자 곤충 소개하기 • 왜 이 곤충이 되고 싶은지, 어떤 식물의 꿀을 좋아하는지, 정원에서 어떻게 생긴 집(서식처)이 필요한지, 무슨 색깔의 꽃을 좋아하는지 등 소개해보기 ■ 내가 만든 꽃가루 매개자 곤충 소개하기 • 왜 이 곤충이 되고 싶은지, 어떤 식물의 꿀을 좋아하는지, 정원에서 어떻게 생긴 집(서식처)이 필요한지, 무슨 색깔의 꽃을 좋아하는지 등 소개해보기 	<p>만들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재미있게 그릴 수 있도록 지도.</p>
<p>디지털 폴리네이터 정원 짓기</p> <p>꽃가루 매개자 곤충과 교감하기</p> <p>오늘 활동 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폴리네이터 정원 짓기(진행: 작가) • 작가님이 구축한 디지털 폴리네이터 정원을 살펴보기(아이들이 디지털 폴리네이터 안에 함께 게임해서 활동하는 방법 모색:참여자 각자 PC 및 태블릿이 필요함) ■ 디지털 폴리네이터 정원에 사는 나의 곤충 설명하기 • 내가 탄생시킨 꽃가루 매개자를 디지털 폴리네이터 정원에서 찾아보고 곤충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 전체 수업 활동 마무리 •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된 폴리네이터 정원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꽃가루 매개자의 집을 짓는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기 • 곤충의 생태 감각 등 워크숍을 통해 각자 배운 경험을 느끼고 함께 공유하기 	
<p>준비물, 기자재</p>	<p>영상 기기, 명찰, 마실 물, 손소독제, 기피제(필요시)</p>	
<p>참여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네이터 정원에서 관찰 활동하기에 편한 복장 안내(1, 2회차) • 부득이 불참 때 반드시 미리 알려 줄 것을 요청 • 활동 시작 전 미리 화장실 다녀오기 	

<송주원 작가의 정원으로 가는 길> 세부 프로그램 진행(안)

<송주원 작가의 정원으로 가는 길> 프로그램 계획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참여 작가	송주원	진행 도움	보조 강사 3인
일정	2023. 10월	장소	세종수목원, 후계목정원 및 숲정원 일대(실외탐색), 연구동 강당(실내교육)
참여자	세종시 거주 가족 2인팀(총 12명)		
주제	수목원 숲정원을 나무와 식물이 되어 걸어보며 자연의 생태감각을 즉흥적인 몸짓 언어로 표현, 자연과 교감하는 춤의 행렬 만들기		

회차(시간) 및 장소	세부내용 (진행 시나리오)	비고
-------------	----------------	----

<p>도입 몸풀기 (30분) / 후계목 정원 +연구동 회의실</p>	<p>수업 소개 + 참여자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원 소개 (주의사항 안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목정원과 숲정원 ■ 송주원 작가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주원 작가의 작업을 살펴보며, 몸짓 언어로 자연을 표현하는 방식과 자연 안의 움직임이 인간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 즉흥춤을 위한 사전 몸풀기를 조별(가족)로 작가의 안무 동작을 따라 하면서 몸의 긴장 완화 시키고 서로의 호흡을 느껴본다. ■ 참여자 가족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가족들이 명찰을 붙이고 각자 소개한다. • 앞으로 수업을 함께 할 조별 가족들과 작가와 인사한다. (주안점) 동작 표현을 어려워하는 참가자 혹은 몸에 무리가 가는 참여자는 동작을 천천히 따라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해주세요. ■ 몸풀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몸바로 세우기 2) 5개의 통로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머리스윙 • 양팔/ 팔스윙 손떨기 발떨기 • 양다리/ 다리 2번 스트레칭 3) 기초단위 움직임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걷기 서기 눕기 앉기 달리기 점프 • 각 동작 높낮이 다르게 • 8개의 방향으로 시도하기 	<p>실내 마이크 PC(모니터) 영상기기 스피커 PPT</p>
-------------------------------------------------------------	-------------------------------------------------------------------------------------------------------------------------------------------------------------------------------------------------------------------------------------------------------------------------------------------------------------------------------------------------------------------------------------------------------------------------------------------------------------------------------------------------------------------------------------------------------------------------------------------------------------------------------------------------------------------------------------------------------------------------------------------------------------------------------------------------------------------------------------------------------------------------------------------------------------------------------------------------------------------------------------------------------------------------------------------------------------------------------------------------------------------------------	--------------------------------------------------------



쉬는 시간 10분 및 이동시간(후계목 정원, 숲정원으로 이동)

창작 (40분)
후계목 정원
+ 숲정원

- 후계목정원, 숲정원에서 이동
 - 후계목 정원과 숲정원으로 이동해 나무종의 생태감각을 관찰해본다.
- '친구나무' 찾아보기
 -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정원에서 '친구나무'를 찾아보다.
(주안점) 세종수목원 후계목 정원의 나무종 사진 검토 후 설명
(대구 도동 측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호, 1962)의 측백나무, 안면도에서만 자생하는 먹년출 등 천연기념물, 보호수, 이야기가 있는 나무 등의 식물 유전자원 27종)
- 나무의 호흡으로 표현하기
 -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둘러앉는다.
(메뉴얼)
 - 1) 나무 소리찾기
ex) 스스스, 차차차, 슈우~, 톱독톱독
나뭇잎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벌레가 찾아왔을 때 소리
껍질이 벗겨지는 소리,
뿌리와 뿌리가 만나는 소리
 - 2) 나무 되어보기
각자 선택한 나무 또는 생물종의 소리를 몸으로 표현하기 #손동작 체크
(메뉴얼)
00나무 되기/ 5동작
00나무의 숨 주고 받기/ 3동작



마실물
기피제
알레르기약



참고자료 <우리의 이웃, 숲의 발견> 송주원/ 2020 서울숲 아카이브
<https://vimeo.com/525384185?share=copy>

- 3) 나무의 들숨 날숨/ 나무의 형태를 만들고 멈춤, 각 4박자로 정지, 나무의 형태는 계속 고정이 아니라 계속 변형 가능함

마무리 (10분)

오늘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수목원에서 발견한 생태 감각을 어떻게 몸으로 표현하고자 했는지 공유해보고 가족과 함께 표현한 점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경험하고 느낀 것을 나누어본다.

마이크
녹음기
마실물

준비물, 기자재


영상 기기, 명찰, 마실 물, 손소독제, 기피제(필요시)

참여자 안내

- 수목원 정원에서 관찰하고 무용하기에 편한 복장 사전 안내
- 부득이 불참 때 반드시 미리 알려 줄 것을 요청
- 활동 시작 전 미리 화장실 다녀오기
-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

<흑표범 작가의 비커밍 버즈: 뱀, 물, 새의 연습> 세부 프로그램 진행(안)

<뱀, 물, 새의 연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참여 작가	흑표범	진행 도움	어떤 콜렉티브
일정	2023.8.5. (100분)	장소	국립대관령치유의숲
참여자	36인 / 옥계마을 어린이 및 청소년		
주제	시각에서 벗어난 주변적 감각으로 타자와 교감하는 뱀의 연습		
단계 (시간)	주요내용	세부내용 (진행 시나리오)	비고
도입 (25분)	드로잉에서 타자를 상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흑표범이 먼저 간단한 인사 흑표범 작가의 드로잉 프로젝트 <선영, 미영, 미영>을 살펴봄, 고대신화 속 여성 신체와 동물이 결합된 이미지들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히드라와 같은 소수자에 대한 왜곡을 전복하는 작업을 해석하며 선입견에서 벗어나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뱀은 물을 상징하고 창세 여신의 무한한 생명력을 비추는 귀한 존재였다.  <p>성주, 평화, 지영, 문화, 은혜, 은정, 수연, 지현, 민선, mixed media on Korean paper, 400x260cm, 2017</p>	실내 마이크 영상기기 ppt
활동1 (25분)	소개하는시간 명찰 만들기 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을 골고루 섞어, 6~8명씩 조를 나누고 각 조의 조장을(고학년) 뽑는다. “구멍말+비인간” 형식으로 이름표 만들기 ex) 귀여운 앵무, 몽실몽실 호박이, 마음 약한 흑표범 앞으로 함께할 조별 친구들과 선생님이 인사해주세요. 시간내 모든 조원이 이름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내 마이크, 명찰, 칼라 매직
쉬는 시간 10분			

<p>활동2 (30분)</p> <p>숲을 만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로 모여 숲으로 함께 이동한다. 두 번째 데크까지 이동하며 마주치는 자연의 움직임들을 관찰한다. ■ 국수나무를 살펴보고, 생강나무의 냄새를 맡아본다. ■ 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뱀에 대한 편견: 작은 뱀들은 다람쥐에게 잡아 먹히기도 하고, 편견과 달리 귀여운 모습도 있다. 고대신화에서 뱀은 하늘이 물을 상징하는 귀한 존재였다. • 뱀의 특성: 뱀은 시각이 아닌, 후각과 열로 대상을 알아차린다. 뱀의 영역: 뱀과 인간은 각각의 구역이 있고, 우리가 뱀의 구에 들어간다면 진동으로 먼저 알아야 한다. ■ 소나무 군락에서 쪽동백과 굴참나무 이야기를 소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식생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거나 경계하며 생존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100살 소나무와 인사하며, 마음을 느끼고 감정이 있는 존재로서 자연을 인식한다. • 나무 아래에서 함께 광합성 하며 나무의 배려를 인식한다. <p>모든 조원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살펴주세요. 데크를 벗어나 숲으로 들어가면 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발전 기피제를 뿌려주시고, 모기약을 휴대해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살펴주세요.</p>	<p>숲 안전주의 기피제</p>
<p>활동3 (40분)</p> <p>시각을 차단하고 타인과 교감하기</p>	<p>1) 두 번째 데크로 이동해 호흡하며 가볍게 몸을 풀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으로 둘러앉는다. <p>2) 조별로 원안에 나와 안대를 쓰고 뱀이 되어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명씩 짝꿍을 만든다. ■ 안대를 쓴 뱀과 눈을 뜬 짝꿍이 만나기, ■ 서로를 보호하고, 비언어적으로 안내하기. 신체 소리나 동작 등... ■ 역할 바꾸어 해보기 * 천천히 움직이기, 몸으로 소리내기, 친구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접촉하기, 오감으로 알아차리기 ■ 시각에서 벗어난 감각으로 몸을 움직이기. 어둠 속에서 타인을 알아차리기. 집중하기. 몸의 감각을 열고, 시각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기. ■ 타인과 마주쳤을 때, 비언어적 소리, 몸짓, 터치 등 시각과 언어를 제외한 감각으로 인사/교감하기. <p>조별로 안대를 나누어주시고, 착용을 도와주세요.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 사이즈에 맞게 끈 묶어 주기 등) 두 명씩 짝을 지어주시고, 짝이 없는 친구는 선생님이 짝이 되어주세요. 활동을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복돋워 주세요.</p>	<p>두 번째 데크 (너무 더우면 강의실로)</p> <p>안대</p>
<p>마무리 (20분)</p> <p>오늘 활동을 정리하기</p>	<p>오늘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p> <p>내가 상상한 뱀에 대해서, 그리고 눈을 감고 다른 존재가 되었을 때의 느낌과 짝꿍과 함께 했을 때의 감각과 접근 방식 등 오늘 워크숍에서 각자 경험하고 느낀 것을 나누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의 활동을 예고하며 마무리한다. 한마디씩 회고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핸드폰으로 녹음해주세요. 	<p>데크 시원한 차</p>
<p>준비물, 기자재</p>	<p>영상 기기, 명찰, 매직, 안대(40개), 시원한 차(40인분), 손소독제, 기피제(모기)</p>	
<p>참여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움직임 활동을 위한 편한 복장 안내 ■ 늦어도 10분 전까지 도착 요청 부득이 불참시 반드시 미리 알려 주라고 요청 ■ 활동 시작 전 미리 화장실 다녀오기 	

<춤으로 감각하기(몸-마음의 속도)> 세부 프로그램 진행(안)

<춤으로 감각하기(몸-마음의 속도)> 프로그램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안)작가	정지윤	진행 도움	보조강사 2인
일정	120분	장소	시흥 갯골생태공원 잔디광장
참여자	시니어 대상 12명		
주제	돌봄의 시간을 몸짓 언어로 표현하기		
단계 (시간)	주요내용	세부내용 (진행 시나리오)	비고
도입 (20분)	오리엔 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지윤 안무가 작업 소개 즉흥춤을 이루는 효과에 대한 소개 몸의 감각을 이용하는 방식 참여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소개의 시간 갖기,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 몸으로 표현하고 싶은 동기를 자기소개를 통해 서로 알아보는 시간 	마이크 기피제 명찰
몸과 만나기 (40분)	몸과내가 만나기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으로 풀어보는 나의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무가 지도하에 참가자들이 몸으로 느끼면서 동작을 따라하기 자연의 소리, 움직임을 호흡을 통해 몸짓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따라 해보기 (주안점: 공원 환경을 반영하여 규모에 따른 구체적 동작 구성이 필요) 	
쉬는 시간 10분			
활동 (40분)	자연 속에서 나의 몸과 마음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과 나의 즉흥춤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의 자연 속에서 몸풀기를 통한 기본 동작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감정, 희로애락을 천천히 풀어내는 창작 시간 각자본인이 고른 공원의 장소에서 안무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면서 표현 슬픔, 두려움, 기쁨과 같이 몸으로 교감하는 경험을 자기 표현방식의 춤으로 느껴보기 	기피제 마실 물
마무리 (10분)	활동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무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들이 공원에서 즉흥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며 활동 마무리 (주안점: 각자의 이야기를 녹음해주세요.) 	
준비물, 기자재	영상기기, 명찰, 매직, 시원한 차(15인분), 손소독제, 기피제(모기)		
참여자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움직임 활동을 위한 편한 복장 안내 늦어도 10분 전까지 도착 요청 부득이 불참 때 반드시 미리 알려 주라고 요청 활동 시작 전 미리 화장실 다녀오기 몸에 이상이 있는지 참여자 사전 관련사항 체크 		

<숲의 여정>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안)

<숲의 여정> 프로그램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안) 작가	이소요	진행 도움	보조강사 1인
일정	120분	장소	국립대관령치유의숲 데크길
참여자	중장년층 10명		
주제	수집과 기록을 통해 숲과 나의 서사(시간의 이야기)를 재해석하기		
단계 (시간)	주요내용	세부내용 (진행 시나리오)	비고
도입 (50분)	오리엔테이션 및 숲의 시간성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소요 작가의 작업 소개 우리에게 숲은 어떠한 존재일까? 의 물음으로부터 숲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 참여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들이 참여하게 된 동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 숲의 시간성에 대해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숲, 치유의 숲과 같이 우리 주변의 숲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숲을 이루는 식물과 여러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기 숲의 시간성을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수집과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이소요 작가가 탐색하고 수집하는 기록의 여정을 통해서 알아보기 	실내 PC 영상 기기 마이크 명찰
쉬는 시간 10분			
활동 (50분)	숲 탐구와 기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시각으로 숲을 탐구하고 기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선 수업을 통해 치유의 숲 해설자의 인솔을 토대로 치유의 숲의 여러 생물과 자연을 탐구 시각 외에 다른 감각으로 숲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연, 여러 생물의 생태환경 등을 기록해오기 ex. 모야모 어플리케이션, 돋보기 등 관찰 도구를 활용 (주안점: 해설자의 인솔하여 안전에 주의해주세요.) 	기피제 스마트폰 마이크 마실 물
마무리 (10분)	활동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무리 시간 및 다음 수업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유의 숲에서 발견한 숲의 시간성을 기록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다음 수업 시간 공지 	
준비물, 기자재	영상 기기, 명찰, 매직, 돋보기, 시원한 물, 손소독제, 기피제(모기)		
참여자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 활동을 위한 편한 복장 안내 늦어도 10분 전까지 도착 요청 부득이 불참시 반드시 미리 알려 주라고 요청 활동 시작 전 미리 화장실 다녀오기 		

<무경계 정원>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안)

무경계 정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안)작가	MIX n FIX	진행 도움	보조강사 1인
일정	100분	장소	시흥 갯골생태공원 잔디마당
참여자	어린이가 있는 가족 6팀(최대 14명)		
주제	공원에서 발견한 물질을 재조합하는 워크숍		
단계 (시간)	주요내용	세부내용 (진행 시나리오)	비고
도입 (20분)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X n FIX의 작업 소개 작가 작업의 중심이 되는 작업을 설명하면서 워크숍의 주제와 수업에서 하게 될 창작 활동에 대해 알려주기 참여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가족들이 순서에 따라 소개하면서 각자 느낀 공원과 만들고 싶은 작품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공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물질(재활용 쓰레기, 버려진 물건, 쓰러진 나뭇가지, 낙엽 등)이 어떤 것이 있을지 토론해보기 <p>(주안점: 공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물이 무엇이 있는지, 공원에서 나오는 재활용 가능한 물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사전 조사 필요)</p>	실내 PC 영상 식기 마이크 명찰
쉬는 시간 10분			
자연 재료를 재조합하는 방법 (60분)	자연 속에서 나의 몸과 마음 표현하기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의 재료를 조각으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가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재료를 걸러 내고 수집하여 재조합하는 작가의 방식으로부터 준비된 재료를 통해 작은 창작물 만들기 준비된 창작 재료를 활용하여 참여 가족팀이 하나의 창작물 완성해 보기 ex. 공원에서 본 나무종, 공원의 벤치, 공원의 안내판 등 자연물 혹은 생물, 공원에서 필요한 물건 등 자유롭게 참여 가족이 선택하여 창작 <p>(주안점: 만들기를 어려워하는 참여자들은 도와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마다 만들어본 창작물을 소개하며 공유하는 시간 갖기 	창작을 위한 준비물 가위 칼, 풀, 여러 작가가 준 비한 재료
마무리 (10분)	활동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무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들에게 오늘 활동에서 느낀 점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다음 수업 시간에 대해 필요 준비물 등 공지 	시원한 물
준비물, 기자재	영상 기기, 명찰, 매직, 물, 기타 창작 재료		
참여자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늦어도 10분 전까지 도착 요청 부득이 불참시 반드시 미리 알려 주라고 요청 활동 시작 전 미리 화장실 다녀오기 		

<살아 있는 관계> 세부 프로그램 진행(안)

<살아 있는 관계> 프로그램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안) 작가	정필승	진행 도움	보조강사 2인
일정	140분	장소	국립대관령치유의숲 실내 배움실 및 숲길
참여자	어린이가 있는 가족 4팀(12명)		
주제	숲에서 걷는 활동으로 만드는 자연 창작 워크숍		
단계 (시간)	주요내용	세부내용 (진행 시나리오)	비고
도입 (20분)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필승 작가의 작업 소개 참여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소개의 시간 갖기, 명찰을 서로 달아주어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 수업을 통해서 느끼고 싶은 함께 가족과 경험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말해보기 	실내 PC 영상 기기 마이크 기피제 명찰
숲에서 걷기를 통해 생태작업 알기 (30분)	프로그램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아 있는 관계>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숲을 거니는 시간 소개 숲을 거닐면서 관찰하고 숲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무엇이 있을까? 숲에서 '걷기'의 효과는 무엇일까? 숲을 살아가는 생물들, 숲의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생물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걷기가 숲의 생태 작용에 주는 이로운 작용에 대해 배워보기 (주안점: 프로그램 사전에 숲의 생태환경, 생물종, 식물에 대한 조사 필요) 	
쉬는 시간 10분			
활동 (50분)	버섯집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유의 숲 관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유의 숲을 해설사를 따라 관찰해보면서 숲의 고유한 생태적 환경과 버섯이 살 수 있는 환경 알아보기 (주안점: 숲에서 자라는 식물 고유종, 버섯종에 대한 사전 연구를 반영) 숲의 버섯집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을 다시 한번 참여 가족들이 탐색하면서 숲에서 발견한 자연 재료를 버섯집 만들기 버섯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곳들에 버섯집 지어보기 (주안점: 버섯집 만들기를 어려워하는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피제 돋보기 루페 미니 삽 버섯집 재료 마실 물
마무리 (20분)	활동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 수업 마무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에서 발견한 자연소재로 버섯집을 만드는 경험과 활동의 소회를 나누는 시간 (주안점: 각자의 이야기를 녹음해주세요) 	
준비물, 기자재	영상 기기, 명찰, 매직, 마실 물, 손소독제, 기피제(모기)		
참여자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 활동을 위한 편한 복장 안내 늦어도 10분 전까지 도착 요청 부득이 불참시 반드시 미리 알려 주라고 요청 활동 시작 전 미리 화장실 다녀오기 		

<김지수 작가의 그리고 싶은 나의 향>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안)

<김지수 작가의 그리고 싶은 나의 향>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안)작가	김지수	진행 도움	보조강사 1인
일정	120분	장소	국립세종수목원 실내배움터 지중해 온실
참여자	오전에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긴 엄마와 딸 12명(6팀)		
주제	수목원 자연에서 냄새 맡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서로의 기억을 후각으로 느끼며 공유하기		
단계 (시간)	주요내용	세부내용 (진행 시나리오)	비고
도입 (50분)	오리엔테이션 및 '감각하는 자연'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지수 작가의 작업 소개 프로그램 진행 소개 참여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자기소개하기 참여자들이 어떤 계기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 서로의 가족 (엄마와 엄마) 소개하기 <감각하는 자연> 프로그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자기소개하기 우리의 감각에 대해 이해하기(후각, 미각, 청각, 촉각, 시각과 공감각의 감각) 냄새를 표현하는 기본 용어는 무엇일까요? 	실내 PC 영상 식기 마이크 명찰
쉬는 시간 10분			
감각하는 자연 워크숍 (50분)	후각과 다른 감각으로 식물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중해 온실 식물 냄새 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중해 온실에서 향기 나는 식물, 생태환경 등에 대한 기초적인 해설 교육 레몬, 티트리, 로즈마리 등 지중해 온실에 있는 후각을 자극하는 식물들을 해설을 따라 자유롭게 관찰하며 후각 감각 깨우기 <p>(주안점: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참여자들에게 확인받기, 온실 식재 수종과 생태 등 관련하여 작가 사전 워크숍 필요)</p>	마이크 알레르기 관련 상비약 마실 물
마무리 (10분)	활동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무리 시간 및 다음 수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롭게 지중해 온실에서 느낀 감각 나누기 엄마와 엄마가 가족이 함께 식물을 관찰하며 향 표현하기 서로가 느낀 기억 공유하기 <p>(주안점:서로의 이야기를 식물의 향을 통해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도와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수업 소개 및 미리 안내 	
준비물, 기자재	영상 기기, 명찰, 매직, 물		
참여자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늦어도 10분 전까지 도착 요청 부득이 불참시 반드시 미리 알려 주라고 요청 활동 시작 전 미리 화장실 다녀오기 		

<연결된 우리, 소리 읽기>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안)

<연결된 우리, 소리 읽기>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안) 작가	정만영	진행 도움	보조강사 1인
일정	180분	장소	시흥 갯골생태공원
참여자	20~30대 1인 가구 청년층 12명		
주제	공원 소리 채집 워크숍		
단계 (시간)	주요내용	세부내용 (진행 시나리오)	비고
1회차 (120분)	오리엔테이션 및 소리의 감각을 깨우는 법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만영 작가의 작업 소개 • 프로그램 진행 소개 ■ 참여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자기소개하기 • 참여자들이 수업 참여 동기, 본인의 소개를 통해 워크숍 활동에서 만들고 싶은 소리 창작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기 ■ 소리의 감각을 깨우는 법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소개를 함께하면서 소리 감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이해하는 교육 진행 	실내 PC 영상 식기 마이크 명찰
2회차 (120분)	소리 감각 수집 과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수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소개 및 활동 유의 사항 등 안내 • 수업에서 소리를 채집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리마인드 ■ 야생의 소리 기록과 수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을 산책하며 탐험하고 발견된 야생의 소리를 기록하기 • 핸드폰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거나 각자 수첩에 글로 기록하기 • 루페를 활용해서 곤충과 식물을 잎을 확대하여 들여다보기 ■ 집음기를 활용한 소리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음기를 활용하여 기록했던 식물, 여러 생물의 소리를 녹음하기 (주안점: 기계의 조작이 서툰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이크 핸드폰 루페 집음기 마실 물
3회차 (120분)	야생의 소리 스펙트로그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의 소리 스펙트로그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펙트로그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전 교육 진행 • 작가의 작업으로부터 소리의 원리 및 창작 방법 소개 • 집음기를 통해 수집한 소리를 작가의 코딩을 통해 시각적인 스펙트로그램으로 창작하는 작업 ■ 활동 마무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채집한 소리 스펙트로그램 창작 공유하기 •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공유하는 시간 갖기 	실내 PC 마이크 핸드폰 루페 집음기 창작관련기기 마실 물
준비물, 기자재	영상 기기, 명찰, 매직, 물		
참여자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늦어도 10분 전까지 도착 요청 ■ 부득이 불참시 반드시 미리 알려 주라고 요청 ■ 활동 시작 전 미리 화장실 다녀오기 		

단행본

박찬국(2023), 『내 삶에 예술을 들일 때, 니체』, 21세기북스
 미셸 르 방 키앵(2023), 『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프란트페이지
 에마 미첼(2020), 『야생의 위로』, 도서출판 푸른숲

보고서·학술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문화재단(2019), 『서울, 예술치유를 상상하다: 2019서울예술치유 네트워크 콜로티움 결과 자료집』
 서울문화재단(2020), 『서울, 예술, 치유: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치유사업 2010-2020년의 치유기』
 정여주(2016), 예술치유 패러다임을 위한 지원정책의 역할과 전망-미술치유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2016 제14호, 5-31쪽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2),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조규성(2010), 아이들은 숲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2015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결과 공유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2017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결과 공유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9), 『201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0), 『202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1), 『202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2), 『2022 어디서든 예술치유 기록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예술치유 활성화 추진모델 개발 및 사업타당성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예술의 가치 확산 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
 홍애령(2023), 위드 코로나 시대 시민문화예술의 향유 현황과 코로나 블루 완화를 위한 움직임 퍼포먼스의 방향성 탐색 『한국무용과학회지』 2023 제40권 제1호, 1-24쪽
 Brown, L. (2006), 'Is art therapy? Art for mental health at the millennium', Ph.D.,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Manchester.

웹사이트 및 기타자료

가든뮤지엄(Garden Museum) 홈페이지 <https://gardenmuseum.org.uk/>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https://www.sjna.or.kr/main/main.do>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https://kna.forest.go.kr/kfswweb/kfs/subldx/Index.do?mn=UKNA>
 뉴욕 보나틱 가든(The New York Botanic Garden) 홈페이지 <https://www.nybg.org/>
 브루클린 식물원 홈페이지 가든(Brooklyn Botanic Garden) <https://www.bbg.org/>
 블루메 미술관 홈페이지 <https://bmca.or.kr/>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sfac.or.kr/site/SFAC_KOR/02/10211040000002018102303.jsp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https://botanicpark.seoul.go.kr/front/main.do>
 천리포수목원 홈페이지 <https://www.chollipo.org/>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arte365.kr/?p=46909>; <https://www.arte365.kr/?p=57441>;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모카가든 홈페이지 <https://www.hmoka.org/main/index.do>

호주 시드니 왕립 식물원(Royal Botanic Garden Sydney) 홈페이지 [https://www.](https://www.botanicgardens.org.au/)

[botanicgardens.org.au/](https://www.botanicgardens.org.au/)

The Wild Escape 홈페이지 <https://thewildescape.org.uk/>

살아있는 관계(Living Relation) [https://www.youtube.com/channel/UCo_](https://www.youtube.com/channel/UCo_e5nalvz8C9AaGhNrFgWQ/videos?view=0)

[e5nalvz8C9AaGhNrFgWQ/videos?view=0](https://www.youtube.com/channel/UCo_e5nalvz8C9AaGhNrFgWQ/videos?view=0)

순환랩 2021:폴리네이터 가든-어린이 정원사의 그림일기 [https://www.artecirculab.net/3f8c1f42-](https://www.artecirculab.net/3f8c1f42-4cdf-4ee7-b14c-d4c7f8766f35)

[4cdf-4ee7-b14c-d4c7f8766f35](https://www.artecirculab.net/3f8c1f42-4cdf-4ee7-b14c-d4c7f8766f35)

환경으로서의 예술: 자두나무 개울에서의 문화활동 아카이빙 영상 [https://youtu.be/](https://youtu.be/jWiqULLBBCI)

[jWiqULLBBCI](https://youtu.be/jWiqULLBBCI)

Children's Forest Pavilion <https://neringaforestarchitecture.lt/childrens-forest-pavilion/>

Forest Transformation [https://www.alison-turnbull.com/Psyche-Or-the-Butterfly-An-](https://www.alison-turnbull.com/Psyche-Or-the-Butterfly-An-Expanded-Field-Guide)

[Expanded-Field-Guide](https://www.alison-turnbull.com/Psyche-Or-the-Butterfly-An-Expanded-Field-Guide)

보도자료 및 기사

한국일보, "세종시 10가구 중 1가구 '일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산다'", [https://m.hankookilbo.](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216110002457)

[com/News/Read/A2023010216110002457](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216110002457)

모테나, "세종시 주택시장, 어떻게 될까?", [http://wealth.moneta.co.kr/extern/pusan/](http://wealth.moneta.co.kr/extern/pusan/renewal2014/strategy/livetalk/liveTalkDetail.jsp?expert_id=&page=58&fieldValue=&seqNo=3132&furl=)

[renewal2014/strategy/livetalk/liveTalkDetail.jsp?expert_id=&page=58&fieldValue=&](http://wealth.moneta.co.kr/extern/pusan/renewal2014/strategy/livetalk/liveTalkDetail.jsp?expert_id=&page=58&fieldValue=&seqNo=3132&furl=)

[seqNo=3132&furl=](http://wealth.moneta.co.kr/extern/pusan/renewal2014/strategy/livetalk/liveTalkDetail.jsp?expert_id=&page=58&fieldValue=&seqNo=3132&furl=)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